

복음서

시노달 번역

목차 이

마태복음, 서두: [1](#) [2](#) [3](#) [4](#) [5](#) [6](#) [7](#) [8](#) [9](#) [10A](#) [10B](#)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A](#) [20B](#)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A](#)
[34B](#) [35](#) [36](#) [37](#) [38A](#) [38B](#) [39](#) [40](#) [41](#) [42](#) [43](#) [44](#) [45](#) [46A](#) [46B](#) [47](#) [48](#)
[49](#) [50](#) [51](#) [52A](#) [52B](#)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A](#) [67B](#)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A](#)
[83B](#) [84A](#) [84B](#) [85](#) [86](#) [87](#) [88](#) [89](#) [90A](#) [90B](#)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A](#) [110B](#) [111](#)
[112](#) [113](#) [114](#) [115](#) [116](#)

마가복음, 서두: [1](#) [2A](#) [2B](#)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A](#) [67B](#) [68](#) [69A](#) [69B](#) [70](#) [71](#)

누가복음, 서두: [1](#) [2](#) [3A](#) [3B](#) [4](#) [5](#) [6](#) [7](#) [8A](#) [8B](#)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A](#) [48B](#) [49](#) [50A](#) [50B](#) [51A](#)
[51B](#)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A](#) [108B](#) [109](#) [110](#) [111](#) [112](#) [113](#) [114](#)

요한복음, 서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A](#) [14B](#)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A](#) [35B](#)
[36](#) [37A](#) [37B](#) [38](#) [39](#) [40](#) [41A](#) [41B](#) [42A](#) [42B](#) [43](#) [44](#) [45](#) [46](#) [47](#) [48A](#) [48B](#)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A](#) [59B](#) [60](#) [61A](#) [61B](#) [62](#) [63](#) [64](#)
[65A](#) [65B](#) [65C](#) [66](#) [67](#)

부록

복음서 읽기 순서:

모든 주간	211
사순절	226
일요일 아침 복음	229

12개월 모음집: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복음서:

성인들의 공통 기념일.....	253
다양한 경우.....	255

마태복음

마태복음, 서두 1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팜마리에게서 파레스와 자라를 낳았고, 파레스는 에스롬을 낳았고, 에스롬은 아람을 낳았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아손을 낳았고, 나아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하브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비드를 낳았고, 오비드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았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고, 우시야는 요아팜을 낳았고, 요아팜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마나세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으며, 요시야는 요아킴을 낳았고, 요아킴은 바빌론으로 유배되기 전에 여호야긴과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빌론으로 유배된 후, 여호야긴은 살라필을 낳았고, 살라필은 소로바벨을 낳았으며; 소로바벨은 아비우드를 낳았고, 아비우드는 엘리아킴을 낳았고, 엘리아킴은 아소를 낳았고, 아소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힘을 낳았고, 아힘은 엘리우드를 낳았고, 엘리우드는 엘레아자르를 낳았고, 엘레아자르는 마트판을 낳았고, 마트판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예수, 곧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이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기까지 열네 대, 바빌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으나, 그들이 함께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를 원치 않아 은밀히 그녀를 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가라.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녀가 맏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마태복음, 2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으나, 그들이 함께 살기 전에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망신시키기를 원치 않아 은밀히 그녀를 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가라. 그녀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녀가 맏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마태복음 1:18-25
그리스도 탄생 전야, 제1시.
그리스도 탄생일, 아침 예배.

마태복음, 3장 시작

헤롯 왕 시대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크게 불안해했고, 예루살렘 온 도시도 그와 함께 불안해했다. 그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물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유다의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베들레헴아, 유다의 땅이여, 유다의 다른 도시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리니, 네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기를 알아낸 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드리겠소.”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보라, 그들이 동쪽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더니, 마침내 아기께서 계신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지극히 기뻐하며,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고, 보물 상자를 열어 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그리고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마태복음 2:1-12
그리스도 탄생 전야, 제6시.
그리스도 탄생일, 성찬례 중.

마태복음, 4장 시작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고 있다.” 요셉은 일어나 밤중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으니, 이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동방박사들에게서 알아낸 시기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 전체에서 두 살 이하의 모든 젖먹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으니, 그가 말하기를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음과 통곡과 큰 비명 소리라. 라헬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니, 그들이 없음이니라.” 헤롯이 죽은 후, 보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켈라이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꿈에서 계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정착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3-23
그리스도 탄생 전야 9시.
12월 26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12월 29일, 성아기들.
그리스도 탄생 후 첫 주.

마태복음, 5장

그 무렵 세례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님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장차 닥칠 진노를 피하게 하였느냐?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

마태복음

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놓여 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베어내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하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다.

마태복음 3:1-11
주현절 전 토요일.
주현절 전야, 제1시.

마태복음, 6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요한은 그분을 붙잡고 말하였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오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지금은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을 받는 자라.”

마태복음 3:13-17
주현절 전야, 9시.
주현절, 성찬예배 중.

마태복음, 7장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사십 일 사십 야를 금식하신 끝에 배고프셨다. 그때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그러나 그분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은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후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지붕 끝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된 바와 같이, ‘그가 자기 천사들에게 너에 대하여 명령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 기록되었으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도 하였느니라.”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네가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떠나갔고,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을 섬겼다.

마태복음 4:1-11
주현절 후 토요일.

마태복음, 8장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는 요한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시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 해변에 이르러 거기 거처를 정하셨으니, 이는 자불론과 납달리의 땅, 곧 요단 강 건너편 해안 지역에 위치한 곳이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말하기를, “자불론 땅과 납탈리 땅, 요단 강 건너편 해안 길,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속에 앉아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다.

마태복음 4:12-17

주현절 후 첫 주.

마태복음, 9장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시몬(베드로라고도 불리는)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 이 두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예수님께서서는 또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온갖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4:18-23

오순절 후 2주.

마태복음, 10A절

그 무렵 갈릴리와 십도시, 예루살렘, 유다, 요단 강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으며,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그분은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요.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쫓김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며 온갖 불의한 말로 비방받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마태복음, 10B절

그 무렵 갈릴리와 십도시,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 강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그분은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니라.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쫓김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며 온갖 불의한 말로 비방받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느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다만 사람들에게 밟히게 내버려질 뿐이다.

마태복음 4:25-5:13

제1주 화요일.

마태복음, 11장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 없다. 또한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온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한 요타나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5:14-19

성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한 말을 들었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마태복음

게 헛되이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하는 자는 산헤드린 에 넘겨질 것이며,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음을 기억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한 다음,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원수와 빨리 화해하라. 아직 그와 함께 가는 길에 있을 때 화해하여, 원수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지 않게 하고, 재판관이 너를 하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여, 너를 감옥에 가두지 않게 하라.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코드란트까지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20-26
제1주 수요일.

마태복음, 13장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와 간음한 것이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유혹한다면, 그것을 뽑아 내버려라. 네 지체 중 하나가 망하는 것이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유혹하면, 그것을 잘라 내어 네게서 멀리 던져 버리라. 네 지체 중 하나가 망하는 것이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음한 죄 외에는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할 기회를 주는 것이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5:27-32
제1주 목요일.

마태복음, 14장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라’고 한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땅은 그분의 발 등상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말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 하라. 그 이상은 다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게 대항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주라. 누가 너와 소송을 걸어 네 겹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겹옷뿐 아니라 속옷도 내어주라. 누가 너를 한 리만 같이 가자고 강요하거든, 두 리를 같이 가라.

마태복음 5:33-41
제1주 금요일.

마태복음 15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네게 빌려 가려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니, 그분은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 위에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오직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특별히 하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마태복음 5:42-48
오순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마태복음, 16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도록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나 네가 자선을 베풀 때, 네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여, 네 자선이 은밀하게 되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것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니라. 또 기도할 때, 회당이나 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것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헛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과 같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께 있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1-13
치즈 주간의 토요일.

마태복음 17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짓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금식하는 자로 드러나도록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것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니라.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갇아먹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가나니,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라. 거기서는 좀도 녹도 갇아먹지 못하고 도둑들도 뚫고 들어와 훔쳐 가지 못하리니,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14-21

사순절 첫 주.

마태복음, 18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흐리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에는 정성을 다하고 다른 쪽에는 소홀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영혼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늘의 새들을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창에 모아 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옷에 대해서는 왜 염려하느냐? 들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베를 짓지도 않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 속에서도 이 꽃들 중 하나만큼 입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고 내일 화로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에 궁핍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마태복음 6:22-33

제3주.

마태복음 19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에 궁핍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스스로 염려할 것이니, 하루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물고기를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31-34; 7:9-11
제2주 월요일.

마태복음, 20A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너희도 그렇게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어떤 척도로 재느냐에 따라 너희에게도 그렇게 재어질 것이다.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혹은 네 형제에게 ‘내게 주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고 말하겠느냐? 보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러면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아 버리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버릴까 하노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 주실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1-8
제2주 토요일.

마태복음, 20B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고, 찾는 사람은 누구나 찾으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 주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물고기를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7-11
모든 간구함에.

마태복음 21장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대하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되 속으로는 약탈하는 늑대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찬가지로 모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선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베어내어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내게 “주님! 주여!”라고 말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마태복음 7:12-21
성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약탈하는 늑대인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찬가지로 모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베어내어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내게 “주님! 주여!”라고 말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마태복음 7:15-21
2주 차 화요일.

마태복음, 23장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리라. ‘주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21-23
제2주 수요일.

마태복음, 24장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으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바위 위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으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그 기초가 돌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백성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신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그분께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그는 즉시 나병에서 깨끗해졌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7:24-8:4

제3주 토요일.

마태복음, 25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그분께 다가와 간청하였다. “주님! 제 종이 집에 누워 마비되어 심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제가 감히 주님께서 제 집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게 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저도 남의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놀라시며 뒤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동쪽과 서쪽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리를 차지할 것이요, 그러나 천국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으로 내쫓길 것이니, 거기서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라.” 그 순간 그의 종이 나왔다.

마태복음 8:5-13

제4주.

마태복음, 26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열병으로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그들에게 시종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마태복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예수께서 주위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배를 저어 가라고 명하셨다. 그때 한 서기관이 다가와 그분께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은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은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를 누일 곳이 없느니라.” 그의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내버려 두어라.” 그분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8:14-23

제4주 토요일.

마태복음, 27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그런데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서 배가 파도에 휩쓸릴 지경이 되었으나, 그분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가 깨우며 말하였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겁이 많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 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큰 고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놀라면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마태복음 8:23-27

제2주 목요일.

10월 26일, 성찬예배 중.

마태복음, 28절

그분이 게르게사 지방의 건너편에 도착하셨을 때, 관에서 나온 두 명의 귀신 들린 자가 그분을 맞이했는데, 그들은 매우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였다. 그들이 소리쳐 말하였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시려 하십니까?”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는 큰 돼지 떼가 풀을 뜯고 있었다. 귀신들이 그분께 간청했다. “우리를 쫓아내실 거라면, 그 돼지 떼 속으로 보내 주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그들이 나와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 전체가 깎아지른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목자들은 달려가서 마을에 도착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고, 그분을 보자 그분께서 그들의 경계를 벗어나시기를 청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오르셔서 다시 건너가셔서 자기 고향에 도착하셨다.

마태복음 8:28-9:1

5주.

마태복음, 29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다시 건너가시어 자기 고향에 도착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내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때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려 하심이라. 이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놀라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마태복음 9:1-8

제6주.

마태복음, 30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가에 앉아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스승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워 오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9:9-13

제5주 토요일.

11월 16일,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 마태.

마태복음, 31절

그 무렵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많이 금식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또한 아무도 낡은 옷에 씻지 않은 천으로 땀질을 하지 않으니, 새로 꿰맨 것이 낡은 것을 뜯어내어 구멍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질 것이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14-17

2주 금요일.

마태복음, 32장 시작

그 무렵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다가와 절을 하며 말하였다. “제 딸이 지금 죽어 가고 있습니다. 부디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사람을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때,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 온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그녀는 속으로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는 그 순간부터 낫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관원의 집에 들어가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소란을 피우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아가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비웃었다. 무리가 쫓겨나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역 온 땅에 퍼졌다

마태복음 9:18-26
제6주 토요일.

마태복음, 33장

그 무렵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맹인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했다. “주님,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그 지역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이 나가자, 귀신 들린 병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귀신이 쫓겨나자, 병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 백성들은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는 귀신의 왕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온갖 병과 약한 곳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9:27-35
7주.

마태복음, 34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지치고 흩어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에게 기도하여 그분의 추수를 위해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하라.”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온갖 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칠 권세를 주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몬, 곧 베드로라 불리는 자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르톨로메오, 도마와 세관원 마태, 알패

마태복음

오의 야고보와 바다이라고 불리는 레위,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께서는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9:36-10:8
제3주 월요일.

마태복음, 34B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온갖 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칠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안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1, 5-8
은전 없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35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띠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지도 말고, 여행용 주머니나 두 벌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 일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누가 합당한지 알아보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며 인사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의 평화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만일 누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그 도시에서 나올 때 너희 발에 묻은 티끌을 털어 버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낫겠느니라.

마태복음 10:9-15
3주 차 화요일.

마태복음, 36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양처럼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노니, 그러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재판소에 넘기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때리며, 나를 위하여 너희를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고 가서 이방인들과 그들 앞에서 증언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넘겨질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 이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

마태복음

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도록 넘겨줄 것이며,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항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일 것이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16-22

제3주 수요일.

순교자들을 위하여.

마태복음, 37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를 한 도시에서 쫓아내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 돌기도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나니, 제자가 스승과 같고, 종이 주인과 같으면 족하리라. 집 주인을 베엘제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의 집안 식구들은 더하겠느냐?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 중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 중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빛 가운데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더 두려워하라. 작은 새 두 마리가 아사리 한 뉘에 팔리지 않느냐? 그 중 하나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두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작은 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마태복음 10:23-31

제3주 목요일.

마태복음, 38A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합당하게 여기지 못할 것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합당하게 여기지 못할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를 합당하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는, 장차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밭을 버리는 사람은 백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 받으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첫째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첫째가 되리라.

마태복음 10:32-33, 37-38; 19:27-30

오순절 후 첫 주, 모든 성인의 주일.

마태복음, 38B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는 것이니, 이는 내가 아들을 아버지와, 딸을 어머니와, 며느리를 시어머니와 갈라놓으려 왔기 때문이다. 사람의 원수는 바로 자기 집안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그들의 마을들로 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10:32-36; 11:1
제3주 금요일.
8월 1일, 마카베오 순교자들.

마태복음 39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나보다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보존하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또 이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시원한 물 한 잔만 마시게 하는 자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가르침을 마치시고, 그곳에서 떠나 그들의 마을들로 가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

마태복음 10:37-11:1
7주째 안식일.
십자가 높이심 전 토요일.

마태복음, 40장

그 무렵,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듣고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묻게 하였다. “당신이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또 나를 보고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을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느냐? 선지자가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이다. 그는

마태복음

바로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고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으나, 하늘 나라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힘으로 빼앗아 오며, 힘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는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2-15

4주 월요일.

세레자 요한의 머리가 발견된 날, 성찬예식 중.

마태복음, 41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들은 마치 거리에 앉아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으나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슬픈 노래를 불렀으나 너희는 울지 않았다’고 하는 아이들과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 사람들은 ‘그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다. 인자가 오셨는데,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더라. 지혜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그 때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도시들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11:16-20

4주 차 화요일.

마태복음, 42장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화 있을진저, 호라진아! 화 있을진저, 벳세이다야! 티레와 시돈에서 너희에게 나타난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났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자루와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티레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낮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올라갔으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소돔에 네게 나타난 능력만큼의 능력이 나타났더라면, 소돔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낮게 될 것이다. 그 무렵, 예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일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멘! 이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20-26

제4주 수요일.

마태복음, 43장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으니,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다만 아들이 계시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아버지를 알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안식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27-30

4주 목요일.

성인들.

마태복음, 44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무엇을 했는지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나 함께 있던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고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이다.” 또 율법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기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성전보다 더 큰 것이 계시니라. 너희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마태복음 12:1-8

4주 금요일.

마태복음, 45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보라, 그곳에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이,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들어 올려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 보아라” 하셨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온전해졌다.

마태복음 12:9b-13

5주 월요일.

마태복음, 46A절

그 무렵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일 방법을 모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고, 그분은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으며,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때 귀신 들린 맹인이자 병어리를 그

마태복음

분께 데려왔는데, 그분을 고쳐 주시니 맹인이 말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백성이 놀라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아니신가?”라고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귀신의 우두머리인 베엘제불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분열된 모든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며, 스스로 분열된 모든 성읍이나 집은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는 스스로 분열된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만일 내가 베엘제불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권능으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확실히 임한 것이다. 아니면, 누가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물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그제야 비로소 그의 집을 약탈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이다.

마태복음 12:14-16, 22-30

5주 화요일.

마태복음, 46B절

그 무렵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되,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분에게 두리니, 그분이 열방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리라. 그분은 반박하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으시며, 거리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이가 없을 것이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리니, 심판을 승리로 이끄실 때까지 그러하시리라. 열방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마태복음 12:15-21

그리스도 탄생 후 첫 안식일.

마태복음 47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에 대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것이나, 성령에 대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장차 올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를 선한 것으로 여기면 그 열매도 선한 것이요, 나무를 악한 것으로 여기면 그 열매도 악한 것이니,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의 넘침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물 창고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하는 모든 헛된 말에 대하여 심판의 날에 그들이

대답할 것이니, 이는 네 말로 네가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30-37
8주째 안식일.

마태복음, 48장

그 무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의 심장부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심판대에 서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보라,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남방의 여왕도 이 세대와 함께 심판대에 서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니, 이는 그녀가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보라,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쉼을 찾아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찾지 못한다. 그러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한다. 그리하여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쓸고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거기서 살게 되니, 그 사람에게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이 악한 족속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12:38-45
제5주 수요일.

마태복음, 49장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집 밖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분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는 누구이며, 내 형제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손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이것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호숫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그분께 모여들자, 그분은 배에 올라타 앉으셨고, 모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그분은 많은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12:46-13:3A
5주 목요일.

마태복음, 50장 시작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보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덩벼들어 쪼아 먹었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

지자 곧 썩이 났으니, 흙이 얇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가 뜨자 시들었고,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라 죽었으며,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나 그것을 덮어버렸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또 어떤 것은 삼십 배를 맺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3b-9

5주 금요일.

마태복음, 51장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알 권세가 주어졌으나,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져 풍성해지겠으나,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는 듣기 힘들며, 눈은 감아 버렸으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려 해도 돌아서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뜻을 잘 들어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씨를 훔쳐 가니,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의미한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뿌리가 없어 번덕스럽습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곧바로 유혹에 빠집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부의 유혹이 말씀을 덮어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반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뜻하며, 그는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13:10-23

6주 월요일.

마태복음, 52A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는 떠났다. 썩이 나고 열매가 맺히자 가라지도 드러났다.” 그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밭에 뿌리신 씨앗은 좋은 씨앗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밭에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원수가 한 일입니다.”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원하시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드릴까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아 버릴까 두렵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리라.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우고, 밀은 내 곡창에 모아 두라.”고 말했다.

마태복음 13:24-30
6주 차 화요일.

마태복음, 52B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는 떠났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자 가라지도 드러났다.” 그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밭에 뿌리신 씨앗은 좋은 씨앗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밭에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원수가 한 일입니다.”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원하시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드릴까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아 버릴까 두렵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리라.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우고, 밀은 내 곡창에 모아 두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말하였다. “밭에 있는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선한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선한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것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은 세상의 끝이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나라에서 모든 유혹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아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니,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24-30, 36b-43
천사들에게, 아침 기도 때.

마태복음, 53장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한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면 모든 곡식보다 커져 나무가 되니, 하늘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한 여인이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 메르에 넣으니, 온 것이 다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비유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고, 창세부터 감추어 온 것을 말하리라”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때 예수께서는 백성을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3:31-36A

6주째 수요일.

그리스도 탄생 전야, 저녁 기도 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례와 별도로 거행되는 저녁 기도 때.

마태복음 54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뒤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말하였다. “밭에 있는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선한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선한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것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그러므로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그 나라에서 모든 유혹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아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니,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36-43

6주 목요일.

마태복음, 55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숨겨 두었다가, 기쁨에 차서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한 알의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는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또 천국은 바다에 던져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잡은 그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물이 가득 차자, 그것을 해안으로 끌어올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밖으로 내버렸다. 세상의 끝이 올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니, 거기서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모든 것을 이해했느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했다. “네,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를 배운 모든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 내놓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다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13:44-54A

제6주 금요일.

10월 3일,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투스.

마태오 복음서, 56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분에게서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가?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분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느냐?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의 자매들도 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며 그

분을 비방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3:54-58

7주 월요일.

10월 23일, 주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

마태복음, 57절

그 무렵, 테트라르크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했다. 헤로데는 요한을 잡아 묶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감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그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리던 중, 헤로디아의 딸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므로, 헤롯은 맹세하며 그녀가 무엇을 청하든지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녀는 어머니의 부추김을 받아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내게 주시오”라고 말했다. 왕은 슬퍼했으나, 맹세와 함께 잔치에 참석한 자들을 생각하여 그녀의 청을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했다. 사람들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었더니, 그녀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그의 제자들은 와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내고, 가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곳에서 떠나 홀로 광야로 가셨다.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각 도시에서 걸어서 그분을 따라갔다.

마태복음 14:1-13

7주 차 화요일.

8월 29일, 세례 요한의 참수 축일, 아침 기도 때.

마태복음, 58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이곳은 황량한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갈 필요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여기 우리에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명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시어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두가 먹고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조각을 모아 열두 바구니를 가득 채웠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먹은 사람은 약 오천 명이었다. 곧이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타서, 그분이 무리를 해산시키는 동안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셨다.

마태복음, 59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타서, 자신이 무리를 돌려보내는 동안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 홀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고, 저녁이 되자 그곳에 홀로 계셨다.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역풍이 불어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밤 네 시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유령이다!”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오라고 명하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다가가려 하였으나,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쳐 외쳤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들이배에 오르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가가 그분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였다.

마태복음, 60장

그 무렵, 게네사렛 땅 주민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에 소문을 퍼뜨려 모든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으며, 그분의 옷자락 끝만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만진 자마다 낫게 되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습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도 너희의 전통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네가 내게서 얻으려던 것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으니,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내게 가까이 오나 혀로는 나를 공경할 뿐,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헛되이 나를 공경하며,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들으라. 그리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마태복음, 61장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가와 그분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모든 식물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자들이 이끄는 눈먼 자들이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였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배출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나니,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나니,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티레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5:12-21
7주 목요일.

마태복음, 62장

그 무렵 예수께서는 티레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한 하나안 여인이 그곳에서 나와 예수께 소리쳐 말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심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그 여자를 보내 주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습시다.” 그 여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아이들에게서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녀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오,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순간 그녀의 딸이 나왔다.

마태복음 15:21-28
17주.

마태복음, 63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산에 오르시어 그곳에 앉으셨다. 그때 많은 무리가 절름발이, 눈먼 자, 병어리, 불구자,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와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눕혔더니,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러자 백성들은 병어리가 말하는 것과, 불구자가 온전해지는 것과, 절름발이가 걷는 것과,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마태복음 15:29-31
7주 금요일.

마태복음, 64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불쌍하다. 벌써 사흘째 내 곁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할까 두렵다.”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광야에서 이 많은 백성을 먹일 만큼의 빵을 어디서 구하리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일곱 개와 물고기 몇 마리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일곱 개의 빵과 물고기를 취하시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 보니 바구니 일곱 개가 가득 찼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먹은 사람은 사천 명이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배에 오르셔서 마르다의 고향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5:32-39
9주째 안식일.

마태복음, 65장

그 무렵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다가와 그분을 시험하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맑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짙은 붉은빛이니 오늘은 비가 오겠다’고 말하느니라.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의 색깔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으리라.” 하고 그들을 떠나 가셨다. 다른 쪽으로 건너가니,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16:1-6
8주 월요일.

마태복음, 66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였다. “이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겠구나.”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왜 속으로 생각하며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오천 명을 먹인 다섯 개의 떡과 너희가 모은 바구니가 몇 개나 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한 사천 명을 먹인 일곱 개의 떡과 너희가 모은 바구니가 몇 개나 되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떡에 관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그제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마태복음 16:6-12
8주 차 화요일.

마태복음, 67A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인자(人子)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이 네게 이를 알려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마태복음 16:13-19

6월 29일, 사도 베드로와 바울 축일, 성찬례 중.

마태복음, 67B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인자(人子)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시몬,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이 네게 이를 알려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3-18

성전 봉헌을 위하여.

마태복음, 68장

그 무렵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밝히기 시작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 말하기를 “주님,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유혹하는 자로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69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 무엇을 대가로 줄 수 있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자가 자기 나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자들이 있다.

마태복음, 70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그들만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모하셨으니,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세 개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요.” 그가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셨다.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환상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71절

그 무렵,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어 이르되,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를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이 무리를 찾아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초승달이 뜰 때마다 귀신에 들려 심하게 고통받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나, 그들은 그를 고쳐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그에게 명하시니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고, 그 소년은 그 즉시 나았다.

마태복음 17:10-18
8주 금요일.

마태복음, 72장

그 무렵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초승달이 뜰 때마다 귀신에 들려 심하게 고통받습니다. 종종 불 속으로, 또 종종 물 속으로 뛰어들곤 합니다. 제가 그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나, 그들은 그를 고쳐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그에게 명하시니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고, 그 소년은 그 즉시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다가와 물었다. “왜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고 말하면, 산이 옮겨갈 것이며,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7:14-23A
10주.

마태복음, 73장

그 무렵, 디드라크마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님께서 디드라크마를 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네”라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떻느냐? 세상의 왕들은 세금이나 공물을 누구에게서 걷는가? 자기 자녀들에게서인가, 아니면 타인에게서인가?”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했다. “타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들은 면제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유혹하지 않도록,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가장 먼저 잡히는 물고기를 가져와 그 입을 열어 보면 스타티르 한 닢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내어주어라.” 그 무렵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

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큰 자니라.”

마태복음 17:24-18:4
10주째 안식일.

마태복음, 74장

그 무렵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더 큰 자요,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맷돌을 매고 바다 깊은 곳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을지어다. 유혹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유혹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유혹한다면, 그것을 잘라 내어 네게서 멀리 던져 버리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진 채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손이나 한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네게 더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유혹한다면, 그것을 뽑아 내버려라.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네게 더 낫다. 보라, 이 작은 자들 중 누구도 멸시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마태복음 18:1-11
9주 월요일.

마태복음, 75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 작은 자들 중 누구도 멸시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누군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가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 그 양을 찾게 된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기뻐하리라. 이처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느니라. 만일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그와 단둘이서만 대면하여 책망하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모든 말이 확인되게 하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니라. 또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

마태복음

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에 대해 뜻을 합하여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니,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10-20

성령 강림 월요일.

대사순절 제1주, 기도 찬송.

마태복음, 76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질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또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에 대해 뜻을 합하여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니,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아와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 죄를 지은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겠다.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고, 그분은 그곳에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청했으나, 제자들은 그들을 막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이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신 뒤 그곳을 떠나셨다.

마태복음 18:18-22; 19:1-2, 13-15

9주 차 화요일.

마태복음, 77장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천국은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려던 한 왕과 같다. 그가 결산을 시작했을 때, 그에게 1만 탈란트를 빚진 사람이 데려왔다. 갚을 돈이 없자, 주인은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종은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인님, 조금만 참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풀어 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 동료 중 한 명을 만났는데, 그가 자신에게 백 디나리온을 빚지고 있었다. 그는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며 말하였다. “빚진 것을 갚아라.” 그때 그 동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며 말하였다. “저를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고 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의 동료들은 이 일을 보고 매우 슬퍼하며,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였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간청했기에 나는 그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용서해야 하지 않았느냐?” 그의 주인은 분노하여, 그가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자들에게 넘겨주었다. 너희 중

누구라도 마음에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8:23-35

11주.

마태복음, 78장

그 무렵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니, 이제 그들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와 이혼하라고 명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고함 때문에 너희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음한 것이 아닌데도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되, “만약 남자가 아내에게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는 그러하리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거세된 자도 있고, 사람들에게 의해 거세된 자도 있으며, 천국을 위해 스스로 거세된 자도 있느니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라.

마태복음 19:3-12

11주째 안식일.

마태복음, 79절

그 무렵 어떤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선하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입니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청년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 왔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 둘 것이니,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

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태복음 19:16-26
12주.

마태복음, 80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한 집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한 것과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에 디나리온 하나씩 받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제3시 무렵에 나가 보니,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내 포도밭으로 가라. 나중에 마땅한 대로 주겠다.” 그들이 갔다. 다시 여섯 시와 아홉 시쯤에 나가서 똑같이 했다. 마침내 열한 시쯤에 나가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하루 종일 여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내 포도밭으로 가라. 나중에 정해질 대로 너희에게 주겠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차례대로 품삯을 주게 하라.” 그리하여 열한 시쯤에 온 자들도 디나리 하나씩을 받았다.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으나, 그들도 디나리 하나씩을 받았다. 그리고 돈을 받아 집 주인을 향해 불평하며 말하였다. “이 마지막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주인님, 하루 종일 고생과 더위를 견뎌낸 우리와 동등하게 대우하시다니요.” 그러자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너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니, 네가 나와 한 계약은 디나리 하나 아니었느냐? 네 몫을 받아 가라.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고자 한다. 내 것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없느냐? 아니면 내가 선을 베풀기 때문에 네 눈이 시기하는 것이냐? 이러므로 마지막 사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 사람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니,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0:1-16
9주 수요일.
3월 9일, 세바스티아의 40위 순교자.

마태복음 81장

그 무렵,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길에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모욕과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와 절을 하며 무언가를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한 명은 주님의 오른쪽에, 다른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실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분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며,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하는 것은 내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열 제자가 그 두 형제를 향해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지배하고, 권세자들은 그들을 다스린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0:17-28
9주 목요일.

마태복음, 82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길가에 앉아 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무리는 그들을 입 다물게 하려 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다윗의 아들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그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의 눈이 뜨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20:29-34
제12주 토요일.

마태복음, 83A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감람산 근처의 벳파게에 이르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로 앞에 있는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묶여 있는 암나귀 한 마리와 그 곁에 있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다.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언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대답하라. 그러면 곧 보내어 줄 것이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그가 이르기를: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네 왕이 온유하게 네게 오시니, 나귀와 어린 나귀, 곧 멍에를 메는 짐승의 자식을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데려와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엮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길에 자기 옷을 펴 놓고, 어떤 이들은 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으며, 앞서 가며 뒤따르는 무리는 소리쳐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높은 곳에서 오산나!”라고 하였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며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물었다. 백성들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이시다”라고 대답했다.

마태복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과 성전에서 “다윗의 아들에게 오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하여 그분께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유아와 젓먹이의 입에서 찬양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을 나와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마태복음 21:1-11; 15-17
바이이 주간, 아침 예배 때.

마태복음, 83B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파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때 성전에서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예수께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을 나와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이튿날 아침, 성으로 돌아오시던 중 배가 고파지셨다.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에게 다가갔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 열매가 없으리라.” 그러자 그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 버렸다. 제자들은 이를 보고 놀라 말하였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 버렸습니까?”

마태복음 21:12-14; 17-20
9주 금요일.

마태복음, 84A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성으로 돌아오시던 중 배가 고파지셨다.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에게 다가갔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자 그 무화과나무는 즉시 말라 버렸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놀라 말하였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순식간에 말라 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향해 ‘일어나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해도 그대로 될 것이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1:18-22
10주 월요일.

마태복음, 84B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마을로 돌아오시던 중 배가 고파지셨다.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다가갔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 열매가 맺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자 그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놀라 말하였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향해 ‘일어나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해도 그대로 될 것이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다가와 말하였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답을 해 주신다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만약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백성을 두려워하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나 그는 대답하기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는 갔다. 그리고 둘째에게 다가가 같은 말을 했다. 이 아들은 대답하기를 ‘가겠습니다, 주인님.’이라고 했으나 가지 않았다. 이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사람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의의 길을 따라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를 보고도 나중에 회개하여 그를 믿지 않았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보라.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우물을 파고, 망루를 지은 뒤, 포도원지기들에게 맡기고 떠나갔다.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는 종들을 포도원지기들에게 보내어 열매를 가져오게 하였으나, 포도원지기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어떤 이는 때리고, 어떤 이는 죽이고, 또 어떤 이는 돌로 쳐 죽였다. 그는 다시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내 아들을 보면 부끄러워하리라’ 하였으나,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되, ‘그 악한 자들을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85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다가와 말하였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누가 주님께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답을 내게 하면, 내가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만약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는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왔다’고 하면, 백성을 두려워하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21:23-27
10주 차 화요일.

마태복음, 86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나 그는 대답하기를 ‘기꺼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또 다른 아들에게 다가가서 똑같이 말하였다. 이 아들은 대답하기를 ‘가겠습니다, 주인님’ 하고는 가지 않았다. 이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첫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의의 길을 따라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를 보고도 나중에 회개하여 그를 믿지 않았다.”

마태복음 21:28-32
10주 수요일.

마태복음, 87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맷돌을 파고, 망대를 지은 뒤, 포도원지기들에게 맡기고 떠나갔다.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는 종들을 포도원지기들에게 보내어 자기 열매를 가져오게 하였다. 포도원지기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어떤 이는 때리고, 어떤 이는 죽이고, 또 어떤 이는 돌로 쳐 죽였다. 그가 다시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내 아들을 보면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는,

마태복음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포도원지기들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성경에서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 아니냐?”

마태복음 21:33-42

13주.

12월 27일과 8월 2일, 첫 순교자 스테반.

마태복음, 88장

주님께서 그분께 나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돌에 부딪치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의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가 자신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그러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21:43-46

10주 목요일.

마태복음, 89장 시작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자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고 불렀으나, 그들은 오기를 원치 않았던 것과 같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청객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내 잔치, 내 송아지와 살찐 짐승들을 준비하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그러나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어떤 이는 자기 장사로 갔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여 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크게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태워 버렸다.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그 자격이 없었으니, 그러니 길모퉁이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 잔치에 초대하라.” 그 종들이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았더니, 혼인 잔치에는 잔치에 참석한 자들로 가득 찼다. 왕이 들어와 잔치에 참석한 자들을 살피다가, 거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어떻게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였다.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데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청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14

14주.

마태복음, 90A절

그 무렵 바리새인들은 가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으로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의논하였다. 그리고 제자들과 헤로디아파 사람들을 그분께 보내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하게 가르치시며, 누구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낼 때 쓰는 동전을 내게 보여라.” 그들이 예수께 디나리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가이사(가이사의) 것입니다.”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 그분을 떠나 갔습니다.

마태복음 22:15-22
13주째 안식일.

마태복음, 90B절

그 무렵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의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헤로디아파 사람들을 그분께 보내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의로우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얼굴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낼 때 쓰는 동전을 내게 보여라.” 그들이 예수께 디나리 하나를 가져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 그분을 떠나 갔습니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맞아 형제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한 후 자식이 없이 죽어 아내를 형제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일곱째까지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 후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일곱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다 그녀와 결혼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살게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

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침묵하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다. 그들 중 한 사람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으며 말하였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가장 큰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것과 같은 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달려 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밟히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한 것은 어찌 된 일인가?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분께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겁고 지기 힘든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 창고를 넓히고 옷자락을 길게 하며, 또한 잔치에서 상석과 회당에서 앞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 불리지 말라. 너희에게는 한 분 선생, 곧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너희는 모두 형제라. 또한 땅에 있는 누구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께서 계시니,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에게는 한 분 지도자, 곧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 버리니,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들어가려는 자들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위선적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때문에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는 단 한 사람이라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 그가 개종하면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상관이 없으나,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갚아야 한다’고 한다. 미친 자들아, 눈먼 자들아! 금이 더 큰가,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큰가? 또한, 누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나, 그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갚아야 한다. 미련하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큰가? 예물인가,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인가?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

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바치면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곧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소홀히 하였도다. 이것들은 행해야 할 것이요, 저것들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눈먼 지도자들아, 모기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면은 깨끗이 닦아내면서도, 그 안은 강탈과 불의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이 씻어라. 그래야 겉면도 깨끗해질 것이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칠한 무덤과 같으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의로 가득 차 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며, ‘만약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 조상들의 죄를 다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에서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는 어떤 이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너희 회당에서 때리고 도시에서 도시로 쫓아낼 것이니, 땅에서 흘린 모든 의인의 피가,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족속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네 자녀들을 몇 번이나 모으고자 하였으나, 너희는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은 황폐하게 남겨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기 전까지는 이제부터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2:15-23:39
성대한 화요일, 아침 예배 때.

마태복음, 91절

그 무렵,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녀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맞아 형제의 자손을 이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했다가 죽어서 자식이 없이 아내를 형제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일곱째까지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 후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일곱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다 그 아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시

마태복음

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살아갈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워하였다.

마태복음 22:23-33

10주 금요일.

마태복음, 92절

그 무렵,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으며 말하였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가장 큰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달려 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대답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밟을 때까지.”’라고 말하며 그분을 ‘주님’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아무도 예수님께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22:35-46

15주.

마태복음, 93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백성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 대로 따라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겁고 지기 힘든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 창고를 넓히고 옷자락을 길게 하며, 또한 잔치에서 상석과 회당에서 앞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 불리지 말라. 너희에게는 한 분 선생, 곧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너희는 모두 형제라. 또한 땅에 있는 누구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께서 계시니,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에게는 한 분 지도자, 곧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94절

주님께서 그분께 나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에게 하느나라의 문을 닫아 버리니,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위선적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때문에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단 한 사람이라도 개종시키려 하되, 그가 개종하면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상관이 없으나,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값아야 한다’고 한다. 미친 자들아, 눈먼 자들아! 금이 더 큰가,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큰가? 또한, 누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나, 그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값아야 한다. 미련하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큰가? 예물인가,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인가?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3:13-22

11주 월요일.

마태복음, 95절

주님께서 그분께 나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바치면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곧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소홀히 하였도다. 이것들은 지켜야 할 것이요, 저것들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눈먼 지도자들아, 모기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면은 깨끗이 닦아내면서도, 그 안은 강탈과 불의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이 닦아내라. 그래야 겉면도 깨끗해질 것이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칠한 무덤과 같으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의로 가득 차 있다.

마태복음 23:23-28

11주 화요일.

마태복음, 96절

주님께서 그분께 나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아름답게 꾸미면서, ‘만약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들과 함께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느니라. 이처럼 너희는 스스로를 증언하여,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의 죄를 다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는 어떤 이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너희 회당에서 때리고 도시에서 도시로 쫓아낼 것이요, 땅에서 흘린 모든 의인의 피가,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족속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네 자녀들을 몇 번이나 모으고자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은 황폐하게 남겨질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기 전까지는 이제부터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3:29-39

11주 수요일.

마태복음, 97절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성전의 건물을 보여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곳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분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을 알리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또한 전쟁과 전쟁 소문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에 너희를 고난에 넘겨주어 죽일 것이며,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아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의가 성행함에 따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4:1-13

15주째 안식일.

마태복음, 98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분께 다가와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또한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에 너희를 고난에 넘겨주어 죽일 것이며,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아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의가 성행함에 따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황폐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 날들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도피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고 말하면,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가능하다면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 두었다. 그러므로 “보라, 그분이 광야에 계신다”고 하면 나가지 말고, “보라, 그분이 은밀한 방에 계신다”고 하면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여 서쪽까지 보이는 것과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날들의 환난이 지난 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니,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하며,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볼 것이며, 그분은 우레 같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니라.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들어 보라. 그 가지가 이미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아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음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이 가까이 왔으며 문 앞에 다다랐음을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99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항폐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있는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 날들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도피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는 창세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고 말하면,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가능하다면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 두었다. 그러므로 “보라, 그분이 광야에 계신다”고 하면 나가지 말고, “보라, 그분이 은밀한 방에 계신다”고 하면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여 서쪽까지 보이는 것과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13-28
11주 목요일.

마태복음, 100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여 서쪽까지 보이는 것처럼,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날들의 환난 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니,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며,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볼 것이요, 그분은 우레 같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니라.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들어 보라. 그 가지가 이미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아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음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이 가까이 왔으며 문 앞에 다다랐음을 알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 것이다.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비 시간에 올지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되어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자기 종들을 돌보아 제때에 먹을 것을 주도록 맡긴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마태복음

돌아와서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곧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 종의 주인이 그가 예상하지 못한 날,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와서 그를 벌하고 위선자들과 같은 처지에 빠뜨릴 것이니, 거기서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27-33; 42-51
11주 금요일.

마태복음, 101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대홍수 전의 날들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다가, 대홍수가 닥쳐 모두 멸망할 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그때 밭에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며, 맷돌로 밀을 빻는 두 여자가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 것이다.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비 시간에 올지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되어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그 시간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34-44
16주 토요일.

마태복음, 102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대홍수 전의 날들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생각지 못하다가, 대홍수가 닥쳐 모두 멸망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듯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그때 밭에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며, 맷돌로 밀을 빻는 두 여자가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 것이다.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비 시간에 올지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되어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자기 종들을 돌보아 제때에 먹을 것을 주도록 맡긴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곧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 종의 주인이 그가 예상하지 못한 날,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와서 그를 벌하고 위선자들과 같은 처지에 빠뜨릴 것이니, 거기서는 울음과 이를 갈음이 있을 것이다.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중 다섯은 지혜로운 자였고, 다섯은 어리석은 자였다.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은 들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져갔다.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온다.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는 외침이 들렸다. 그러자 그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 등불을 다듬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등불이 꺼지니,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좀 주라.”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대답했다. “우리와 너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너희 것을 사오라.”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된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으며,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자 신랑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인자가 올 날과 시간을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자신의 재산을 맡긴 사람처럼 행하실 것이다. 한 사람에게에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에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에는 한 달란트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시고 곧바로 떠나셨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다른 다섯 달란트를 더 얻었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두 달란트를 더 얻었으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그것을 땅에 파 묻고 주인의 은을 숨겨 두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을 요구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 다가와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내어 놓고 말하였다. “주인님!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그것으로 다른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라.”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다가와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그 돈으로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라.”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다가와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가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분이시니, 두려워서 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 두었습니다. 여기 주인님의 것이니 받아 주십시오.” 그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어 놓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네가 내 은을 상인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겠으나,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니라. 그리

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치셨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분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모일 것이다. 그분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사람들을 서로 분리하실 것이며, 양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우실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오라.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맞아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여 드린 적이 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나그네이신 것을 보고 맞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벌거벗으신 것을 보고 입혀 드린 적이 있습니까? 병드신 것을 보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 뵈는 적이 있습니까?’ 그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내 작은 형제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서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시되, ‘저리 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며,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히지 않았고, 병들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니라. 그때 그들도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이시거나 벌거벗으시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도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들 뒤면 유월절이 되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36-26:2
성 화요일, 성찬식 중.

마태복음 103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 것이다.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비 시간에 올지 알았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너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자기 종들을 돌보아 제때에 먹을 것을 주도록 맡긴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은 누구인가? 주인이 돌아와서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발견

하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은 그를 자기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42-47

9월 30일, 아르메니아의 전도자 그레고리.

마태복음, 104장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라. 그중 다섯은 슬기로운 자들이요, 다섯은 어리석은 자들이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만 들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으나,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두었느니라.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온다.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는 외침이 들렸다. 그러자 그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 등불을 다듬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등불이 꺼지려 하니,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좀 주라.”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대답했다. “우리와 너희 모두에게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너희 것을 사오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된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으며,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인자가 올 날과 시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1-13

17주 토요일.

순교자들에게.

마태복음, 105장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려 할 때,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겼다. 한 사람에게에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에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에는 한 달란트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었다. 그리고 곧바로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다른 다섯 달란트를 더 얻었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두 달란트를 더 얻었으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그것을 땅에 파 묻고 주인의 은을 숨겨 두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을 요구하였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 다가와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내어 놓고 말하였다. “주인님!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그것으로 다른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라.”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다가와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그 돈으로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라.”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다가와 말하였다. “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가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분이시니, 두려워서 가서 주인님의 탈란트를 땅속에 숨겨 두었습니다. 여기 주인님의 것이니 받아 주십시오.” 그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어 놓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으면서도, 내 은을 상인들에게 맡겨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 그에게서 한 탈란트를 빼앗아 열 탈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겠으나,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니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다.

마태복음 25:14-30
16주.

마태복음, 106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분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모일 것이다. 그분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사람들을 서로 분리하실 것이며,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두실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오라.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맞아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여 드린 적이 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나그네이신 것을 보고 맞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벌거벗으신 것을 보고 입혀 드린 적이 있습니까? 병드신 것을 보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 뵈는 적이 있습니까?’ 그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내 작은 형제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서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시되, ‘저리 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며,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히지 않았고, 병들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니라. 그때 그들도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이시거나, 벌거벗으시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도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다.”

마태복음, 107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 뒤면 유월절이 되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카야파라는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 예수님을 껴 잡아 죽이기로 의논했으나, “백성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든 알라바스트로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누워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 이를 본 제자들은 분개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음으로써, 그녀는 나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한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마다, 그녀의 기억과 그녀가 한 일을 기념하여 전해질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는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들은 그에게 은 삼십 닢을 주겠다고 했고, 그 때부터 그는 예수를 넘길 좋은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디에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해 드릴까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웠으니, 네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겠다.’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그분은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음을, 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물 그릇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은 영원히 씻어 주시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할 몫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깨끗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배반할 자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가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옷을 입으신 후, 다시 자리에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아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이라, 주님이라 부르는데, 그 말이 옳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님이자 스승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아니하고, 사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면, 이를 행할 때 복이 있으리라.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그들은 매우 슬퍼하며 각자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그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가 배반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때 그분을 배반할 유다도 말하였다. “주님, 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에서 다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이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인해 넘어질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먼저 만나리라.”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비록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설령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하였다. 그 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겔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며,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죽을 만큼 괴롭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굳건하게 해 주었다. 그분은 고군분투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분의 땀은 마치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았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더니,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은 깨어 있으나 육신은 약하도다.” 또 한 번 물러가서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이 나를 지나가서 내가 마시지 않게 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다시 잠들어 있었는데, 그들의 눈이 무거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제자들을 떠나 다시 가서 세 번째로 기도하시며 같은 말

씀을 되풀이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보라, 때가 가까워졌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자,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할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칼과 창을 든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그분을 배반하는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가라.” 하고,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기를, “반갑습니다, 랍비!” 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가와 예수께 손을 얹고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손을 뻗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 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니라.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강도를 잡으러 칼과 창을 들고 나온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거늘. 이 모든 일은 선지자들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예수를 붙잡은 자들은 그분을 대제사장 카야파에게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리서 그분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온 공의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그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말하였다. “무슨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너에 대해 증언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침묵하셨다. 대제사장이 그분께 말하였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다. 더 나아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그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증인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보라, 이제 너희는 그의 신성모독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귀를 때렸으며, 어떤 이들은 뺨을 때리며 말하기를 “그리스도여,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말해 보아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뜰 밖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가 성문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다시 맹세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다.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

마태복음

와 말하기를, “너도 분명 그들 중 하나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고 있느니라.”라고 하였다. 그 때 베드로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하였고, 그분을 결박하여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마태복음 26:2-20; 요한복음 13:3-17; 마태복음 26:21-39; 누가복음 22:43-45; 마태복음 26:40-27:2
성목요일, 성찬식에서.

마태복음, 108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든 알라바스트로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누워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 이를 본 제자들은 분개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어, 나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한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기억과 그녀가 한 일을 기념하여 이야기될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그에게 은 삼십 닢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때부터 그는 그분을 넘겨줄 기회를 노렸다.

마태복음 26:6-16
성수요일, 전례 중에.

마태복음, 109절

그 무렵, 예수를 붙잡은 병사들은 그분을 대제사장 카야파에게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리서 그분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온 산헤드린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두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그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말하였다. “무슨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너에 대해 증언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침묵하셨다. 대제사장이 그분께 말하였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다. 더 나아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

그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증인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보라, 이제 너희는 그의 신성모독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귀를 때렸으며, 어떤 이들은 뺨을 때리며 말하기를 “그리스도여,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말해 보아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뜰 밖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가 성문 밖으로 나가자,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다시 맹세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다.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기를, “너도 분명 그들 중 하나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고 있느니라.”라고 하였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마태복음 26:57-75
성금요일, 아침 예배 제3복음서.

마태복음, 110A절

그 무렵, 아침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하였고, 그분을 결박하여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는 그가 정죄받은 것을 보고, 회개하여 서른 은전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였다.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팔아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 네가 알아서 하라.” 유다는 은전을 성전에 던져 놓고 나가서 목을 매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은전을 가져다가 말하기를, “이것은 피의 대가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다.” 하고, 상의를 한 끝에 그 돈으로 나그네들을 매장하기 위한 도공의 발을 샀으니, 그래서 그 땅은 오늘날까지 ‘피의 발’이라 불린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서른 은전,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한 값을 받은 분의 값을 받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도공의 발을 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그분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말이 맞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분을 고발할 때,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을 대적하여 증언하는 말이 이토록 많은데도 듣지 못하십니까?” 그분은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으므로, 총독은 매우 놀랐다. 유월절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냐?” 그는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 동안,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의로운 분께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밤 꿈에서 그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고, 예수는 죽이도록 했다. 그때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풀어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모두가 그에게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총독이 말하였다. “그분이 무슨 악을 저질렀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소동이 커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의인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 주고, 예수를 때린 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려가 온 부대를 모아 그분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혔으며,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 주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기뻐하라!” 하고,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집어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조롱을 다 끝내고 나자, 그분에게서 붉은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입힌 뒤, 십자가에 못 박으러 데려갔다. 나오다가 그들은 시몬이라는 키리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강제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리고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 곧 ‘이마의 곳’이라는 뜻인 곳에 이르러, 그분께 담즙을 섞은 식초를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은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었고, 앉아서 그곳에서 그분을 지키며, 그분의 머리 위에 그분의 죄목을 적은 팻말을 달았으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었다. 그때 두 강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지나가는 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으며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여! 자기를 구원하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라고 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조롱하며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지금 그를 구원하시리라.”라고 했다. 이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를 모욕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고, 제9시 무렵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파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 스펀지를 가져다가 식초를 적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고, 다른 이들은 “잠깐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할지 보자”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많은 성도들의 시신이 부활하여 그분의 부활 때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였다. 그곳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와 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마태복음 27:1-56
성금요일, 제1시.

마태복음, 110B절

그 무렵,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하여, 그분을 결박하여 총독 본 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는 그가 정죄받은 것을 보고, 회개하여 서른 은전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였다. “나는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 네가 알아서 하라.” 유다는 은전을 성전에 던져 놓고 나가서 목을 매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은전을 가져가며 말하기를, “이것은 피의 대가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다.” 하고, 상의를 한 끝에 그 돈으로 나그네들을 매장하기 위한 도공의 발을 샀으니, 그래서 그 땅은 오늘날까지 ‘피의 발’이라 불린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서른 은전,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한 값을 받은 분의 값을 받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도공의 발을 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그분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말이 맞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분을 고발할 때,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을 대적하여 증언하는 말이 이토록 많은데도 듣지 못하십니까?” 그분은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으므로, 총독은 매우 놀랐다. 유월절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냐?” 그는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 동안,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의로운 분께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밤 꿈에서 그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고, 예수는 죽이도록 했다. 그때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너희에게 풀어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바라바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모두가 그에게 말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총독이 말했다. “그분이 무슨 악을 저질렀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소동이 커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의인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 주고, 예수를 때린 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려가 온 부대를 모아 그분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혔으며, 가시관을 얹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 주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기뻐하라!” 하고,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집어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조롱을 다 끝내고 나자, 그분에게서 붉은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입힌 뒤, 십자가에 못 박으러 데려갔다. 나오다가 그들은 시몬이라는 키리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강제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리고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 곧 ‘이마의 곳’이라는 뜻인 곳에 이르러, 그분께 담즙이 섞인 식초를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은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었고, 앉아서 그곳에서 그분을 지키며, 그분의 머리 위에 그분의 죄목을 적은 팻말을 달았으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었다. 그때 두 강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지나가는 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으며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여! 자기를 구원하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라고 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조롱하며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지금 그를 구원하시리라.”라고 했다. 이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십자가에 매달린 악당 중 한 명이 그분을 모독하며 말하였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너도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도 정당한 심판을 받은 것이니, 우리는 우리 행실에 합당한 벌을 받았으나, 그분은 아무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더니, 제9시 무렵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파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셨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곧바로 달려가 스펀지를 가져다가 식초를 적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고, 다른 이들은 “잠깐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할지 보자”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많은 성도들의 시신이 부활하여 그분의 부활 때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날은 금요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

에 매달아 두지 않으려고—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빌라도에게 그들의 정강이를 찢어 시신을 내려 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군인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정강이를 찢었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의 정강이도 찢었다. 그러나 예수께 다다랐을 때,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그분의 정강이를 찢르지 않았으나, 군인 중 한 사람이 창으로 그분의 갈비뼈를 찢었더니,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이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이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다.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말하기를, ‘그들이 찢린 자를 바라보리라’고 하였다. 그곳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라와 야고보와 요세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 왔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때 빌라도가 시신을 넘겨주라고 명령하자,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수의로 감싸고, 바위 속에 파낸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막은 뒤 자리를 떠났다. 그곳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마태복음 27:1-43; 누가복음 23:39-43; 마태복음 27:45-54; 요한복음 19:31-37; 마태복음 27:55-61
성금요일, 저녁 기도 때.

마태복음, 11장 시작

그 무렵,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는 예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회개하여, 서른 은전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였다. “나는 무고한 피를 배반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그는 은화들을 성전에 던져 놓고 나가서 목을 매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화들을 주워 모으며 말하였다. “이것은 피의 대가이므로 교회 금고에 넣어 둘 수 없다.” 그래서 상의를 한 끝에, 그 돈으로 도공의 발을 사서 나그네들을 매장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그래서 그 땅은 오늘날까지 ‘피의 땅’이라 불린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한 값, 곧 평가받은 분의 값인 은 삼십 닢을 가져다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도공의 발을 사는데 썼다’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그분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말이 맞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분을 고발할 때,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을 대적하여 증언하는 말이 이토록 많은데도 듣지 못하십니까?” 그분은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으므로, 총독은 매우 놀랐다. 유월절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이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냐?” 그는 그들이 시기

마태복음

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의로운 분께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밤 꿈에서 그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하고, 예수는 죽이도록 요구했다. 그러자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풀어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바라바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모두가 그에게 말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총독이 말하였다. “그가 무슨 악을 저질렀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소동이 커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의인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 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 후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려가 온 부대를 모아 그분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혔으며;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 주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기뻐하소서!” 또 그분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들어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분을 조롱한 뒤, 그분에게서 붉은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입힌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러 데려갔다. 나가던 중, 그들은 시몬이라는 키리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강제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마태복음 27:3-32
성금요일, 아침 예배 제5복음서.

마태복음, 112절

그 무렵,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려가 온 부대를 모아 그분 앞에 세우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혔으며,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 주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기뻐하라!” 하고,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집어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조롱을 다 끝내고 나자, 그들은 그분에게서 붉은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입힌 뒤, 십자가에 못 박으러 데려갔다. 나오다가 그들은 시몬이라는 키리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강제로 불러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마태복음 27:27-32
성스러운 십자가에 대한 경배.
7월 10일, 주님의 옷, 아침 예배 때.

마태복음, 113장

그 무렵, 군인들이 골고다라는 곳, 곧 ‘이마의 곳’이라 불리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 담즙을 섞은 식초를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었고, 앉아서 그곳에서 그분을 지키며, 그분의

마태복음

머리 위에 그분의 죄목을 적은 팻말을 세웠으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었다. 그때 두 강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지나가는 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으며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여! 자기를 구원하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라고 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조롱하며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지금 그를 구원하시리라.”라고 했다. 이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를 모욕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고, 제9시 무렵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파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 스펀지를 가져다가 식초를 적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고, 다른 이들은 “잠깐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할지 보자”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많은 성도들의 시신이 부활하여 그분의 부활 때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였다.

마태복음 27:33-54
성금요일, 아침 예배 제7복음.

마태복음, 114절

금요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 말하였다. “주여!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기꾼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제3일까지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그래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 가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면 첫 번째 속임수보다 더 심한 마지막 속임수가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경비대가 있으니, 가서 너희가 아는 대로 지키라.” 그들이 가서 무덤에 경비대를 세우고, 돌에 인장을 찍었다.

마태복음 27:62-66
성금요일, 아침 예배에서 읽는 12번째 복음서.
성 토요일, 아침 예배.

마태복음, 115절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새벽에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천사가 무덤 입구의 돌을 굴러

치우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옷은 눈처럼 하얗았다. 경비병들은 그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며 죽은 사람처럼 굳어 버렸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가까이 와서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시고, 서둘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먼저 만나시겠다고 전하십시오. 거기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덤에서 서둘러 나와, 두려움과 큰 기쁨을 품고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렸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던 중,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며 말씀하셨다. “기뻐하라!” 그들은 다가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는 동안,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장로들과 모여 의논한 뒤, 병사들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말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사이에 그를 훔쳐 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소문이 총독에게 전해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곤경에서 구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 지시받은 대로 행하였으며, 이 소문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열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의 산으로 갔고, 그분을 보고 경배했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마태복음 28:1-20
성 토요일, 성찬식 중.

마태복음, 116절

그 무렵 열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경배했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16-20
부활절 첫 번째 주일 복음.
세례 성사를 집전할 때.

목차로.

마가복음

마가복음, 서두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이 나타나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요단 강에서 모두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 죄를 고백하였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그는 전파하며 말하기를 “나보다 더 강한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8

주현절 전 주간.

주현절 전야, 제3시.

마가복음, 2A장

그 무렵,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요한은 곧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직후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9-15

주현절 전야, 제6시.

12주 월요일.

마가복음, 2B장

그 무렵,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요한은 곧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9-11

주현절, 아침 예배 때.

물의 대성례.

마가복음, 3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어부였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 보니, 예수께서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 안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즉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둔 채 그분을 따랐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곧 안식일에 그분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분이 서기관들처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16-22
12주 화요일.

마가복음, 4장 시작

그 무렵, 회당에 있던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소리쳐 말하였다. “물러가라! 예수 나사렛 사람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군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심하게 떨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에게서 나왔다. 모두가 깜짝 놀라 서로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도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구나.” 그리하여 갈릴리 온 주변 지역에 그에 대한 소문이 금세 퍼져 나갔다.

마가복음 1:23-28
12주 수요일.

마가복음, 5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곧바로 그 일에 대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즉시 사라지고 그녀는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아주 일찍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29-35
12주 목요일.

마가복음, 6장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는 황량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을 찾아내자, “모두가 주님을 찾고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변 마을과 도시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니,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분은 갈릴리 전역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나병이 그에게서 즉시 사라지고 그는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엄하게 바라보시고 즉시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네 정결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마가복음 1:35-44
사순절 둘째 안식일.

마가복음, 7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그분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도 설 자리가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네 사람이 중풍환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자,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뚫어 중풍환자가 누워 있던 침상을 내려보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때 거기 앉아 있던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곧바로 자신의 영으로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무엇이 더 쉬우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려고, 마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마가복음 2:1-12
사순절 둘째 주.

마가복음, 8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 앞에 앉아 있는 레위 알패오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그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가 많았고, 예

마가복음

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게 하러 왔다.”

마가복음 2:14-17
사순절 3주 토요일.

마가복음, 9장 시작

그 무렵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으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 날들에 금식할 것이다. 아무도 낡은 옷에 표백하지 않은 천으로 땀질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꿰맨 것이 낡은 것을 뜯어내어, 구멍이 더 커질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가복음 2:18-22
12주 금요일.

마가복음, 10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길가에서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궁핍하여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가 다시 회당에 들어가니, 거기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를 고쳐 줄지 지켜보며, 그를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예수께서 마른 손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가운데로 나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하겠느냐, 악을 행해야 하겠느냐? 영혼을 구원해야 하겠느냐, 멸망시켜야 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다. 예수께서는 분노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온전해졌다.

마가복음, 11장 시작

그 무렵, 바리새인들은 헤로디아파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 쪽으로 물러가셨고,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에돔, 요단 강 건너편에서 온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 티레와 시돈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 무리를 지어 그분께로 나아왔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이 너무 많아 그분께서 쪼여지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해 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그분께 달려와 그분의 몸을 만지려고 했다.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자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엄히 금하셨다.

마가복음 3:6-12
13주 월요일.

마가복음, 12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로 왔습니다. 그분은 그들 중에서 열두 명을 택하사, 그분과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러 보내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시몬을 세워 베드로라고 이름 지으시고, 세베대의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세워 보아네르게스,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이름 지으시고, 안드레, 빌립, 바르톨로메오, 마태, 도마, 알패오의 야고보, 다대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을 세우셨다.

마가복음 3:13-19
13주 화요일.
6월 30일, 12사도.

마가복음, 13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다시 무리가 몰려들어 사람들이 빵을 먹을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나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베엘제불을 모시고 계시며,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나라가 스스로 분열되면 그 나라는 서 있을 수 없고, 한 집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 집은 서 있을 수 없다. 사탄이 스스로 반역하여 분열되었다면, 그는 서 있을 수 없고, 그의 끝이 온 것이다.” 누구든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재물을 빼앗으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하고, 그 후에야 그의 집을 약탈할 수 있다.

마가복음 3:20-27
13주 수요일.

마가복음, 14장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어떤 모독을 하더라도 모든 죄와 모독이 용서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는 더러운 영이 들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집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라고 하였다. 그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 자매들이 집 밖에 서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주위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가복음 3:28-35
13주 목요일.

마가복음, 15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바다 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많은 무리가 그분께 모여들었으므로, 그분은 배에 올라 바다 위에 앉으시고, 모든 무리는 바다 가 땅 위에 서 있었다. 그분은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시며,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더니,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날아와 그것을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아서 곧 싹이 텃으나, 해가 뜨자 시들었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나 씨를 덮어버리니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싹이 나고 자라,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1-9
13주 금요일.

마가복음, 16장 시작

그 무렵,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다가와 그 비유에 대해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바깥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진다.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나,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번덕스러운 사람들을 뜻한다. 그러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곧바로 유혹에 빠진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마가복음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부의 유혹, 그리고 다른 욕망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 말씀을 덮어 버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른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또 어떤 사람은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 그릇 아래나 침대 밑에 두려고 하는가? 등잔대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숨겨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 중에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 없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10-23

14주 월요일.

마가복음, 17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들리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어떤 척도로 재면, 그 척도로 너희에게도 재어 줄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는 더해 줄 것이다.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지겠으나,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자고, 밤낮으로 일어나듯이, 씨가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땅이 저절로 먼저 싹을 내고, 그다음 이삭을 내고, 그다음 이삭 속에 알곡을 맺기 때문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바로 낫을 대는데, 이는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혹은 어떤 비유로 나타낼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때 땅 위의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으나, 심고 나면 싹이 트고 모든 곡식 중에서 가장 커지며, 큰 가지를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많은 비유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마가복음 4:24-34

14주 화요일.

마가복음, 18장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돌려보내고, 주님께서 배에 계셨던 그대로 그분을 데리고 갔다. 그분과 함께 다른 배들도 있었다.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치니, 배가 이미 물로 차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 뒤쪽 침상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주님께서 아랑곳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다. “잠잠해라, 그쳐라.”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고 큰 고요가 찾아왔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겁이 많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4:35-41

14주 수요일.

마가복음, 19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무덤에서 나온 한 사람이 그분을 맞이했는데, 그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로서 무덤을 거처로 삼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조차 묶을 수 없었으니, 그는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으나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산속과 무덤에서 항상 소리 지르며 바위에 몸을 부딪쳤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 그분께 절을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쁜 영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이름은 레기온이니,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분께 그 나라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곳 산기슭에는 큰 돼지 떼가 풀을 뜯고 있었다. 모든 귀신들이 그분께 간청하며 말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곧바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 떼는 깎아지른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 수가 약 이천 마리였으며, 바다에서 익사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도망쳐서 마을과 시골 곳곳에 이 소식을 알렸다.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보니, ‘군단’이 들렸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목격자들은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네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전하라.” 그가 가서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다.

마가복음 5:1-20

14주 목요일.

마가복음, 20장

그 무렵,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보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며 말하였다. “제 딸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낫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며 그분을 에워쌌다. 그때 회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

마가복음

에 이르시니, 그곳은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울며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당황하며 울고 있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비웃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사람을 내보내시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 있던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탈리파 쿠미”, 이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 소녀는 곧바로 일어나 걸어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열두 살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를 본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히 명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곳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고향으로 가셨고,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마가복음 5:22-24; 35b-6:1

14주 금요일.

마가복음, 21장 시작

그 무렵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에워쌌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서 많은 고생을 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렸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었는데, -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서 뒤에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시 그녀의 출혈이 멈추고, 몸속에서 병이 나았음을 느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능력이 나갔음을 느끼시고, 군중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주님을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한 여자를 찾으시려고 주위를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다가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나으라.”

마가복음 5:24-34

15주 월요일.

순교자들에게.

마가복음, 22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안식일이 되자 그분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 말하였다. “이분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으셨을까? 그분께 어떤 지혜가 주어졌기에, 그분의 손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이요, 야고보와 요시야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그분의 자매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며 그분을 비방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분은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셨으나,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손을 얹어 그들

을 고쳐 주셨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을 놀라워하셨고, 그 후 주변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6:1-7
15주 화요일.

마가복음, 23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 보내기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행할 때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즉 자루도, 빵도, 허리띠에 동전도 지니지 말고, 단순한 신발만 신고 옷은 두 벌을 입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 들어가서 집에 머물게 되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만일 누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거기서 나올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어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성읍이 더 큰 재앙을 당하리라. 그들이 가서 회개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고쳐 주었다.

마가복음 6:7-13
15주 수요일.

마가복음, 24장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그분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니, 그래서 그분을 통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떤 이들은 “엘리아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다.” 또는 “예언자 중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헤롯은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목을 베었던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헤롯은 자기 형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요한이 헤롯에게 “네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으며,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일을 행했고, 기꺼이 그의 말을 들었다. 마침 헤롯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귀족들과 천인대장들, 갈릴리의 장로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던 날,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아 있던 자들을 기쁘게 하였더니,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주리라.” 그리고 그녀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네게 주리라.” 그녀는 나가서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의 머리다.” 그녀는 곧바로 서둘러 왕에게 가서 청하며 말하였다.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십시오.” 왕은 슬퍼했으나, 맹세와

마가복음

함께 그와 함께 연회하던 자들 때문에 그녀를 거절할 수 없었다. 왕은 즉시 근위병을 보내 그의 머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건네주었더니, 소녀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드렸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무덤에 안치하였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그 모든 일과,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내용을 모두 보고하였다.

마가복음 6:14-30

8월 29일, 세례 요한의 참수 기념일, 성찬식 중.

마가복음 25장

그 무렵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그분께 모든 일과 그들이 행한 일, 가르친 내용을 보고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자서 황량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 가라. 오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이 먹을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혼자서 황량한 곳으로 떠났다. 무리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알아보았으며, 모든 도시에서 걸어서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알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시간이 꽤 지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이곳은 황량한 곳인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그들을 보내 주셔서 주변 마을과 마을로 가서 빵을 사게 하십시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이백 디나리온이나 되는 빵을 사 와서 그들에게 먹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살펴보아라.” 제자들이 확인한 후 말하였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푸른 풀밭에 무리별로 앉히라고 명하셨다. 그들은 백 명씩, 오십 명씩 줄을 지어 앉았다. 그분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고, 물고기 두 마리는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모두가 먹고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떡 조각과 물고기 남은 것을 모아 열두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그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약 오천 명이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 타서, 자신이 무리를 해산시키는 동안 먼저 건너편 베프사이다로 가라고 명하셨다.

마가복음 6:30-45

15주 목요일.

마가복음, 26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타서, 그분이 무리를 돌려보내시는 동안 먼저 건너편 베프사이다로 가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무리를 돌려보내신 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만 육지에 계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역풍을 맞아 항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셨다. 밤 네 시 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

어 그들에게 다가가시며 그들을 지나가려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쳤다. 모두가 그분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곧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잦아들었다. 그들은 속으로 지극히 놀라고 경탄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 떡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을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여 해변에 정박하였다.

마가복음 6:45-53
15주 금요일.

마가복음, 27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주민들이 그분을 알아보고는 그 주변 일대를 샅샅이 뒤져, 소문으로 들은 그분이 계신 곳으로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사람들은 병자들을 열린 곳에 눕히고 그분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며,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그분께 모여들었는데, 그분의 제자들 중 몇 명이 부정한,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책망하였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며, 손을 꼼꼼히 씻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또한 장터에서 돌아와서는 씻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그 외에도 그들이 지키기로 받아들인 규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잔과 컵, 숟, 식탁을 씻는 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예언했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도다. 그들은 헛되이 나를 공경하며,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느니라.”

마가복음 6:54-7:8A
16주 월요일.

마가복음, 28장 시작

그 무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도다. 그들은 헛되이 나를 공경하며,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가르치고 있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 곧 잔과 그릇을 씻는 관습을 따르며, 이와 비슷한 많은 다른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옳은가?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독하는 자는

마가복음

죽임을 당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코르반”, 곧 ‘네가 내게서 누릴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말하면’이라고 말함으로써,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곁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7:5-16
16주 화요일.

마가복음, 29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을 부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곁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밖으로 배출되므로, 모든 음식은 그렇게 정결해진다.”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 곧 내면에서 악한 생각과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강탈, 악의, 간사함, 방탕함, 시기하는 눈, 신성모독, 교만, 미친 짓 등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모든 악은 내면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티레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마가복음 7:14-24A
16주 수요일.

마가복음, 30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티레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셨으나, 숨을 수 없으셨다. 딸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이방인으로서는 시로-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배불리 먹게 하라. 아이들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식탁 아래에서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때문에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이 나갔고 딸이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마가복음 7:24-30
16주 목요일.

마가복음 31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티레와 시돈 지역을 떠나 다시 열 도시 지역을 지나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귀가 먹었고 혀가 묶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군중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바르시더니,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한숨을 쉬시며 그에게 “에파파”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열려라’는 뜻이다. 그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매듭이 풀려, 그는 분명히 말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금하셔도, 그들은 오히려 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 말하기를, “그분은 모든 일을 잘하시니,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신다.”

마가복음 7:31-37
사순절 넷째 안식일.

마가복음 32장

그 무렵, 무리가 아주 많이 모여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벌써 사흘째 내 곁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먹지 못한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일곱 개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백성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시고, 일곱 개의 떡을 가져다가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나누어 주게 하셨더니,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도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다.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조각을 일곱 바구니에 담았다. 먹은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후,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프 지방으로 가셨다.

마가복음 8:1-10
16주 금요일.

마가복음, 33장

그 무렵,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며,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요구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게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때 제자들은 떡을 챙기는 것을 깜빡하여, 떡 한 개 외에는 배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 말은 우리에게 떡이 없다는 뜻이겠구나.”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떡이 없다는 것을 두고 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

마가복음

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은 아직도 돌처럼 굳어 있느냐?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느냐?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오천 명을 위해 빵 다섯 개를 떼어 주었을 때, 너희가 조각들을 모아 가득 찬 바구니를 몇 개나 채웠느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열두 개입니다.” “그리고 사천 명을 위해 일곱 개를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모아 바구니를 몇 개나 채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일곱 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11-21
30주 월요일.

마가복음, 34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그분께 만져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다. 그가 눈을 떠 보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 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치유되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마을에 있는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22-26
30주 화요일.

마가복음, 35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의 마을들로 가셨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마가복음 8:27-31
사순절 5주 토요일.

마가복음, 36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히 명하여, 그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어 그분을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

마가복음

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8:30-34
30주 수요일.

마가복음, 37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자들이 있다.”

마가복음 8:34-9:1
대사순절 제3주.
주님의 십자가 높이심 후 주간.

마가복음, 38절

그 무렵,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만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모하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매우 희고 빛나서, 세탁업자가 땅에서 아무리 표백해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였다.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장막 세 개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요.”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와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를 들으라.”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 외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서는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마가복음 9:2-9
주님의 변모, 아침 예배 때.

마가복음, 39장

그 무렵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쭙기를 “그러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

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인자는 그에 대해 기록된 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도 이미 왔으나, 그에 대해 기록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를 대했다. 제자들에게 다가가 보니, 그들 주위에 많은 무리와 그들과 논쟁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다. 무리는 그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달려와 그분을 환영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셨다. “무엇 때문에 그들과 논쟁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9:10-16
30주 목요일.

마가복음, 40장 시작

그 무렵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절하며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그를 붙잡을 때마다 땅에 내동댕이치고, 그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경직됩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더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그를 심하게 흔들어댔고, 그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몸부림쳤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 일이 그에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영이 그를 불 속이나 물 속으로 여러 번 내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즉시 소년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주님,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셨다. “병어리요,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 악령이 비명을 지르며 소년을 심하게 뒤흔든 뒤 나갔고, 소년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 많은 이들이 그가 죽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섰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따로 그분께 물었다. “우리는 왜 그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 거기서 나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예수께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겠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9:17-31
사순절 넷째 주.

마가복음 41장

그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길에서 너희는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제자들은 침묵했다. 길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논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 중에서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때 요한이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곧 나를 비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대적하지 않는 자는 곧 너희 편인 것이다.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너희에게 마시게 하는 사람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9:33-41

30주 금요일.

12월 20일과 1월 29일, 신을 모신 이그나티우스 성인.

마가복음, 42장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 목에 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져 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만일 네 손이 너를 유혹한다면,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진 채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 구자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네게 더 낫다. 그곳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만약 네 발이 너를 유혹한다면,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진 채로 지옥, 곧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만일 네 눈이 너를 유혹한다면, 그것을 뽑아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그곳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음식은 소금으로 간을 하고, 모든 제물도 소금으로 간을 한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짜게 하겠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라. 거기서 떠나 요단 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다시 우리가 그분께 모여들자, 그분은 평소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9:42-10:1

31주 월요일.

마가복음, 43장 시작

그 무렵,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그가 너희의 완고한 마음을 보고 이 계명을 써 준 것이다. 그러나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니,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그 일에 대해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아내는 간음하는 것이요,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편은 간음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2-12

31주 화요일.

마가복음, 44장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요, 아내도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그분께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청했으나, 제자들은 데려오는 사람들을 막았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분개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축복하셨다.

마가복음 10:11-16

31주 수요일.

마가복음, 45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 할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계명을 네가 알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해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 둘 것이니,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여 슬픔에 잠겨 떠나갔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은 그 말씀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제자들은 몹시 놀라 서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17-27
31주 목요일.

마가복음, 46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은 그 말씀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자녀들아! 재물에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제자들은 몹시 놀라 서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박해의 시기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 밭을 백 배나 더 받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첫째가 마지막으로 되고, 마지막으로 첫째가 될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 가셨고, 그들은 몹시 놀라 그분을 따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가복음 10:23B-32A
31주 금요일.

마가복음, 47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들은 그분을 모욕하고 때리며 침을 뱉고 죽일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의 영광 속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요, 내가 받는 세례는 너희도 받게 될 것이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비된 것이냐.” 이를 듣고 열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권력자들은 그들을 다스린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32b-45

사순절 5주.

마가복음 48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데리고 여리고를 떠나시던 중,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그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그를 입 다물게 하려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아들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그를 불러오라고 명하셨다. 사람들이 맹인을 불러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며 물으셨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이 그분께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즉시 눈을 뜨고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다.

마가복음 10:46-52

17주와 32주 월요일.

마가복음, 49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벧파게와 벧아니, 감람산 근처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로 앞에 있는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곧바로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데려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주님께 필요하십니다’라고 대답하라. 그러면 곧바로 여기로 보내 줄 것이다.” 그들이 가서 거리 문가에 묶여 있는 어린 나귀를 찾아 풀어 데려왔다.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왜 새끼 나귀를 풀어 놓느냐?”라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대답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내 주었다. 그들은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데려와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깔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 옷을 길에 퍼 놓고, 어떤 이들은 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폈다. 앞서 가던 자들과 뒤따르던 자들이 소리쳐 말하였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다윗의 왕국,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

는 분은 복이 있나이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시간이 이미 늦은 것을 보시고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마가복음 11:1-11
사순절 전 주간의 월요일.

마가복음 50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시간이 이미 늦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다음 날, 그들이 벳파니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가셨으나, 가까이 가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셨으니, 무화과를 따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네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기 시작하셨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으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어떤 물건이라도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는 그분을 어떻게 죽일지 꾀하였으니, 온 백성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워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자 그분은 성 밖으로 나가셨다. 이튿날 아침,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보셨다. 베드로가 이를 떠올리며 그분께 말하였다. “랍비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일어나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마가복음 11:11-23
17주 및 32주 화요일.

마가복음, 51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일어나 바다로 뛰어들어라’라고 말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것이라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또 기도할 때, 누구에게 원한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가복음, 52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시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분께 다가와 말하였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만약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그분은 ‘그러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백성을 두려워했으니, 모든 사람이 요한이 분명히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내가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마가복음, 53장 시작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곳을 파고, 망대를 지은 뒤, 그것을 포도원지기들에게 맡기고 떠나갔다. 때가 되어 포도원지기들에게 종을 보내어 포도원지기들에게서 포도원의 열매를 받아 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붙잡아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돌로 쳐서 부수고 모욕을 주며 돌려보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도 죽었고, 그 밖에도 많은 종들을 때리거나 죽였다. 주인은 아직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더 남아 있었으므로, 마지막으로 그 아들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내 아들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 아이는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붙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팽개쳤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 와서 그 포도원 주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 했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다. 예수가 그들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내버려 두고 물러갔다.”

마가복음, 54장 시작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헤로디안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분의 말씀에 흠을 잡으려 하였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의로우시고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으시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 디나리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 달라.” 그들이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형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다. “가이사(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자 사람들은 그분을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마가복음 12:13-17

33주 월요일.

마가복음, 55장

그 무렵,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죽어 아내를 남기고 자녀를 남기지 않으면, 그의 형제가 그 아내를 데려와 형제의 자손을 이어야 한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맞이했으나 죽을 때 자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그녀를 맞이했으나 죽고, 그 역시 자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차례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으나 아무도 자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 그 일곱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일곱 사람이 모두 그녀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이런 일로 인해 미혹되고 있느냐?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이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곁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잘못 알고 있다.

마가복음 12:18-27

33주 화요일.

마가복음, 56장 시작

그 무렵,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물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는 이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한 분이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한 율법사가 그분께 말하였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말씀은 참되십니다.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더 큼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분별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 후로는 아무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밟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 다윗 자신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많은 백성이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가복음 12:28-37

33주 수요일.

마가복음 57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회중 앞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는 앞자리에 앉고 잔치에서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겉으로만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니, 가장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셨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레프타 두 개, 곧 코드란트 하나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다른 누구보다 더 많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남는 것을 넣었으나, 그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 곧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2:38-44

33주 목요일.

마가복음, 58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자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그분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이다’라고 말할 것

마가복음

이니,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다.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이 나며 기근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3:1-8
33주 금요일.

마가복음, 59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재판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며,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나를 위해 서게 될 것이니, 그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지 미리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그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대로 말하라. 이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길 것이며,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13:9-13
34주 월요일.

마가복음, 60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황폐의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읽는 사람은 깨달을지어다—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집에서 무엇을 가져오려고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 날들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날들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주님께서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보라, 저기에 있다’고 말하면,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적을 보여, 가능하다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조심하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해 두었다.

마가복음 13:14-23
34주 화요일.

마가복음, 61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날들, 곧 그 환난이 지난 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도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지니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아들이실 것이다. 무화와

마가복음

나무에서 비유를 들어 보라.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아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가까이 왔으며 문 앞에 다다랐음을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3:24-31

34주 수요일.

마가복음, 62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경계하고, 깨어 있으며, 기도하라. 그 때가 언제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 자기 집을 비울 때, 종들에게 권세를 주고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아침에 올지 모르니,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이틀 뒤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올 참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교묘한 꾀로 그분을 붙잡아 죽일 수 있을지 꾀하고 있었으나, “백성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고 말하였다.

마가복음 13:31-14:2

34주 목요일.

마가복음 63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셔서 쉬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순수하고 귀한 나르드 향유가 든 알라바스트로 향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 향아리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분개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 향유를 팔면 삼백 데나리온 이상은 될 터인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며 그녀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원할 때면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겠지만, 나를 항상 곁에 두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 장사를 위해 내 몸을 미리 기름으로 닦아 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마다, 그녀의 기억과 그녀가 한 일을 기념하여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마가복음 14:3-9

34주 금요일.

마가복음, 64장 시작

그 무렵,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분을 그들에게 넘기려 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이를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그분을 넘길 적당한 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을로 가라. 거기서 물 항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깔아 놓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 줄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차려 놓으라.’ 제자들이 가서 성에 이르러,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내고 유월절 잔치를 차렸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오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와 함께 먹고 있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슬퍼하며 차례로 그분께 물었다. “저입니까?” 또 다른 제자가 “저입니까?”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빵을 찢어 먹는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인자는 그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나니, 인자가 넘겨지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차라리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모두가 그 잔에서 마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다시는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는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인해 넘어질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더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말하였다. “설령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겔세마네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심히 괴로워하시며 근심하기 시작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죽을 만큼 괴롭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 가 능하다면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

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영은 깨어 있으나 육신은 약하니라. 다시 물러가서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며 기도하셨다. 돌아오시니 그들이 또 자고 있는 것을 보셨으니, 그들의 눈이 무거워져서 그분께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세 번째로 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때가 이르렀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자,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마가복음 14:10-42
사순절 전 주간의 화요일.

마가복음 65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온 칼과 창을 든 많은 무리와 함께 다가왔다.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니, 그를 붙잡아 조심스럽게 데려가라.” 하고, 다가와서 곧바로 그분께 다가가 말하기를, “라비! 라비!” 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손을 얹고 그분을 붙잡았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강도를 잡으려 칼과 창을 들고 나온 것처럼 나를 잡으려 하느냐? 나는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어 가르쳤으나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병사들이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그는 수건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그들로부터 도망쳤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데려갔고,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리서 그분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갔고,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많은 사람이 그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으나, 그 증언들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일어나 그분을 거슬러 거짓 증언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이 ‘내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른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증언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때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당신에 대해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침묵하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말하였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복되신 분의 아들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이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이제 더 이상 증인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신성모독을 들었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모두 그분을 사형에 처해야 할 자로 인정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기 시작하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채 때리며 말하기를 “예언해 보라”고 했

다. 하인들도 그분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아래 뜰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중 한 명이 와서, 불에 몸을 녹이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하였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나 베드로는 “모르겠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부인했다. 그리고 앞마당으로 나갔더니, 닭이 울었다. 그 여종이 그를 다시 보고는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들 중 하나다”라고 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다. 잠시 후,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너는 분명 그들 중 하나다. 네가 갈릴리 사람이고, 말투도 비슷하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맹세하며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고 울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의회가 회의를 소집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데려가 빌라도에게 넘겼다.

마가복음 14:43-15:1

사순절 수요일.

마가복음, 66장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의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예수를 결박하고 데려가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그분께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분은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 말이 맞다.” 대제사장들은 그분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당신을 고발하는 혐의가 이토록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으므로, 빌라도는 놀라워했다. 매 명절마다 그는 그들이 청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 주곤 했다. 그때 바라바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지른 공범자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 백성들은 소리치며 빌라도에게 그가 늘 해오던 대로 해 달라고 청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분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게 했다.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분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이 무슨 악을 저질렀단 말ियो?”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쳐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자 빌라도는 백성들의 뜻을 따르려고 바라바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매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마가복음 15:1-15

사순절 전 주간의 목요일.

마가복음, 67A절

그 무렵 군인들은 예수를 뜰 안, 즉 총독 관저로 데려가서 온 부대를 소집하고, 그분께 붉은 옷을 입혔으며,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는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세!”라고 외

마가복음

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그분께 절을 했다. 그분을 조롱한 뒤, 그분에게서 붉은 옷을 벗기고, 그분의 원래 옷을 입힌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갔다. 그때 발에서 돌아오던 키리네 사람 시몬, 곧 알렉산드로와 루포의 아버지를 강제로 불러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을 끌고다, 곧 ‘이마의 곳’이라 불리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그분께 몰약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은 받지 않으셨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제3시가 되었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의 죄목이 적힌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분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명은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한 명은 왼쪽에 있었다. 그리하여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가 악한 자들과 함께 여겨졌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으며 말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던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보고 믿겠나이다.

마가복음 15:16-32A

성금요일, 아침 예배 제6복음.

7월 10일, 주님의 옷, 성찬식에서.

마가복음, 67B절

그 무렵,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 곧 총독 관저로 데려가서 온 부대를 소집하고, 그에게 붉은 옷을 입혔으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며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그분께 절을 했다. 그분을 조롱한 뒤, 그분에게서 붉은 옷을 벗기고, 그분의 원래 옷을 입힌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갔다. 그때 발에서 돌아오던 키리네 사람 시몬, 곧 알렉산드로와 루포의 아버지를 강제로 불러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을 끌고다, 곧 ‘이마의 곳’이라 불리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그분께 몰약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은 받지 않으셨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제3시가 되었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의 죄목이 적힌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분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명은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한 명은 왼쪽에 있었다. 그리하여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가 악한 자들과 함께 여겨졌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으며 말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소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소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를 모욕하였다.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엘로이! 엘

마가복음

로이! 람마 사바흐파니? –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이를 듣고 말하기를, “보라,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가서 스펀지에 식초를 적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며, “잠시만 기다려 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줄지 보자”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그분 맞은편에 서 있던 백부장은 그분이 그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말하였다. “진실로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곳에는 멀리서 지켜보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작은 야고보와 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그분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다른 많은 여자들도 있었다.

마가복음 15:16-41
성금요일, 제3시.

마가복음, 68절

그 무렵, 군인들이 예수를 골고다, 곧 ‘이마의 곳’이라 불리는 곳으로 데려갔다. 제3시였으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6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람마 사바크타니?” –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이를 듣고 말하기를, “보라,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사람은 달려가서 스펀지에 식초를 적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며, “잠시 기다려 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분을 내려줄지 보자”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그분 맞은편에 서 있던 백부장은 그분이 그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말하였다. “진실로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곳에는 멀리서 지켜보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작은 야고보와 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그분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다른 많은 여자들도 있었다.

막 15:22, 25, 33-41
사순절 전 주 금요일.

마가복음, 69A절

그 무렵,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왔는데, 그는 공의회의 저명한 일원이자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는 감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했다. 빌라도는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놀라 백부장을 불러, “얼마 전에 돌아가셨느냐?”고 물었다. 백부장에게서 듣고 나서, 그는 시신을 요셉에게 넘겨주었다. 요셉은 수의 한 장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벗기고 그 수의로 감싼 뒤, 바위 속에 파낸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 안치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가복음 15:43-47
성금요일, 아침 예배 제10복음.

마가복음, 69B절

그 무렵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왔는데, 그는 공의회의 저명한 일원이자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는 감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했다. 빌라도는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놀라 백부장을 불러, “얼마 전에 돌아가셨느냐?”고 물었다. 백부장에게서 듣고 나서, 그는 시신을 요셉에게 넘겨주었다. 요셉은 수의 한 장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벗겨내고 그 수의로 감싼 뒤, 바위 속에 파낸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 안치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라와 야고보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그분을 향유로 닦아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의 첫날, 해가 뜰 무렵 아주 일찍 무덤에 이르러 서로 말하였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의 돌을 굴려 줄까?” 그들이 바라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는데, 그 돌은 매우 컸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른쪽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청년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으니,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안치되셨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이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앞서 가실 것이라고 전하십시오. 거기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15:43-16:8
부활 후 3주, 성녀 향유 여인들, 성찬식에서.

마가복음, 70절

그 무렵, 안식일이 지난 후 마리아 막달레나와 마리아 야코블레바, 그리고 살로메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러 가기 위해 향료를 샀다.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 해가 뜰 무렵 아주 일찍 무덤에 이르러 서로 말하였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의 돌을 굴려 줄까?” 그들이 바라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는데, 그 돌은 매우 컸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른쪽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청년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으니,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안치되셨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이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먼저 만나시겠다고 전하십시오. 거기서 그

마가복음

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달아났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1-8

부활절 복음 2.

마가복음, 71절

그 무렵,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녀는 가서 그분과 함께 있던, 울고 통곡하던 사람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그분이 살아 계시고 그녀가 그분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후, 두 사람이 마을로 가던 길에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돌아와 다른 이들에게 알렸으나, 그들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열한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은 그들의 불신과 완고함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 들고, 독이 있는 것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리라.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후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도우심과 말씀에 뒤따르는 표적들로 힘을 얻어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아멘.

마가복음 16:9-20

주일 복음 3.

주님의 승천, 아침 예배.

목차로.

누가복음

누가복음, 서문 1

이미 많은 이들이 우리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 기록들은 처음부터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전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바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꼼꼼히 조사한 뒤, 존경받는 테오�필로여, 당신이 받은 가르침의 확고한 기초를 알 수 있도록 순서대로 기록해 드리고자 마음먹었다. 유대 왕 헤롯의 시대에 아비아 반열에 속한 사제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족보에 속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며,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 없이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했고, 두 사람 모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순번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제사장들의 관례대로 제비뽑기를 하여 그에게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임무가 돌아갔고, 향을 피우는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향로 제단 오른쪽에 서서 그에게 나타났다. 자카리아는 그를 보고 당황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자카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기도가 들렸으니,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너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니, 그는 주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많은 이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의인들의 생각으로 돌이켜, 여호와께 준비된 백성을 드리게 할 것이다. 자카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니, 너와 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라. 보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그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내 말은 제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백성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자,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뜻을 전했으나,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봉사가 끝날 무렵,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며칠이 지나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다섯 달 동안 몸을 숨기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날에 나를 돌보사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수치를 없애 주셨다”고 하였다. 엘리사벳에게 해산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이 주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했다. 8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아기의 할례를 행하러 와서 아버지의 이름인 사가랴라고 부르려고 했다. 이에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니요, 요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손짓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는 나무 판자를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썼다. 모두가 놀라워하였다. 그 즉시 그의 입과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 모든 일이 유대 산간 지방 전역에 퍼져 나갔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이를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였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노니, 그분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너도, 어린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 불릴 것이니, 이는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길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린아이는 자라나며 영이 강해졌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광야에 머물렀다.

누가복음 1:1-25, 57-68, 76, 80

세례 요한의 탄생, 성찬례 중.

누가복음, 2장 시작

유대 왕 헤롯의 시대에 아비아 반열에 속한 사제 자카리아와, 아론의 족보에 속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며,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 없이 지키며 살았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했고, 두 사람 모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순번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제사장들의 관례대로 제비뽑기를 하여 그에게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임무가 돌아갔고, 향을 피우는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향로 제단 오른쪽에 서서 그에게 나타났다. 자카리아는 그를 보고 당황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자카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기도가 들렸으니,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너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니, 그는 주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많은 이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의인들의 생각으로 돌이켜, 여호와께 준비된 백성을 드리게 할 것이다. 자카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니, 너와 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라. 보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그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내 말은 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백성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자,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뜻을 전했으나,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봉사가 끝날 무렵,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며칠이 지나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다섯 달 동안 몸을 감추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날에 나를 돌보사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수치를 없애 주셨다”고 하였다.

누가복음 1:5-25

9월 23일, 세례 요한의 잉태 기념일, 성찬식 중.

누가복음, 3A장

그 무렵,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다섯 달 동안 몸을 숨기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날에 나를 돌보사,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받는 수치를 없애 주셨다”고 하였다. 여섯 번째 달에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보내졌는데, 그곳에는 다윗의 집안 출신으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가 말하였다.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여인들 중에서 복이 있도다.” 그녀는 천사를 보고 그 말에 당황하여, 이것이 무슨 인사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그분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니, 그분은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불임이라고 불리던 자인데, 늙은 나이에 아들을 잉태하여 벌써 여섯 달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녀 곁을 떠나갔다.

누가복음 1:24-38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 전례 중.

누가복음, 3B절

그 무렵,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다섯 달 동안 몸을 숨기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날들에 나를 돌보사,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받는 수치를 없애 주셨다”고 하였다. 엘리사벳에게 해산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이웃들과 친척들이 주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자비를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했다. 8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아기의 할례를 행하러 와서 아버지의 이름인 사가랴라고 부르려 했다. 이에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니요, 요한이라고 부르

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손짓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을지 물었다. 그는 나무 판자를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썼다. 모두가 놀랐다. 그 즉시 그의 입과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 모든 일이 유대 산간 지방 전역에 퍼져 나갔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이를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였다. 그의 아버지 사가라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노니, 그분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너도, 어린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 불릴 것이니, 이는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길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린아이는 자라나며 영이 강해졌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광야에 머물렀다.

누가복음 1:24-25, 57-68, 76, 80
세례 요한의 탄생, 아침 예배.

누가복음, 4장 시작

그 무렵,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인 유다의 한 마을로 가서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자,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여인들 중에서 복이 있도다. 네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내게 어떻게 주어진 영광이겠는가? 네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마자, 내 태중의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 믿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나니,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이 내게 위대함을 베푸셨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니라.” 마리아는 그녀와 약 세 달 동안 함께 지낸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복음 1:39-49, 56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 아침 기도 때.

누가복음, 5장

그 무렵,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온 땅에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 인구 조사는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재임할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였다.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요셉도 유다로,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으로 갔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안과 족보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다. 그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어 첫째 아들을 낳고,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지방 들판에는 목자들이 있어 밤새 양 떼를 지키고 있었

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서 여러분을 위한 구세주, 곧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표징입니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찾으리라.” 그러자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땅에는 평화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다!” 천사들이 그들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일이 무엇인지 보자.” 그리하여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찾았다. 그것을 보고는 그 아기 예수에 대해 자신들에게 전해진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였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전하는 말에 놀라워하였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간직하였다. 목자들은 들은 것과 본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해진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누가복음 2:1-20

그리스도 탄생 전야, 제3시 및 성찬예식 때.

누가복음, 6장

그 무렵 목자들이 돌아와, 들은 것과 본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해진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였다. 8일이 지나,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가 되자, 그들은 그분께 천사가 그분이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지어 준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기는 자라나며 영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다. 매년 그분의 부모는 유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분이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관례대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갔다. 절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어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으셨으나,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시는 줄로만 생각했다. 하루 길을 다 걸은 뒤, 그들은 친척과 지인들 사이에서 그분을 찾기 시작했으나, 찾지 못하자 그분을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분을 발견했는데, 그분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고 질문하고 계셨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분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했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분의 어머니께서 그분께 말씀하셨다. “아들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큰 근심 속에 너를 찾고 있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가셔서 나사렛에 이르셨고, 그들에게 순종하셨다.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셨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나이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이 더해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0-21, 40-52

주님의 할례, 전례 중.

누가복음, 7장

그 무렵, 아기 예수의 부모가 주님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 두 마리의 비둘기나 두 마리의 어린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이 그에게 임해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예언하시기를,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와서 율법에 따른 예식을 행하려 할 때,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보내시나이다. 내 눈이 주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구원은 이방인을 깨우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에 대해 들은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유가 되며,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니, 또한 네 영혼에도 칼이 꿰뚫을 것이니,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곳에는 또한 아시라지파 출신인 파누엘의 딸, 예언자 안나도 있었는데, 그녀는 청춘 시절 남편과 7년을 함께 살았으나 그 후 84세 된 과부가 되어 깊은 노년에 이르렀으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다가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친 후, 갈릴리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아기는 자라나며 영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누가복음 2:22-40

주님의 성전 입성 축일, 전례 중.

누가복음, 8A절

그 무렵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이 그에게 임해 있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예언하여,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 그때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와서 율법에 따른 예식을 치르려 하자,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보내시나이다. 내 눈이 주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구원은 이방인을 깨우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25-32

주님의 성전 입성 축일, 아침 기도.

누가복음, 8B절

그 무렵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이 그에게 임해 있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예언하시기를,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 그때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와서 율법에 따른 예식을 치르려 하자,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보내소서. 내 눈이 주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구원은 이방인을 깨우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에 대해 들은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유가 되며,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니, 또한 당신 자신의 영혼에도 칼이 꿰뚫을 것이니,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곳에는 또한 아시라 지파 출신인 파누엘의 딸, 예언자 안나도 있었는데, 그녀는 청춘 시절부터 남편과 일곱 해를 함께 살았으나, 그 후 84세 된 과부가 되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녀도 그 무렵에 다가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누가복음 2:25-38
2월 3일, 시메온 성자.

누가복음, 9장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15년째, 본티우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은 갈릴리의 테트라르크였고, 그의 형제 빌립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테트라르크였고, 리사니오는 아빌린의 테트라르크였으며, 대제사장 안나와 카야파가 재임하던 때에, 사막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는 요단 강 주변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며,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님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굽은 곳은 곧아지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쳤느냐?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으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베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백성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누가복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 이상으로 요구하지 말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해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라.”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모두가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혹시 그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모두에게 대답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더 강한 분이 오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의 손에는 삽이 들려 있으니, 그분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밀은 자신의 곡창에 모아 두시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그는 백성에게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다.

누가복음 3:1-18
주현절 전야, 성찬식에서.

누가복음, 10장 시작

그 무렵, 헤롯 테트라르크는 요한에게서 자신의 형의 아내 헤로디아와 헤롯이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 책망을 받자, 그 밖의 모든 일에 더해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육신의 형상을 취하여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

누가복음 3:19-22
18주 월요일.

누가복음, 11장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나이는 서른 살이셨으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이요, 일리의 아들이요, 마타의 아들이요, 레위의 아들이요, 멜키엘, 야나, 요셉, 맏타피, 아모스, 나움, 예슬리, 나게, 마아포, 맏타피, 세메이, 요셉, 유다, 요한, 리사, 소로바벨, 살라피엘, 니리, 멜키엘, 아디예프, 코사모프, 엘모다모프, 이로프, 요시예프, 엘리예제로프, 이오리모프, 마트파토프, 레비인, 시메오노프, 유딘, 요시포프, 이오나노프, 엘리야키모프, 멜레아예프, 마이나노프, 마타파예프, 나파노프, 다비도프, 예세예프, 오비도프, 보오조프, 살모노프, 나아손노프, 아미나다보프, 아라모프, 에스로모프, 파레소프, 유딘, 야코블레프, 이사아코프, 아브라모프, 파린, 나호로프, 세루호프, 라가보프, 팔레코프, 예베로프, 살린, 카이나노프, 아르팍사도프, 시모프, 노예프, 라메호프, 마푸살로프, 예노호프, 야레도프, 말레레이로프, 카이나노프, 예노소프, 시포프, 아다모프, 보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3:23-4:1
18주 화요일.

누가복음 12장

그 무렵,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십 일 동안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순식간에 온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 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이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네게 주겠노라. 이는 내게 맡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지붕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된 바 ‘그가 자기 천사들에게 네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마귀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당분간 그분에게서 물러났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퍼졌다. 그분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셨다.

누가복음 4:1-15

18주 수요일.

누가복음, 13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평소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일어나 말씀을 읽으셨다.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그분께 건네주니, 그분은 두루마리를 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구절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게 하시며, 포로 된 자들에게 해방을,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주며,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분은 두루마리를 닫아 시종에게 돌려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께 쏠려 있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이 이를 그분께 증언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했다.

누가복음 4:16-22A

18주 목요일.

9월 1일, 새 여름.

누가복음, 14장 시작

그 무렵,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물론 너희는 나에게 ‘의사여, 너 자신을 고쳐라.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는 속담을 인용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으나, 하늘이 삼 년 육 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그들 중 누구에게도 엘리야가 보내지지 않았고, 오직 시돈의 사렙타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졌으며;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들 중 누구도 깨끗해지지 못하였다. 이 말을 듣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분노에 차서 일어나 그분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마을이 세워진 산 꼭대기로 데려가 그분을 버락치려 하였으나, 그분은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시며 떠나가셨다.

누가복음 4:22-30

18주 금요일.

7월 20일, 선지자 엘리야.

누가복음, 15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오셔서 안식일마다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분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물러가라! 예수 나사렛 사람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느냐?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여.” 예수님께서 그에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서 쓰러뜨리고는, 그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은 채 그에게서 나왔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가 권능과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오는구나”라고 하였다.

누가복음 4:31-36

18주째 안식일.

누가복음, 16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퍼졌다. 시몬의 장모는 심한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위해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그쳤다.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서 그들을 섬겼다. 해가 지자, 온갖 병을 앓는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각자에게 손을 얹으시어 고쳐 주셨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서는 집을

나서서 황량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이 그들 곁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다른 도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설교하셨다.

누가복음 4:37-44

19주 월요일.

누가복음, 17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호수 위에 정박해 있는 두 척의 배를 보셨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에게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배를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배 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 가르치심을 마치시고는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 나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스승님,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타고 있던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 도움을 청했고, 동료들이 와서 두 배를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 곧 시몬의 동료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그들이 잡은 물고기 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들은 두 배를 육지로 끌어올린 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누가복음 5:1-11

18주.

4월 30일, 사도 야고보(제베데오의 아들).

누가복음, 18장 시작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있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자 엎드려 간청하며 말하였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사라졌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정결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 나갔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어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황량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5:12-16

19주 화요일.

누가복음, 19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리와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고, 주님의 능력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데 나타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 그분 앞에 눕히려 했으나,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자, 집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침상째로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놓았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려 함이라 하고, 그 마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누워 있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갔다. 모두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심으로 가득 차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5:17-26

19주째 안식일.

누가복음, 20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 앞에 앉아 있는 레위라는 세리 한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불평하며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게 하러 왔다.”

누가복음 5:27-32

20주째 안식일.

누가복음, 21장 시작

그 무렵,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들도 그러하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의 친구들에게 금식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야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구도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으로 낡은 옷에 꿰매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새 옷도 찢어지고, 새 옷에서 뜯어낸 조각은 낡

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질 것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리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리라. 또한 낡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곧바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아니하리니, ‘낡은 것이 더 낫다’고 말하리라.

누가복음 5:33-39

19주 수요일.

누가복음, 22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배고플 때 무엇을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게 되었다. 그곳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지켜보며, 그분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른 손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라.” 그가 일어나 가운데로 나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선을 행해야 하느냐, 악을 행해야 하느냐? 영혼을 구원해야 하느냐, 멸망시켜야 하느냐?” 그들은 침묵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그대로 했더니, 그의 손이 다른 손처럼 온전해졌다.

누가복음 6:1-10

21주 안식일.

누가복음, 23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 중에서 열두 명을 택하시고 사도라고 부르셨으니, 시몬, 곧 베드로라 부르신 분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르톨로메오, 마태와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이라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나중에 배반자가 된 가리옷 유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탄한 곳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이 모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레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에서 치유받기 위해, 또한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자들도 함께 모여들었으며, 그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다. 모든 백성이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썼으니,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평탄한 곳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이 모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레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왔으며,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자들도 함께 왔고,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썼으니,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지금 굶주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며, 모욕하고, 인자의 이름으로 너희 이름을 욕되게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어질 상이 크니라.

루카 6:17-23A

19주 금요일.

성인들과 경건한 이들을 위한 전례.

루카 복음서, 25절

주님께서 그분께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부자들아!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받았으니.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니.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들아! 너희는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니. 화 있을진저,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때! 너희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했으니.” 그러나 너희가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뺨을 치는 자에게는 다른 뺨도 내밀고,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내버려 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 그리고 네 것을 가져간 자에게서는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누가복음 6:24-30

20주 월요일.

누가복음, 2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대하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죄인들도 똑같이 하느니라. 또 갚아 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되겠느냐?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 주어 똑같이 갚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선을 베풀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요,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니, 그분

누가복음

은 감사하지 않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 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

누가복음 6:31-36
19주.

누가복음, 27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베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베풀어질 것이다. 좋은 척으로, 털고, 꼭 눌러 채우고, 넘치도록 너희 품에 쏟아 부어 줄 것이다. 너희가 어떤 척으로 재면, 그와 같이 너희에게도 재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는 없나니,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는 누구나 자기 스승과 같아질 것이다.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면, 네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네 눈의 티를 빼내 주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네 눈의 들보를 빼내라. 그러면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도 없으니,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느니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아니하며, 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아니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물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의 악한 보물에서 악한 것을 꺼내나니, 이는 입이 마음의 넘침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37-45
20주 화요일.

누가복음, 28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가?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그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땅을 파고 깊이 파고 돌 위에 기초를 놓았도다. 그러므로 홍수가 나서 물이 그 집에 들이쳤을 때, 그 집을 흔들 수 없었으니, 돌 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물이 그 집에 들이치자 곧 무너져 내렸으니, 그 집이 무너진 것이 심히 컸다. 예수님께서 듣는 백성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누가복음 6:46-7:1
20주 수요일.

누가복음, 29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한 백부장의 귀한 종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의 종을 고쳐

누가복음

주시도록 청하게 하였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청하며 말하였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 이 일을 해 주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그분께 말하게 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제 집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히 주님께 나아가 뵙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저도 사람 밑에서 명령을 받는 자이긴 하지만, 제 밑에 병사들이 있으니 한 사람에게는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라’ 하면 오며, 제 종에게는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놀라시며, 뒤를 따르던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병든 종이 나아서 건강해진 것을 보았다.

누가복음 7:1b-10
22주째 안식일.

누가복음, 30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시는데, 그분과 함께 많은 제자와 수많은 무리가 따라갔다. 그분이 마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은 채로 운구되어 나오고 있었고, 많은 무리가 그 과부와 함께 마을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관을 만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누가복음 7:11-16
20주.

누가복음, 31장

그 무렵,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 전체에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제자 중 두 사람을 불러 예수께 보내어 물으라고 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여쭙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오실 분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을 병과 고통, 그리고 악령에서 고치시고, 많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들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나를 두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보

누가복음

낸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요한에 대해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을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러나 호화롭게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이다. 그는 바로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고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그를 듣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누가복음 7:17-30

20주 목요일.

5월 25일, 세례 요한의 머리 발견 축일, 아침 기도.

누가복음, 32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누구에 비유할까? 그들은 누구와 같을까? 그들은 길거리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으나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는 너희를 위해 애가를 불렀으나 너희는 울지 않았다’고 하는 아이들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는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으나, 너희는 ‘그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였다. 인자가 왔을 때, 그는 먹고 마시나, 너희는 ‘이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

누가복음 7:31-35

20주 금요일.

누가복음, 33장

그 무렵,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하러 오시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셨다. 그때 그 성읍에 있던 한 죄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가 든 알라바스트로 항아리를 가져와 그분의 발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며,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렸다. 이것을 본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이 선지자라면, 누가, 어떤 여자가 그분에게 손을 대는지 알았을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말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스승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채권자에게 두 빚진 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오백 디나리온을, 다른 사람은 오십 디나리온을 빚졌으나, 갚을 것이 없자 그는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니 말해보라. 그들 중 누가 그 대금업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다. “제

누가복음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발에 물을 붓지 않았으나,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그녀는 내가 온 이래로 끊임없이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나, 그녀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다. 그러므로 네게 말하노니,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으므로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으나,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누구길래 죄까지 용서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36-50

21주 월요일.

순교자들에게.

누가복음, 34장

그 무렵 예수께서는 마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분과 함께 열두 제자와, 그분이 악령과 병에서 고쳐 주신 몇몇 여인들이 따르고 있었다. 마리아, 일명 막달라 마리아로, 그에게서 일곱 귀신이 나갔던 자와, 헤롯의 청지기 후자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 그리고 자기 재산을 바쳐 그분을 섬기던 많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1-3

21주 화요일.

7월 22일, 마리아 막달레나.

누가복음 35장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짓밟히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었고, 어떤 씨는 돌 위에 떨어져 싹이 났으나 물이 없어 말라 죽었고,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나 그것을 덮어버렸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치셨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여,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듣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훔쳐 가니, 그들이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돌 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말하며,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떠나서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놀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선하고 깨끗한 마음에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치셨다.

누가복음, 3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도 등불을 켜 놓고는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 중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 중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듣는 데 주의하라.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지겠으나,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니라.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무리가 많아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께 알렸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당신을 뵈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누가복음 8:16-21

23주 토요일.

9월 9일, 12월 9일, 7월 25일, 성 안나 축일.

누가복음, 37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출발했다. 배가 항해하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잠드셨다. 호수 위로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고, 파도가 배를 덮쳐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서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가?”

누가복음 8:22-25

21주 수요일.

누가복음, 38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물가로 나오시자, 그 성읍에서 오랫동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분을 맞이했는데, 그는 옷을 입지 않고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였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을 나오라고 명하셨으니, 그 영이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 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밧줄로 묶어 가두어 두었으나, 그는 밧줄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이끌려 광야로 쫓겨 다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레기온입니다.”

많은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마침 그 산 위에는 큰 돼지 떼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청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자, 돼지 떼가 깎아지른 절벽에서 호수로 뛰어들어 익사하고 말았다. 목자들은 이 일을 보고 달려가 도시와 마을에 알렸다. 사람들이 그 일을 보러 나왔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가다라 일대의 모든 백성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 달라고 간청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오르셔서 돌아가셨다.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보내주셨다. 그는 가서 온 마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했다.

누가복음 8:26-39

23주.

누가복음 39장

그 무렵,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에게는 열두 살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무리가 그분을 에워싸고 밀려들었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를 찾아다니며 온 재산을 다 썼으나 아무도 고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즉시 피가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나 모두가 부인하자,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주님을 둘러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 나를 만졌으니, 내게서 힘이 나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자신이 들킨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다가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백성 앞에서 왜 그분을 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즉시 치유되었는지를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분이 아직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구원받을 것이다.” 집에 이르러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모두 그녀를 위해 울고 통곡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시고는 소녀의 손을 잡고 외치셨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소녀의 영혼이 돌아왔고, 그녀는 즉시 일어났

누가복음

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다. 그녀의 부모는 놀라워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누가복음 8:41-56

24주.

누가복음, 40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러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에 나갈 때 지팡이도, 여행 가방도, 빵도, 은전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두 벌씩 갖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머물다가 거기서 다시 길을 떠나거라. 만약 어느 곳에서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도시를 떠나며 너희 발에 묻은 먼지마저 털어내어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그들은 가서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었다.

누가복음 9:1-6

24주째 안식일.

누가복음, 41장

그 무렵, 테트라르크 헤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의아해하였다.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 중 한 분이 부활하셨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헤롯이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내가 이런 소문을 듣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는 그분을 뵈고자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 그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니,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데리고 베프사이다라는 마을 근처의 한적한 곳으로 따로 떠나셨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를 알고 그분을 따라갔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맞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치유를 구하는 자들을 고쳐 주셨다.

누가복음 9:7-11

21주 목요일.

누가복음, 42장 시작

그 무렵,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백성들을 보내 주십시오. 그들이 주변 마을과 시골로 가서 하룻밤을 묵고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오. 여기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사러 가야 합니까?” 그 수는 약 오천 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오십 명씩 줄을 지어 앉히라.” 제자들은 그렇게 하여 모두를 앉혔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모두가 먹고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조각을 모아 보니 열

두 바구니가 되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누가복음 9:12B-18A
21주 금요일.

누가복음, 43장 시작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시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9:18-22
22주 월요일.

누가복음, 44장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거나 해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누가복음 9:23-27
22주 화요일.

누가복음, 45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눈부시게 하얗게 빛났다. 그때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깨어나 보니 그분의 영광과 그분 곁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장막 세 개를 지을 테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를 들으라.” 하셨다. 그 음성

누가복음

이 들리자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그 날들 동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9:28-36
주님의 변모, 아침 예배 때.

누가복음, 46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그분을 맞이하였다. 갑자기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쳐 말하였다. “선생님! 제발 제 아들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저에게는 이 아이 하나뿐입니다.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갑자기 비명을 지르게 하고, 괴롭혀서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를 괴롭힌 뒤 겨우 떠나갑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악령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그 아이가 오는 도중에 귀신이 그를 넘어뜨리고 때리기 시작했으나,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고치신 뒤, 그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탄하였다.

누가복음 9:37-43
25주 토요일.

누가복음, 47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잘 새겨 두어라.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때 그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자기 앞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때 요한이 말하였다. “스승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므로 그를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라. 너희에게 대적하지 않는 자는 곧 너희 편이니라.”

누가복음 9:44-50
22주 수요일.

누가복음, 48^A절

그 무렵,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를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마라. 너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곧 너희 편이니라.” 그분이 세상에서 떠나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앞서 가도록 사자들을 보내셨다.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으나, 그곳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본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였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들을 멸해 버리게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금하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떤 영을 가진 줄 모르느냐? 인자는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누가복음 9:49-56
22주 목요일.

누가복음, 48B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전령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와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 했으나, 그곳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본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였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들을 멸해 버리게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막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인자(人子)는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에게만 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9:51-56; 10:22-24
8월 16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구세주의 형상 축일.

누가복음 49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 어떤 사람이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게는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를 뉘일 곳조차 없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또 다른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쟁기에 얹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누가복음, 50A절

그 무렵 주님께서 다른 제자 칠십 명을 택하사, 친히 가고자 하시는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 명씩 짝지어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수확의 주인에게 기도하여 그분의 수확을 위해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하라. 가라! 내가 너희를 마치 양들 가운데서 늑대들처럼 보내노라. 자루도, 주머니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라. 거기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에게 머물 것이요, 없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가진 것을 먹고 마시라. 수고하는 자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어떤 도시로 들어가서 너희를 맞아 준다면, 그들이 대접하는 것을 먹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며,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만약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리로 나가서 말하라. ‘너희 마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조차 너희에게 털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기쁠 것이다. 화 있을진저, 호라진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만일 티레와 시돈에 너희에게 나타난 능력들이 나타났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쓴 채 회개했을 것이나, 심판 날에 티레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낮게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치솟은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누가복음, 50B절

그 무렵 주님께서 다른 제자 칠십 명을 택하사, 친히 가고자 하시는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 명씩 짝지어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수확의 주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수확을 위해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하라. 가라! 내가 너희를 마치 양들 가운데서 늑대들처럼 보내노라. 자루도, 주머니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라. 거기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에게 머물 것이요, 없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가진 것을 먹고 마시라. 수고하는 자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어떤 도시로 들어가서 너희를 맞아 준다면, 그들이 대접하는 것을 먹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며,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만약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리로 나가서 말하라. ‘너희 마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조차 너희에게 털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누가복음

날 소동이 그 마을보다 더 기쁠 것이다. 화가 있을지어다, 호라진아! 화 있을진저, 벧세다여! 만일 티레와 시돈에 너희 가운데 나타난 능력들이 나타났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니라. 그러나 심판 날에 티레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낮게 여겨질 것이니라.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올라갔으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니라. 너희를 듣는 자는 나를 듣는 것이요,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니, 나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거절하는 것이다. 칠십 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귀신들조차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는 사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일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1-21

사도들에게.

누가복음, 51A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듣는 자는 나를 듣는 것이요,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며, 나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거절하는 것이다.” 칠십 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귀신들조차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 그리고 모든 원수의 세력을 밟을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는 사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일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16-21

성찬식에서 천사들에게.

누가복음, 51B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누가복음

자들에게는 이 일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19-21
27주 토요일.

누가복음, 52장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들과 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특별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22-24
23주 월요일.

누가복음, 53장

그 무렵,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하듯 물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예수님께 물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상처를 입힌 뒤, 간신히 살아 있는 채로 내버려 두고 떠났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는 지나쳐 버렸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다가와 보고는 지나쳐 버렸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주었다;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떠날 때, 두 디나리를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만약 더 드는 비용이 있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 드리겠소.’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들에게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그가 말하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누가복음 10:25-37
25주.

누가복음 54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마르다라는 여자가 있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다는 큰 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가 다가와 말하였

누가복음

다. “주님, 제 자매가 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주님께는 상관없으십니까? 그녀에게 와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고 분주하지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것이 그녀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말했습니다. “주님을 품은 태와 주님을 먹인 젖가슴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루카 10:38-42; 11:27-28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 전례 중에.

누가복음, 55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령 너희 중 누군가가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세 개를 빌려 달라. 길에서 온 친구가 내게 들었는데, 대접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안쪽에서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문은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있다. 일어나서 네게 줄 수 없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일어나서 친구로서 그에게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구하므로 일어나서 그가 구하는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 주실 것이니, 구하는 자는 다 받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 주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1:1-10

23주 화요일.

누가복음, 56장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고, 찾는 사람은 누구나 찾으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 주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아버지가 누구 있겠느냐? 혹은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물고기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아니면 달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57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병어리였던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 나가자 병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 백성들이 놀라워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는 귀신의 우두머리인 벨제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분열된 모든 나라는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열된 집은 무너진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열된다면, 그의 나라는 어떻게 서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느냐? 만일 내가 베엘제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무기를 든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겠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그가 의지하던 모든 무기를 빼앗아 그가 빼앗긴 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이다.

누가복음 11:14-23

23주 목요일.

누가복음, 58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이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쉼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쓸고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거기서 살게 되니, 그 사람에게에는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누가복음 11:23-26

23주 금요일.

누가복음, 59절

그 무렵, 많은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는 간사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으리라.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듯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라.”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심판대에 서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니, 이는 그녀가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보라,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심판대에 서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라, 여기에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숨겨진 곳이나 그릇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들어오는 자들이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60장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라.” 만약 네 온 몸이 밝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추는 것처럼 온전히 밝아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하시게 했다. 주님께서 가셔서 자리를 잡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잔과 접시의 겉면을 깨끗이 닦아내지만, 너희 속은 강탈과 간사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지으신 분이 속도 지으신 분이 아니시겠느냐? 차라리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구제금을 내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누가복음 11:34-41

24주 화요일.

누가복음, 61절

주님께서 그분께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박하와 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를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소홀히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했으나,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되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당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모임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무덤과 같으니라. 이에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이 그분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도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면서, 정작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1:42-46

24주 수요일.

누가복음, 62절

주님께서 그분께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을 위해 무덤을 짓고 있으니, 너희는 이로써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증언하고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무덤을 짓고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죽이고 어떤 이들은 쫓아내리라. 그리하여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서 그 대가를 치르

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율법학자들아! 너희는 깨달음의 열쇠를 빼앗았으니,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자들을 막았도다. 그분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맹렬히 달려들어, 많은 것에 대해 대답을 강요하며,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라도 잡아내어 그분을 고발하려고 애썼다. 한편, 수천 명의 무리가 모여 서로 밀치며 봄비자,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누가복음 11:47-12:1
24주 목요일.
12월 17일, 예언자 다니엘.

누가복음, 63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숨겨진 것 중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 중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한 말은 빛 속에서 들릴 것이며, 집 안에서 귀에 대고 한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로 그를 두려워하라. 작은 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작은 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에 대하여 한 말은 용서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할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라.

누가복음 12:2-12
24주 금요일.
4월 24일, 성 게오르기오스 축일, 아침 기도 때.

누가복음, 64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또 인자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갈 때, 어떻게 대답할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라.

누가복음 12:8-12
11월 6일, 성 바오로 고백자.

루카 복음서, 65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무리 중 한 사람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를 심판하거나 나누게 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탐욕을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요로움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영혼은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은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들을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도 없고 곡식 창고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니,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팔꿈치라도 더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가장 작은 일조차 할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염려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베를 짓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 속에서도 이 꽃들 중 하나만큼 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고 내일 화로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니, 믿음이 적은 너희는 하물며 훨씬 더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2:13-15; 22b-31

25주 월요일.

누가복음, 66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열매를 모아 둘 곳이 없는데.’ 그래서 그는 말했다. ‘이러면 되겠다. 내 곡창을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모든 재물을 모아 두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네게 여러 해 동안 쓸 재물이 많이 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빼앗아 갈 것이니, 네가 마련해 둔 것을 누가 얻게 되겠느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지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누가복음 12:16-21

26주.

누가복음 67장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양 떼여!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썩지 않는 보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라. 그곳은 도둑이 접근하지 못하고 좀이 먹지 않는 곳이니,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허리는 띠를 매고 등불은 켜 두라. 그리고 너희

는 혼인 잔치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되어,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 주도록 하라. 주인이 돌아와 깨어 있는 종들을 발견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자리에 앉힌 다음, 다가가 그들을 섬기리라. 만일 두 번째 파수 시간에 오든지, 세 번째 파수 시간에 오든지, 그들을 그렇게 발견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지 알았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는 것을 막았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라.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2:32-40
28주 토요일.

누가복음, 68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인이 자기 종들을 다스려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세운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청지기는 누구인가? 주인이 돌아와서 그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은 그를 자기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할 것이다.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곧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기 시작하면, 그 종의 주인이 그가 예상하지 못한 날,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와서 그를 벌하고, 불신자들과 같은 처지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심하게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도 벌받을 만한 일을 한 자는 덜 맞을 것이다. 누구에게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누가복음 12:42-48
25주 화요일.

누가복음, 69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며,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내가 불을 땅에 내려놓으러 왔는데, 그 불이 벌써 타오르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분열을 주러 왔노라.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사람이 갈라설 것이니, 셋은 둘을 대적하고, 둘은 셋을 대적하리라. 아버지는 아들을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대적하며, 어머니는 딸을 대적하고, 딸은 어머니를 대적하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라.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하니, 과연 그렇게 된다. 남풍이 불면, ‘무더위가 오겠다’고 말하니, 과연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땅과 하늘의 기색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마땅히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원수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길에서 그와 화해하여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지 않게 하고, 재

판관이 너를 고문관에게 넘기지 않게 하며, 고문관이 너를 감옥에 가두지 않게 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렵타까지 갇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2:48b-59
25주 수요일.

누가복음, 70장 시작

그 무렵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과 섞어버린 일에 대해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아니면 실로암 탑이 무너져 그 아래에 있던 열여덟 사람을 덮쳐 죽인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어 두었는데, 열매를 찾으러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러 온 지 벌써 세 해째인데, 열매를 찾지 못하겠구나. 베어 버려라. 이 나무가 땅을 차지하고만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면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베어내십시오.”

누가복음 13:1-9
25주 목요일.

누가복음, 71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곳에 열여덟 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몸이 굽어 곧게 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여인아, 네 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니, 그녀가 즉시 곧게 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회당 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을 분개하며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일할 날은 여섯 날이 있으니, 그 날에 와서 치유를 받으라. 안식일에는 그러지 말라.”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위선자여! 너희 중 누구라도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 마시게 하지 않느냐? 사탄이 벌써 18년이나 묶어 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멍에에서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을 대적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모든 백성은 그분의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였다.

누가복음 13:10-17
27주.

누가복음, 72장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니,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한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세 메르에 넣은 누룩과 같아서, 온 것이 다 발효될 때까지 퍼져 나갔다.” 그리고 그분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셨다. 어떤 사람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까?”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 하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말하리라. ‘주님!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겠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말하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나 그분은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그곳에서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정작 너희는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될 때이다.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누가복음 13:18-29

29주째 안식일.

그리스도 탄생 전 토요일.

누가복음, 73장 시작

그 무렵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여기서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라. ‘보라,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셋째 날에 끝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걸어가야 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고자 했는지, 마치 새가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은 텅 비어 남겨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가 올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3:31-35

25주 금요일.

누가복음, 74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집에 빵을 드시러 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물병을 앓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어 고쳐 주시고 보내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나귀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이에 대해 대답할 말이 없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군가 너를 결혼 잔치에 초대하면, 앞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초대받았을 때,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맨 뒷자리에 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대받았을 때,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으라. 그래야 너를 초대한 사람이 다가와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할 것이니, 그러면 너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4:1-11

제30주 토요일.

누가복음, 75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려 하셨을 때, 그분을 초대했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그래야 그들이 너를 초대할 때 네가 보답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자와 불구자, 절름발이, 눈먼 자들을 초대하라. 그들이 네게 갚아 줄 수 없으므로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니, 의인들의 부활 때에 네가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4:12-15

26주 월요일.

누가복음, 76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마치 서로 상의라도 한 듯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땅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소 다섯 쌍을 샀으니 가서 시험해 봐야 하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세 번째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 이 일을 주인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집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말했다. “서둘러 도시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거지들

과 불구자, 절름발이,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으나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길과 울타리 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초대받은 자들 중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니, 초대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4:16-24
28주.
성 조상들의 주간.

누가복음, 77절

그 무렵,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되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탑을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여,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를 놓은 뒤에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으며 ‘이 사람은 짓기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구나’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혹은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갈 때, 먼저 앉아서 만 명의 군사로 이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적을 막을 수 있는지 상의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을 보내 평화를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되찾겠느냐? 흙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으니, 밖으로 내버려진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4:25-35
26주 화요일.

누가복음, 78절

그 무렵,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그분의 말씀을 들곤 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평하며 말하였다. “그는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양 백 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남겨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내면 기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하리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명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 명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혹은 열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방을 살펴 꼼꼼히 찾아내지 않고는 그 드라크마를 찾지 않을 것이며,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여인들을 불러 모아 말하리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오.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하느니라.

누가복음 15:1-10

26주 수요일.

누가복음, 79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막내는 모든 것을 챙겨 먼 곳으로 떠나가서,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을 무렵,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궁핍해졌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의 한 주민에게 가서 일자리를 구했고, 그 사람은 그를 자신의 밭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껍질로 배를 채우기를 바랐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생각했다. ‘아버지 집에는 고용인들도 빵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니.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고용인 중 하나로 받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에 안기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데려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의 맏아들은 밭에 있었는데, 돌아오다가 집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노래와 환호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종 중 한 명을 불러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종이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님께서 그를 무사히 맞이하셨기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 그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이토록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제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염소 한 마리조차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모든 것이 네 것이지만, 네 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하다.”

누가복음 15:11-32

제34주,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누가복음, 80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고발을 받았다. 그래서 그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네에 대해 들은 소문이 무엇이나? 네 청지기 직분에 대한 결산을 내놔라. 네가 더 이상 청지기로 있을 수 없으니.’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인이 내게 집안 관리권을 빼앗아가려 하니, 밭을 갈 수는 없고 구걸하기는 부끄럽다. 집안 관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주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그래서 주인의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가 대답했다. “기름 백 메르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 차용증을 가져다가 빨리 앉아서 ‘오십’이라고 써라.” 그다음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밀 백 메르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 차용증을 가져다가 ‘팔십’이라고 써라.” 주인은 그 불충실한 청지기가 기민하게 처신했다고 칭찬했다. 이 세대의 자식들은 자기들 방식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기민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두어라. 그래야 너희가 가난해졌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일 것이다.

누가복음 16:1-9

26주 목요일.

누가복음, 81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는 큰 일에도 충실하고, 작은 일에 불충실한 자는 큰 일에도 불충실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서 신실하지 못하였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믿어 주겠느냐? 또 남의 것을 신실하게 다루지 못하였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위해 힘쓰고 다른 쪽을 소홀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모든 말을 돈에 탐이 많았던 바리새인들도 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6:10-15

31주째 안식일.

누가복음, 82절

주님께서 그분께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 이어졌으나, 이 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모든 사람은 힘써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라도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다.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

요,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유혹을 피할 수는 없으나, 유혹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 목에 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져 버리는 것이, 이 작은 자들 중 한 명을 유혹하는 것보다 낫다. 너희는 스스로를 조심하라. 만약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에게 지적하라.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하루에 일곱 번 네게 죄를 짓고, 하루에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를 용서해 주라.

누가복음 16:15-18; 17:1-4
26주 금요일.

누가복음, 83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줏빛 옷과 비단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다. 또 라자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종기 투성이가 되어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바랐고,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했다.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장사 지냈는데,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을 물에 적셔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자식아! 네가 살아 있을 때 이미 네 몫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받고 있느니라.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는 자도 없고, 거기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는 자도 없느니라.” 그가 말하였다. “그러니 아버지여, 청하건대 그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나에게는 형제가 다섯이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그 말을 듣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아브라함 아버지, 죽은 자 중 누군가가 그들에게 온다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설령 죽은 자 중 누군가가 살아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6:19-31
22주.

누가복음, 84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를 잘 살피라. 만일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에게 꾸짖어라.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하루에 일곱 번 네게 죄를 짓고, 하루에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용서해 주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어 이 무화과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로 옮겨져라’라고 말한다면, 그 나무는 너희 말을 따를 것

누가복음

이다.” 너희 중에 발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을 둔 사람이,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라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나를 섬기라.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시라’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이 그 종이 명령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명령받은 모든 것을 다 이행했을 때, ‘우리는 쓸모없는 종들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라.

누가복음 17:3-10
32주째 안식일.

누가복음, 85절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던 중,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분을 맞이했는데, 그들은 멀리서 멈춰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중 한 사람은 자신이 나았음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나머지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누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17:12-19
29주.

누가복음, 86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자,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며, ‘보라, 여기 있다’거나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날이 올 것이나,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있다’거나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하더라도, 가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한쪽 끝에서 번쩍이면 다른 쪽 끝까지 빛나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날에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 그분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이 세대로부터 배척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20-25
27주 월요일.

누가복음, 87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며 지냈으나, 홍수가 닥쳐 모두 멸망하였다. 롯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있었으나, 롯이 소돔

누가복음

에서 나온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모두를 멸망시켰으니,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그러할 것이다. 그 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밤에 한 침상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함께 밀을 빻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며, 밭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이에 그들이 그분께 물었다. “주님, 어디에서입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누가복음 17:26-37

27주 화요일.

누가복음, 88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제 원수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기를, ‘비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쉬지 않고 괴롭히니, 그녀가 더 이상 와서 나를 귀찮게 하지 않도록 그녀를 도와주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분께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비록 보호하시는 데 지체하시더라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곧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8:2-8

33주째 안식일.

누가복음, 89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곧 강도나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 혹은 이 세리처럼 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제가 번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8:10-14

제33주, 세리와 바리새인에 관한 주일.

누가복음, 90절

그 무렵 사람들이 갓난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만져 주시기를 청했으나, 제자들은 이를 보고 그들을 막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아이들을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를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매,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시대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15-17; 26-30
27주 수요일.

누가복음, 91절 시작

그 무렵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하듯 말하였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선택하고 부르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택하시니,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가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지켜 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 둘 것이니,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을 듣고 슬퍼하였으니, 그가 매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를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누가복음 18:18-27
30주.

누가복음, 92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해 인자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침을 뱉고, 때리고, 죽일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93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곁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 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자, 그는 소리쳐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입 다물게 하려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그를 자기 곁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다. 그가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즉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를 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누가복음 18:35-43

31주.

누가복음, 94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다. 보라, 세리 우두머리요 부자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으나, 키가 작아 무리 뒤에 가려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앞서 달려가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 나무 옆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주위를 둘러보시니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니라.” 그가 서둘러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를 본 모든 사람이 불평하며,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삭개오는 일어나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누구에게든 피해를 입혔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9:1-10

32주.

누가복음, 95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물려받고 돌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다. 그는 자기 종 열 명을 불러 각각 열 미나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장사하여 이자를 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사절단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가 왕위를 물려받고 돌아오자, 은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누가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알아보게 하였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열 미나의 이익을 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열 도시를 다스리게 하리라.”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미나 하나가 다섯 미나를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려라.” 세 번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미나 하나를 수건에 싸서 간직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가혹한 분이시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시기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 입으로 나를 심판하리라, 이 악한 종아! 네가 내가 가혹한 사람임을 알았으면서도,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임을 알았으면서도, 어찌하여 내 은을 장사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래야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에게서 미나 하나를 빼앗아 열 미나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열 미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지겠으나,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나를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았던 나의 원수들을 여기로 데려와 내 앞에서 죽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길을 계속 가셨다.

누가복음 19:12-28

27주 금요일.

누가복음, 96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비파가이와 베다니, 곧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 두 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데려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풀어 놓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라.”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았다. 그들이 어린 나귀를 풀고 있을 때, 주인들이 그들에게 “왜 그 어린 나귀를 풀고 있느냐?”고 물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예수님께 데려와, 자기들의 옷을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히었다. 그분이 가실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 놓았다. 그분이 감람산 아래로 내려오실 무렵, 수많은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그들이 목격한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 있나이다!” 그때 백성 가운데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무교절 날이 이르렀으니, 그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할 날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 그들이 그분께 물었다. “어디서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성에 들어갈 때 물 항아리를 메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보여 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그가 말한 대로 찾아내어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고 싶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이를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 서로 나누어 먹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으리라.” 또 떡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바쳐지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지는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라.”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에 있다. 그러나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나니, 그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묻기 시작하여, 그들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그들 사이에는 누가 더 큰 자로 여겨져야 할지에 대한 다툼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왕들은 백성을 다스리며, 그들을 통치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더 큰 자는 가장 작은 자처럼 되고, 지도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어야 한다. 누워 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 누가 더 큰가? 누워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와 같이 있노라. 그러나 너희는 나의 고난 중에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유언하신 대로, 나도 너희에게 유언하노니,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 보좌에 앉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로 쳐내기를 청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네가 회개한 후에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가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주머니도, 여행 가방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자루가 있는 자는 그것을 가져가고, 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없는 자는 옷을 팔아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과 ‘그가 악한 자들과 함께 계수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에 관한 일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충분하다.” 그리고 나가셔서 평소처럼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누가복음 19:29-40; 22:7-39

치즈 주간의 월요일.

누가복음, 97장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무렵, 수많은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그들이 목격한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가 있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 있나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백성 가운데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그 성을 바라보시며 그 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 “아, 네가 오늘이라도 네 평화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은 네 눈에서 감추어져 있나니, 네 원수들이 너를 향해 참호를 파고 너를 에워싸며 사방에서 너를 압박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며, 네 안에서 네 자녀들을 죽이고, 네가 네게 임한 은혜의 때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네 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날들이 네게 닥칠 것이니라.

누가복음 19:37-44

28주 월요일.

누가복음, 98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으니, 온 백성이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9:45-48

28주 화요일.

누가복음, 99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가와 그분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그대에게 이 권세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만약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하실 것이다. 만약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 그들은 요한이 선지자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어디서 온 것인지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누가복음 20:1-8

28주 수요일.

누가복음, 100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심고 그것을 포도원지기들에게 맡긴 뒤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때가 되어 그는 포도원지기들에게 종을 보내어 포도원의 열매를 가져오게 하였으나, 포도원지기들은 그 종을 때려 아무것도 없이 돌려보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도 그를 때리고 모욕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또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그들도 그를 상처 입히고 쫓아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어쩌면 그를 보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니.”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는,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기록은 무슨 뜻이냐? 그 돌에 부딪치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으스러뜨릴 것이다.”

누가복음 20:9-18

28주 목요일.

누가복음, 101절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지 못하였으니, 그분이 이 비유를 그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며, 경건한 척하는 간사한 사람들을 보내어, 어떤 말로든 그분을 함정에 빠뜨려 통치자와 총독에게 넘기려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 “디나리 하나를 내게 보여라. 그 위에 누구의 형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흠을 잡을 수 없었고, 그분의 대답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누가복음 20:19-26

28주 금요일.

누가복음, 102절

그 무렵,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중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형제가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제의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 형제의 자손을 이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누가복음

맞이하고 자식 없이 죽었고, 둘째가 그 아내를 맞이했으나 역시 자식 없이 죽었으며, 셋째도 그 아내를 맞이했으나 자식 없이 죽었고, 나머지 일곱 형제도 모두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후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녀는 일곱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일곱 형제가 모두 그녀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손들은 결혼하고 시집가지만, 그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자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다시는 죽을 수도 없으니, 그들은 천사들과 같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라 칭했을 때 이미 보여주신 바와 같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는 모든 이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기관들 중 몇몇이 말하였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분께 아무것도 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다윗 자신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밟아 놓을 때까지.”’ 그러니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20:27-44

29주 월요일.

누가복음, 103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회중 앞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하며, 잔치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위선적으로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니, 부자들이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고, 거기에 두 레프타를 넣은 가난한 과부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여분의 것을 하나님께 헌금했으나, 그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모든 생계비를 다 바쳤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0:45-21:4

34주째 안식일.

누가복음, 104장

어떤 이들은 성전이 값비싼 보석과 헌금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올 것이니, 너희가 여기서 보는 것 중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또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돌며, 끔찍한

누가복음

일들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된 것을 볼 때, 그때 그 황폐함이 가까웠음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자는 밖으로 나가며, 성 밖에 있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는 보복의 날들이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땅에 큰 재앙이 닥치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 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니,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누가복음 21:5-7; 10-11; 20-24
29주 수요일.

누가복음, 105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이다’라고 말할 것이니, 그 때가 가까웠으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전쟁과 소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바로 끝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당황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며, 바다는 요동치고 격렬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온 세상에 닥칠 재앙을 두려워하고 기대하며 숨이 턱턱 막힐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들은 큰 권능과 영광을 지니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를 잘 살피라.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 날이 너희를 갑자기 덮치지 않도록 하라. 그 날은 마치 그물처럼 온 땅의 모든 살아 있는 자들을 덮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며 기도하여, 장차 닥칠 이 모든 재앙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자격을 얻으라.

누가복음 21:8-9, 25-27, 33-36
육식 금식 전 토요일.

누가복음, 106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얹고 너희를 박해하여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무엇을 대답할지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입과 지혜를 주리니,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 지혜에 반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배신당할 것이며, 너희 중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실되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라.

누가복음, 107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그것들이 싹을 틔우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사라질 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28-33
29주 목요일.

누가복음, 108A절

그 무렵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되면 나가서 엘로이온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지내셨다. 온 백성은 아침부터 성전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곤 했다. 무교절, 곧 유월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어떻게 죽일지 꾀하고 있었다. 사탄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이스카리옷 유다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상의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유다는 백성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이 이르렀으니, 그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할 날이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

누가복음 21:37-22:8
29주 금요일.

누가복음, 108B절

그 무렵 무교절, 곧 유월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어떻게 죽일지 꾀하고 있었다. 사탄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이스카리옷 유다에게 들어갔고, 그는 가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분을 그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상의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유다는 약속을 지키고, 백성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분을 그들에게 넘길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날이 이르렀으니, 그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할 날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디서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성에 들어갈 때 물 항아리를 메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깔

아 놓은 큰 다락방을 보여 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그가 말한 대로 찾아내어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고 싶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이를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 서로 나누어 먹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으리라.” 또 떡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바쳐지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지는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라.”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에 있다. 그러나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나니, 그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묻기 시작하여, 그들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그들 사이에는 누가 더 큰 자로 여겨져야 할지에 대한 다툼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왕들은 백성을 다스리며, 그들을 통치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더 큰 자는 가장 작은 자처럼 되고, 지도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어야 한다. 누워 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 누가 더 큰가? 누워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와 같이 있노라. 너희는 나의 고난 중에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유언하신 대로, 나도 너희에게 유언하노니,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 보좌에 앉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로 쳐내기를 청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네가 회개한 후에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가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주머니도, 여행 가방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자루가 있는 자는 그것을 가져가고, 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없는 자는 옷을 팔아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과 ‘그가 악한 자들과 함께 계수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관한 일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충분하다.” 그리고 나가셔서 평소처럼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누가복음 22:1-39
성목요일, 아침 예배 때.

누가복음 109장

그 무렵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물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오, 주께서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가 아직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가 나타났는데, 그들 앞에는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걸어오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는 그가 그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신호를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의 목숨을 넘겨주려느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빼서 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이제 충분하다.”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지시어 고쳐 주셨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강도를 잡으려 칼과 창을 들고 나온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거늘, 이제 어둠의 권세가 너희에게 임한 때이다.” 그분을 붙잡아 끌고 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다. 그들이 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을 때,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앉았다. 한 여종이 불 곁에 앉아 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분과 함께 있었어.” 그러나 베드로는 그 여자에게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분을 부인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는 “너도 그들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단호하게 말하기를 “분명 이 사람도 그분과 함께 있었으니, 그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떠올렸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 예수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며 때렸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뺨을 때리며 물었다. “예언해 보아라, 누가 너를 쳤느냐?” 그 밖에도 그분을 모욕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그분을 공의회로 데려가 말하였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묻더라도 너희는 내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놓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의 아들이냐?” 그분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느니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 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그분의 입에서 직접 들었으니.” 그러자 그들 모두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데려갔다.

누가복음 22:39-42; 45b-23:1

치즈 주간의 화요일.

누가복음, 110절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고발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 말이 맞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갈릴리에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전역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한다고 고집하며 주장했다. 빌라도는 갈릴리에 대한 말을 듣고 물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헤롯의 관할 구역 출신임을 알게 되자, 그 무렵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헤롯에게 그를 보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으니, 오랫동안 그분을 뵈기를 원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분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으나, 그분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그분을 맹렬히 고발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뒤,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그날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친구가 되었는데, 이전에는 서로 원수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을 백성을 선동하는 자라고 내게 데려왔으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조사해 보았으나 너희가 그분을 고발하는 그 어떤 죄목에서도 이 사람에게 유죄를 찾을 수 없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분을 그에게 보냈으나, 그분에게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벌을 주고 풀어 주겠다.” 그에게는 명절을 맞아 죄수 한 명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온 백성이 소리쳐 외쳤다. “그를 죽여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어라.” 바라바는 도시에서 일으킨 소요와 살인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었다. 빌라도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예수를 풀어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이 무슨 악을 저질렀단 말이오? 나는 그분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소. 그러니 벌만 주고 풀어 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계속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였고, 그들의 외침과 대제사장들의 외침이 더 거세졌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들이 요청한, 소요와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풀어 주었으며,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다. 그를 끌고 가다가 밭에서 돌아오던 시몬 키리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

였다. 많은 무리와 여자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울고 통곡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식을 낳지 못한 자들과, 태를 열지 못한 자들과, 젖을 먹이지 못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 것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라!’ 하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찌 되겠느냐? 두 악당도 그분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이 ‘해골터’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그분과 악당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낮 여섯 시쯤이었는데, 온 땅에 어둠이 내려와 아홉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백부장은 이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하였다. 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든 모든 백성은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를 알던 모든 사람과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은 멀리 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의 일원이었으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공의회와 그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였다. 그는 유대 지방 아리마대 출신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 시신을 내려 수의를 감싸고, 아직 아무도 안치된 적이 없는 바위 속에 파낸 무덤에 안치하였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도 따라와 무덤을 지켜보며,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한 뒤,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눅 23:1B-34A; 44-56
치즈 주간의 목요일.

누가복음, 111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과 함께 두 악당도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이 ‘해골터’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과 그 악당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관리들도 조롱하며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하였다. 또한 군인들도 그에게 다가가 식초를 건네며 조롱하며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하였다.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쓴 팻말이 달려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악당 중 한 명이 그분을

모욕하며 말하였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라.”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너도 같은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실에 합당한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죄도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때가 낮 여섯 시쯤 되었는데, 온 땅에 어둠이 내려와 아홉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백부장은 이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하였다. 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든 모든 백성은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를 알던 모든 사람과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은 멀리 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누가복음 23:32-49
성금요일, 아침 예배 제8복음서.
성금요일, 제6시.

누가복음, 112절 시작

그 무렵,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왔는데, 그들과 함께 다른 이들도 몇 명 있었다. 그러나 무덤의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그들이 이 일로 인해 당혹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땅에 숙이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이를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인자가 죄인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일을 사도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헛소리로 여기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 보니, 오직 수의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일어난 일에 스스로 놀라면서 되돌아왔다.

누가복음 24:1-12
부활절 제4주일 복음.

누가복음, 113장 시작

그 무렵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 보니, 오직 수의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난 일에 스스로 놀라면서 되돌아왔다. 그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며,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

기하고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들 중 하나인 클레오파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오신 분들 중에서 오직 주님만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는 겁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슨 일인가?”라고 묻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함과 말씀에 능하신 선지자 이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사형 선고를 받도록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런데도 벌써 사흘째가 지났습니다. 게다가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이 살아 계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이 무덤으로 가서 여인들이 말한 대로임을 확인했으나,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리석고 마음이 둔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모세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그분에 관해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가던 마을에 다다랐을 때, 그분은 더 가려는 듯이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붙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르소서”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한 사도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길에서 일어난 일과, 떡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했다.

누가복음 24:12-35

부활절 제5주일 복음.

부활 후 첫 주 화요일.

누가복음, 114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그런 생각이 너희 마음에 드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고 자세히 살펴보아라.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듯이 나에게는 있다.” 하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그들이 기쁨에 차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조각과 벌집 꿀을 그분께 드렸다. 그분은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함

누가복음

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던 바로 그 일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했으며,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을 전파해야 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그들을 성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가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서 점점 멀어지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그분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였다. 아멘.

누가복음 24:36-53

제6주일 복음.

주님의 승천, 성찬례 중.

목차로.

요한 복음

요한 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으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생겨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으나,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왔으니,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었다. 그는 빛이 아니었으나,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참 빛이 계셨으니, 이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분이셨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 생겨났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남자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바로 내가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계시니, 이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그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충만함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으니,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17

거룩하고 위대한 부활절 주간, 성찬예배에서.

요한복음, 2장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나타내셨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요한은 증언하며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네가 엘리야냐?” 그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선지자냐?” 그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럼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해 주어야 하니, 네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가 말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님을 위한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다.” 보내온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

요한복음

라면, 도대체 무엇을 세례를 주는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나를 뒤따르시는 분이시나,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가의 베타바레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8-28
부활 후 첫 주 월요일.

요한복음, 3장

그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셨으니,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그분이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시도록 물로 세례를 주러 왔습니다. 요한은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는 성령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성령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는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보고 증언하노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29-34
1월 7일, 세례 요한.

요한복음, 4장

그 무렵 요한과 그의 제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라비(선생님이라는 뜻)여,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그분이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하루를 그분과 함께 지냈다. 그때는 대략 열 시쯤이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 따르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키퍼’라고 불릴 것이다. 이는 ‘바위’(베드로)라는 뜻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베싸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마을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직접 보아라.”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속임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물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

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말했기에 네가 믿는 것이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께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5-51
부활 후 첫 주 수요일.
11월 30일, 사도 안드레아 축일.

요한 복음서, 5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마을인 벳세다 출신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직접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셨다.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물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기에 네가 믿는 것이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께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3-51
대사순절 첫째 주.
11월 14일, 사도 필립보.

요한 복음서, 6장

그 무렵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곳에 계셨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혼례에 초대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분께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 말씀하셨다. “여인아,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나이다.” 그분의 어머니께서 시종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여 있던 돌로 된 물통 여섯 개가 있었는데, 각각 두 세나 세 세를 담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물통에 물을 채우라.” 그들이 물통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물을 퍼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가라.” 그들

이 가져갔다. 잔치 책임자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았을 때—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랐으나, 물을 퍼 온 하인들만 알고 있었다—그때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불러 말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그다음에 나쁜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 두었군요.” 이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제자들은 그분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2:1-11

부활절 후 2주 월요일.

혼인 예식을 거행할 때.

요한 복음서, 7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그분과 그분의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이 함께 하였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르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밧줄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사람과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흠뿌리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때 제자들은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키나이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떠올렸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어떤 표적으로 네가 우리에게 네게 이런 일을 할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 지어졌는데, 주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2:12-22

부활절 후 첫 주 금요일.

요한 복음, 8장

그 무렵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압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설마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네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령은 원하시는 대로 불어오시니, 그 소리는 들리나 어디서 오시고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땅에 관한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에 관한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에 계신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1-15
부활 후 첫 주 목요일.

요한복음 9장 1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아무도 없으니,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곧 하늘에 계신 분뿐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3-17
십자가 높이심 전 주간.

요한복음, 10장 초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은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실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자기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빛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행하는 자는 자기의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고 빛에게 나아가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16-21
부활절 후 2주 차 화요일.

요한복음, 11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으니,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여! 요단강가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이 증언했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계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람은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은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말한 것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신부를 가진 자는 신랑이며,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신랑의 목소리를 들을 때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바로 이 기쁨이 내게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위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보다 높으시며, 땅에서 나신 분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자로서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보다 높으시며, 그분이 보시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22-33
부활 주간의 안식일.

요한복음, 12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시하르라는 마을에 이르셨는데, 그곳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였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길을 가시다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가 여섯 시쯤이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 그분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분께 직접 구했을 것이며, 그분께서 네게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여자가 그분께 말했다. “선생님! 물을 길어 올릴 그릇도 없으시고 우물은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서 얻으시겠습니까? 설마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고, 그분 자신도, 그분의 자녀들도, 그분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와서 물을 길어 올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게 하라.” 여

자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옳다. 네게는 남편이 다섯 명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제가 보기에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주님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으라. 때가 오니, 그때에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뭘 경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뭘 경배하는지 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올 것이며, 이미 왔으니,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경배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합니다. 여자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으나, 아무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는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묻지 않았다. 그때 여자는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 주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마을을 나와 그분께로 갔다. 한편 제자들은 그분께 “랍비, 드십시오.”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그분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너희는 ‘아직 네 달이 지나야 추수철이 온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이 하얗게 변하여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추수하는 자는 상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리니, 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리라. 이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리라’는 말이 이 경우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으니, 다른 이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동참한 것이다. 그 성읍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이 ‘그분이 내가 한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 증언한 말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니, 그분은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이제 더 이상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알게 되었으니,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4:5-42

부활절 후 5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하여.

요한복음, 13장

그 무렵 가버나움에 아들이 병든 한 왕실 관리자가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 죽어 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 주시도록 오시기를 간청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 관리자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나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언제부터 나아지기 시작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어제 일곱 시에 열이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낫다”고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 시간임을 알고, 자신과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

요한복음 4:46b-54

부활절 후 3주 월요일.

요한복음, 14A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지붕이 있는 통로가 다섯 개 있었다. 그곳에는 병든 자, 눈먼 자, 절름발이, 마른 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그 목욕탕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기 때문이었다. 물이 휘저어질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되었다. 그곳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 온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을 뜻이 있느냐?” 병자는 그분께 대답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이 요동칠 때 저를 목욕탕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저보다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는 즉시 낫고,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 침상을 들어서 안 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고쳐 주신 분이 나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러나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군중 속에 숨어 계셨기 때문이다. 그 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말씀하셨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 사람은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고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렸다.

요한복음 5:1-15

부활절 후 넷째 주, 마비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 14B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지붕이 있는 통로가 다섯 개 있었다. 그곳에는 병든 자, 눈먼 자, 절름발이, 마른 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그 목욕탕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기 때문이었다. 물이 휘저어질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되었다.

요한복음 5:1-4
작은 물 축복식에서.

요한복음, 15장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 주시며,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실 것이니,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원하시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17b-24
부활절 후 2주 수요일.
월요일의 고인들을 위한 기도.

요한복음, 16장 시작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으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때가 이르렀으니, 이미 왔도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듣고 나서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음이니라. 또 그분께 심판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이 인자이시기 때문이라.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으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요한복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며,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24-30

부활절 후 2주 목요일.

화요일과 토요일에 안식을 기원하며.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는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대해 증언하는 다른 이가 있으니, 나는 그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됨을 안다. 너희는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는 타오르며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으나, 너희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의 빛 속에서 기뻐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게 하신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내게 증언하고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으며,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도 않는다. 이는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을 연구하라. 너희는 그것을 통해 영생을 얻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나, 너희를 안다.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으면서,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의지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자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 또한 믿었을 것이니, 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기록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티베리아다 근처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이는 그분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30b-6:2

부활절 후 2주 금요일.

요한 복음, 18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사 오겠느냐?” 그러나 이는 그를 시험하시려는 말씀이었으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빌립이 그분께 대답

하여 이르되, “이들에게 200 디나리온으로도 빵이 부족하여, 각자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분께 말하되, “여기 한 소년이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앉게 하라.” 그곳에는 풀이 많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하여 약 오천 명 가량의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각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조각들을 모아 아무것도 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모아 보니, 먹은 사람들이 남긴 보리 빵 다섯 개에서 나온 부스러기로 열두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이시다.”

요한복음 6:5-14
부활절 후 5주 수요일.

요한복음 19장 1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와서 몰래 그분을 데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 배에 올라타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했다. 날이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다. 강한 바람이 불어 바다가 요동쳤다. 약 스물다섯에서 서른 스타디온 정도를 향해했을 때, 그들은 바다 위를 걸어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려 했고, 그 즉시 배는 그들이 향하던 해안에 닿았다.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제자들이 탄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으며,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을 보았다. 한편, 티베리아스에서 온 다른 배들이 주님께서 축복하신 빵을 먹던 곳 근처에 도착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곳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에 올라타서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말하였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인자가 너희에게 줄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을 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14-27
부활절 후 2주째 안식일.

요한복음, 20장 시작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인자가 너희에게 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을 치셨기 때

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행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그들에게 먹이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된 하늘의 떡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27-33
부활절 후 3주 차 화요일.

요한복음, 21장 시작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이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6:35-39
부활절 후 3주째 수요일.
수요일 안식 기도.

요한복음, 22장

주님께서 그분께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유대인들은 그분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 그분을 비난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불평하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40-44
부활절 후 3주 목요일.

요한 복음, 23장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그것을 먹는 자가 죽지 않게 하는 것

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바칠 내 살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말하였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48-54
부활절 후 3주 금요일.

요한 복음, 24장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다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이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이 참 이상하구나!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로 불평하고 있음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찌 되겠느냐? 영이 생명을 주나, 육체는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 자이고 누가 자기를 배반할 자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 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이가 그분을 떠나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56-69
부활절 후 4주 월요일.

요한복음, 25장 시작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 지역에는 가기를 원치 않으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때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 유다로 가십시오. 그래야 제자들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은밀히 행하고 스스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나니, 주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소서. 그분의 형제들조

차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언제나 때가 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명절에 가라. 나는 아직 이 명절에 가지 않겠으니,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는 갈릴리에 머무르셨다. 그러나 그분의 형제들이 오자, 그분도 명절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치 은밀히 오신 것처럼 오셨다. 유대인들은 명절 동안 그분을 찾아다니며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였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분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분은 선한 분이시다”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분은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요한복음 7:1-13

부활절 후 4주 차 화요일.

요한복음, 26장

오순절 중간 **무렵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놀라면서 말하였다.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분은 참되시며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네게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냐?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나(비록 그것이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지만), 너희는 안식일에 사람을 할례한다. 안식일에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할례를 받는다면, 내가 안식일에 온전한 사람을 고쳐 주었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느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 몇몇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죽이려고 찾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지도자들은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면,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신 분이시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7장

축제의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성 중 많은 이가 이 말씀을 듣고는 “이분은 분명 선지자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오시겠느냐?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온 곳인 베들레헬에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에 대해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분을 붙잡으려 했으나,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다. 그러자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갔고, 그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왜 그분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사람이 이분처럼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아 넘어간 것이냐? 지도자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분을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나 이 백성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밤에 그분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은 사람을 먼저 들어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잘 살펴보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7:37-52; 8:12
오순절 주일, 성찬식에서.

요한복음, 28절

그 무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와 가운데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분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낮추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며 그들을 신경 쓰지 않으셨다. 그들이 계속 묻자, 예수님께서서는 고개를 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 다시 몸을 깊이 숙여 땅에 글을 쓰셨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말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물러나기 시작했고, 오직 예수님과 한가운데서 있는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들고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아무

도 없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 8:3-11
성녀들에게.

요한복음, 29장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고 계시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심판한다 해도, 내 심판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나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보물창고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8:12-20
부활절 후 4주 목요일.

요한 복음, 30절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겠지만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그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고 하니,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인가?”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왔고, 나는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니,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바로 그분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하고 심판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내가 그분께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할 뿐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들리면, 그때에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항상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8:21-30

부활절 후 4주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 높이심 후 토요일.

요한복음, 31절

주님께서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한 번도 누구의 종도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그러나 종은 영원히 집에 머물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머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해 준 나,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간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한 분 아버지, 곧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왔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31-42A

부활절 후 4주째 안식일.

요한 복음서, 32장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너희는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욕망을 이루고자 한다. 그는 태초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였으니,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불의하다고 고발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네 안에 귀

신이 들렸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는 귀신이 없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너희는 나를 모독한다. 그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8:42-51
부활절 후 5주 월요일.

요한복음, 33장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제야 우리가 네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알겠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느냐?” 설마 주님께서 죽으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가?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시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는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오십 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돌을 집어 그분에게 던지려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 성전에서 숨어 나가시어 그곳을 떠나셨다.

요한복음 8:51-59
부활절 후 5주 화요일.

요한복음, 34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그분께 물었다. “랍비,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은 그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도 죄를 짓지 않았고, 그의 부모도 죄를 짓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기 위함이다. “나를 보내신분의 일을 내가 해야 할 것은, 날이 있는 동안이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신 뒤, 그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바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실로암 목욕탕에서 씻어 오라.”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가 가서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이웃들과 예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이 예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다”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와 닮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네 눈이 어떻게 뜨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했다. “예수라고 불리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씻으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이 전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들은 다시 그 맹인에게 말하였다. “그분이 네 눈을 뜨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시력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므로, 시력을 회복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물었다. “이 아이가 너희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던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볼 수 있게 되었느냐?”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며 태어날 때부터 눈먼 것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이는 이미 성년이니,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회당에서 제명하기로 모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는 이미 성년이니, 그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그들은 다시 눈먼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눈먼 자였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그에게 물었다. “그분이 네게 무엇을 하셨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셨느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듣지 않으셨으니, 또 무엇을 듣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그를 책망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분의 제자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분은 어디서 오신 분인지 우리는 모른다.” 눈을 뜬 사람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분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너희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구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셨다면,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요한복음

듣고 그를 찾아내어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분이 누구이기에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이 너와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가 말하였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였다.

요한복음 9:1-38

부활절 후 6주, 눈먼 사람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 35A절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심판을 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이 멀게 하려 함이라.” 이를 들은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 몇몇이 그분께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먼 자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므로 죄가 너희에게 남아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어 주면,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그들을 이끌어 낸다. 자기 양들을 모두 이끌어 내면, 그는 그들 앞에 서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 낯선 사람의 뒤를 따르지 않고, 그에게서 도망치니,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니라. 그러나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들어가고 나가며, 풀밭을 찾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9:39-10:9

부활절 후 5주 목요일.

요한 복음, 35B절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와 양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어 주면,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내어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간 뒤에는 그들 앞에 서서 가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 낯선 사람의 뒤를 따르지 않고, 그에게서 도망치니,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니라. 그러나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하였느니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들어가고 나가며, 풀밭을 찾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0:1-9
성인들에게, 아침 기도 때.

요한복음 36장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며, 목초지를 찾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만 온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러나 고용된 자, 곧 목자가 아닌 자는 양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늑대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니, 늑대가 양을 훔쳐 가고 흠어 버린다. 용병은 용병일 뿐이므로 도망치는데, 양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는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 양들도 내가 데려와야 할 자들이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떼와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9-16
성찬식에서 성직자들에게.

요한 복음서, 37A절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그것을 되찾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치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바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내어줄 권세가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을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다툼이 일어났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에 들렸고 미쳤으니,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했다.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에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했다. 그 무렵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재건 축제가 열렸고,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곧 솔로몬의 현관에 계셨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말하였다. “우리를 언제까지 의아하게 하실 건가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요한복음 10:17-28A
부활절 후 5주 금요일.

요한 복음, 37B절

그 무렵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축제가 열렸는데, 마침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 성전, 곧 솔로몬의 헌관에 계셨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말하였다. “언제까지 우리를 의아하게 하실 것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요한복음 10:22-28A
성전 봉헌에 대하여.

요한 복음, 38장

주님께서 그분께 나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나를 위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보다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그를 치려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거늘, 그중 어느 것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한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과, 네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들을 신이라 부르셨고, 성경은 결코 틀릴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분에게,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너희가 ‘신성모독을 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 일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27-38
부활절 후 5주째 안식일.

요한 복음, 39절

그 무렵,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인 비파니에 사는 라자로라는 사람이 병들었다. 형 라자로가 병든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 바르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렸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 그분께 전하기를,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

으시리라.”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그곳에 이를 동안 머무르셨다.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유다로 가자.”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랍비여! 유다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나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루에 열두 시간이 있지 않느냐? 낮에 걷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걷는 사람은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러 가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잠들었다면 낮겠지요.”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님께서 평범한 잠을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사가 죽었다. 내가 그곳에 없었던 것이 너희를 위해 기쁜 일이다. 그래야 너희가 믿을 수 있으니까. 자, 그에게로 가자.” 그때 토마스, 곧 쌍둥이라 불리는 자가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가서 그와 함께 죽자.” 예수님께서 가보시니, 그가 이미 사흘째 관에 누워 있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형제에 대한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부활절, 곧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믿느냐?” 그녀가 그분께 대답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가서 자신의 여동생 마리아를 몰래 불러 말했다. “선생님께서 여기 계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만났던 그 자리에 계셨다. 마르다와 함께 집에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울려고 가는 줄 알고 그녀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그분을 보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슬퍼하시며 격동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가서서 직접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보라, 그분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말하였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던 말인가?”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으로 슬퍼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그곳은 동굴이었고, 입구에는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치워라.”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이미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지

났으니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가 누워 있던 동굴의 돌을 치워 버렸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를 들어주실 줄은 알고 있었습시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손과 발이 장례용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묶인 채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라.” 그러자 마리아에게 왔던 유대인들 중 많은 이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11:1-45

나사로 안식일.

요한복음, 40장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사람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다.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백성을 점령해 버릴 것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인 카야파는 그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백성이 멸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낫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가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해 대제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예수님께서 백성을 위해 죽으실 것, 그리고 단지 백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프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온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명절에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그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되면 신고하여 그분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요한복음 11:47-57

부활절 후 6주 월요일.

요한 복음, 41A절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차렸고,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으며,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 중 하나였다. 마리아는 순수한 귀한 나르도 향유 한 파운드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렸더니, 집 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그때 제자 중 하나인 유다 시몬의 아들 이스카

리웃, 곧 예수를 배반하려던 자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돈 상자를 맡고 있어 사람들이 그 안에 넣는 것을 관리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는 내 장사 지낼 날을 위해 이것을 아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찾아왔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온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 그분을 맞이하며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받으소서!”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 그 위에 타셨는데, 이는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된 대로였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를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분에 대해 그렇게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전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백성들은 그분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분을 맞이한 것이니, 그분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1-18
바이이 주간, 전례 중.

요한복음, 41B절

그 무렵,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백성들은 그분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분을 맞이했는데, 이는 그분이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온 세상이 그분을 따르고 있다.” 절기를 맞아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몇몇 헬라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베싸이다 출신인 빌립을 찾아와 그에게 청하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뵈고 싶습니다.” 빌립이 가서 안드레아에게 그 말을 전했고, 안드레아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망하게 하겠고, 이 세상에서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이니라. 나를 섬기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니라. 내 영혼이 지금 괴로워하노라.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아버지여! 이 때를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바로 이 시간을 위해 내가 왔노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으니, ‘이미 영화롭

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다. 서서 이를 듣던 무리는 '천둥 소리다'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에 말씀하셨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는 그 분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암시하며 하신 말씀이었다. 무리가 그분께 대답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인자가 들려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둠이 너희를 덮치기 전에, 빛이 있는 동안 걸어가라.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떠나셔서 그들 앞에서 숨으셨다. 그분은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었다. "주여, 누가 우리에게 들은 것을 믿었나이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드러났나이까?"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가 또 말한 대로, 이 백성이 자기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며, 돌아서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도록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사야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가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고백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심판자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할지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17-50

성대한 수요일 아침 예배.

요한복음, 42A절

그 무렵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공의회를 소집하고 서로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온 세상이 그분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였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몇몇 헬라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베싸이다 출신인 빌립에게 다가가 그에게 청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뵈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빌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그 말을 전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님께

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리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이니라. 나를 섬기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니라. 내 영혼이 지금 괴로워하노라.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아버지여! 이 때를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영광을 돌렸고, 또 영광을 돌리리라.” 그 말을 듣고 서 있던 무리는 “천둥 소리다”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에 말씀하셨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며,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는 그분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암시하며 하신 말씀이었다. 우리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리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둠이 너희를 덮치기 전에, 빛이 있는 동안 걸어가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2:19-36A

부활절 후 6주 화요일.

요한 복음, 42B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그 자리에 서서 이를 들은 무리는 “천둥 소리다”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답하셨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요,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는 그분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지를 암시하며 하신 말씀이었다. 우리가 그분께 대답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인자가 들려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둠이 너희를 덮치기 전에, 빛이 있는 동안 걸어가라.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2:28-36A

주님의 십자가 높이심,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43절

주님께서 그분께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물러가셔서 그들 앞에서 숨으셨다. 그분은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었다. “주여! 누가 우리에게 들은 것을 믿었느냐? 또 주님의 뜻이 누구에게 드러났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으니, 이사야가 또 말하기를, “이 백성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며, 돌아서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도록 하지 않는다.” 이사야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가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36-47

부활절 후 6주 수요일.

요한복음 44장

그 무렵,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셨다. 저녁 식사 때, 마귀가 이미 유다 시몬 이스카리옷의 마음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심어 놓았을 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 후 물그릇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은 영원히 씻어 주시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할 몫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너희도 깨끗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배반할 자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3:1-11

성목요일, 발 씻기 예식에 드리는 첫 번째 복음.

요한복음, 45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옷을 입으신 후,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아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이라, 주님이라 부르는데, 그 말이 옳다. 내가 바로 그분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님이요 스승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행하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아니하고, 사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면, 이를 행할 때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12-17

성목요일, 발 씻김 예식에 대한 두 번째 복음.

요한복음, 46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도 그분을 자기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곧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니,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네가 지금 나를 따를 수 없으나, 나중에 나를 따를 것이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없나이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바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 목숨을 나를 위해 바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가겠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리니,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너희가 알고, 그 길도 알고 있다. 도마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께서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빌립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

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않다면,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만 더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유다—이스카리옷이 아닌 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시지 않고 우리에게만 나타나시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우리도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마련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말했을 때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 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너희와 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세상의 임금의 오고 있으나,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함을 알게 하려니와, 일어나자, 여기서 떠나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지기이시다.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이 씻어 주신다.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

물러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밖으로 쫓겨나 말라 버릴 것이니, 그런 가지들은 모아 불에 던져져 타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된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내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든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씀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씀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는 것은 내 이름 때문이니,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미워한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다른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 그들은 보고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헛되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드릴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며, 너희도 증언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며,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그 때가 왔을 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에는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는데, 너희 중 누구도 ‘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슬픔으로 가

득 찾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니,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심판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이 있으나, 너희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니라.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내 것에서 받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가 내 것에서 취하여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다시 머지않아 나를 보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만간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다시 조만간 나를 보게 될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가 ‘조만간’이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만간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다시 조만간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것이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통곡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을 겪는 것은 그 때가 왔기 때문이지만, 아기를 낳으면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니, 이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너희도 지금 슬픔을 겪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며, 너희의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요,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지금까지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때가 이르리니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 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구하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보소서,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구에게도 묻지 않으실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믿느냐? 보라, 때가 다가오고 이미 왔으니, 너희는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남겨 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하면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리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신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므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주님과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부터 제가 아버지께 가졌던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저를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소서. 저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저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들은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음을 진실로 깨달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으며, 저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그들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멸망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나니, 이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주께로 가나니, 이 말을 세상에서 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세상에서 나지 아니한 것 같이 나도 세상에서 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지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니, 나 또한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주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바치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오직 그들에 대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구하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나니,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의로우신 아

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요한복음 13:31b-18:1
성금요일, 아침 예배 제1복음.

요한 복음, 47절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가겠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리니,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너희가 알고, 그 길도 알고 있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께서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에게는 그 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빌립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4:1-11A
부활절 후 6주 금요일.

요한 복음, 48A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다면, 그 일들 자체로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리니,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

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으니 너희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10b-21
부활절 후 6주째 안식일.

요한 복음, 48B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유다(이스카리옷이 아닌)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지 않고 우리에게만 나타나시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우리도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마련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4:21-24
6월 19일, 사도 유다.

요한 복음, 49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은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했을 때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위대하시다. 보라,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너희와 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세상의 임금 이 오고 있으나,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함을 알게 하려니와, 일어나자, 여기서 떠나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지기이시다.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이 씻어 주신다.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으로 쫓

요한복음

거나 말라 버리리니, 그런 가지들은 모아 불에 던져져 타 버리리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4:27b-15:7

부활절 후 7주 월요일.

요한복음, 50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지기이시다. 내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이 다듬어 주신다.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으로 쫓겨나 말라 버리리니, 그런 가지들은 모아 불에 던져져 타 버리리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1-7

9월 2일, 순교자 마만트.

요한복음, 51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 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 계명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든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9-16

5월 11일, 성 순교자 모키오.

요한 복음, 52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

요한복음

한 자라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니,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오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미워한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다른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 그들은 보고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헛되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드릴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며, 너희도 증언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며,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요한복음 15:17-16:2
부활절 후 3주째 안식일.
순교자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53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그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 두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에는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았노라.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는데, 너희 중 누구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찰도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니,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심판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이 있으나, 너희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2B-13A
부활절 후 7주 차 화요일.

요한복음 54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그분은 내 것에서 취하여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나, 다시 머지않아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분이 우리에게 ‘조만간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다시 조만간 나를 보게 될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조만간’이라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만간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다시 조만간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것이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통곡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을 겪는 것은 그 때가 왔기 때문이지만, 아기를 낳으면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니, 이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너희도 지금 슬픔을 겪고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며,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15-23

부활절 후 7주째 수요일.

요한복음, 55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때가 이르리니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보소서,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구에게도 묻지 않으실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믿느냐? 보라, 때가 다가오고 이미 왔으니, 너희는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남겨 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려 함이다.”

요한 복음, 56절 시작

그 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리니, 당신이 그에게 모든 육신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므로, 당신이 그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주님과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부터 제가 아버지께 가졌던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저를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소서. 저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저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들은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음을 진실로 깨달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었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멸망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나이다. 이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나는 주님께로 가나이다. 내가 이 말을 세상에 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1-13

부활절 후 7주, 제1차 공의회 성부들의 주일.

요한 복음, 57절

그 무렵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나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나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도 구하노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나니,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저는 주님을 알았으며, 이들도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니,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제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18-26
부활절 후 7주 금요일.

요한복음, 58절

그 무렵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는데, 그곳에 한 동산이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모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군인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불, 무기를 갖추고 그곳으로 왔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와 함께 서 있던 유다, 곧 그를 배반한 자도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졌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거늘,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가게 하라. 그리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 ‘주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나는 한 사람도 멸하지 아니하였노라.’”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때 군인들과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를 붙잡아 묶은 뒤, 먼저 안나에게 데려갔으니, 그는 그 해 대제사장이었던 카야파의 장인であった. 바로 그 카야파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던 자였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그 후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던 다른 제자가 나와 문지기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때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너도 그분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추워서 불을 피운 종들과 하인들은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해 왔습니다. 나는 항상 회당과 성전, 곧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르쳤으며, 비밀리에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묻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가까이 서 있던 시종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라. 옳게 말했으면, 왜 나를 때리느냐?” 안나는 예수를 묶은 채 대제사장 카야파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도 그분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는 부인하며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대제사장의 종 중 한 사람, 곧 베드로가 귀를 베어 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내가 너를 그분과 함께 동산에서 본 것이 아니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곧이어 닭이 울었다. 카야파에게서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려갔다. 아침이 되었는데, 그들은 부정해지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지킬 수 있도록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요한복음 18:1-28
성금요일, 아침 예배 제2복음.

요한 복음, 59A절

그 무렵, 예수님을 카야파에게서 총독 관저로 데려갔다. 아침이었는데, 그들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또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였다.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분이 악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암시하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스스로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네게 말한 것이냐?”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유대인인가? 네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물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구나.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함이다. 진리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그분께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말을 한 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 “너희에게는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 주는 관례가 있으니, 원한다면 유대인의 왕을 풀어 주겠느냐?”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시 소리쳐 말하기를 “그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 주시오”라고 하였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라고 명하였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붉은 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니, 내가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려 함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관과 붉은 겹옷을 입고 나오셨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사람이시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그분을 보자 소리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으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 율법에 따라 죽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였다.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풀어 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네게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에 대해 아무런 권세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 주려고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쳐 말하였다. “그를 풀어 주면, 너는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다. 자칭 왕이 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르의 적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포스트로톤이라 불리는 곳, 곧 히브리 말로 가바파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때는 유월절 전 금요일, 제6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희 왕이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쳐 말하였다. “그를 데려가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 그러자 마침내 그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요한복음 18:28-19:16A

성금요일, 아침 예배에서 제4복음서.

요한 복음, 59B절

그 무렵, 예수님을 카야파에게서 총독 관저로 데려갔다. 아침이었는데, 그들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또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였다.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분이 악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암시하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스스로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게 말한 것이냐?”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

가 유대인인가? 네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물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하듯이, 내가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함이다. 진리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그분께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말을 한 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 “너희에게는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 주는 관례가 있으니, 원한다면 유대인의 왕을 풀어 주겠느냐?”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시 소리쳐 말하기를 “그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 주시오”라고 하였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라고 명하였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붉은 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니, 내가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려 함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관과 붉은 옷을 입고 나오셨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그분을 보자 소리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으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분은 죽어야 합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그리고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였다.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풀어 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당신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에게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 주려고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쳐 말하였다. “그를 풀어 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칭 왕이라 하는 자는 모두 카이사르의 적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포스트로톤이라 불리는 곳, 곧 히브리어로 가바파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때는 유월절 전 금요일이었고, 제6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희 왕이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쳐 말하였다. “그를 데려가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 그제야 비로소 그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갔다.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마’라고 불리는 곳,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와 함께 양쪽에 두 사람을 못 박았는데, 예수가 가운데에 계셨다. 빌

라도는 또한 표지판을 써서 십자가 위에 달았다.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표지판을 읽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 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쓴 대로 썼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각 병사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고, 히톤도 나누어 가졌다. 그 헐토는 꿰매지 않고 위에서 아래까지 한 조각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구의 것이 될지 정하자.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자. ‘그들은 내 옷을 나누어 가졌고,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도다.’” 군인들은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인 마리아 클레오파,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자신이 사랑하시던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여인아! 보라, 네 아들이라.”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 그 후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그곳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군인들은 스펀지에 식초를 적서 쑥대 끝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대어 드렸다. 예수님께서 식초를 맛보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러나 그날은 금요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지 않으려고—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빌라도에게 그들의 정강이를 쳐서 시체를 내려 달라고 청했다. 이에 군인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정강이를 찢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의 정강이도 찢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다랐을 때,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그분의 정강이를 찢지 않았으나, 군인 중 한 사람이 창으로 그분의 갈비뼈를 찢었더니,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 그는 자신이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이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라.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말하기를, ‘그들이 찢린 자를 바라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8:28-19:37

성금요일, 제9시.

요한복음 60장

그 무렵,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벌였고, 그분을 본 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며 소리쳐 말하기를 “받아라, 받아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 율법에 따라 죽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말씀하였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였다.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풀어 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네게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에 대해 아무런 권세도 없었을 것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포스트로톤이라 불리는 곳, 곧 히브리 말로 가바파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때는 유월절 전 금요일, 제6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희 왕이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쳐 외쳤다. “그를 데려가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데리고 나갔다.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마’라고 불리는 곳,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 양옆에 다른 두 사람도,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빌라도는 또한 표지판을 써서 십자가 위에 달았다.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비문을 읽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비문이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인 마리아 클레오파,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가 거기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여인아! 보라, 네 아들이라.”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 때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고개를 숙이시어 숨을 거두셨다. 그러나 그날은 금요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지 않으려고 —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 빌라도에게 그들의 정강이를 찢러 시신을 내려 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군인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정강이를 찢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의 정강이도 찢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다랐을 때,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그분의 정강이를 찢르지 않았으나, 군인 중 한 사람이 창으로 그분의 갈비뼈를 찢었더니,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다.

마태복음 27:1-2; 요한복음 19:6B-11A, 13-20, 25-28A, 30B-35A
8월 1일과 9월 14일, 주님의 십자가 축일, 성찬례에서.

요한 복음서, 61A절

그 무렵,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인 마리아 클레오파,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여인아! 보라, 네 아들이라.”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 때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 그 후 예수

요한복음

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군인들은 스펀지에 식초를 적셔 쑥대 끝에 꽂아 그분의 입에 대어 드렸다. 예수님께서 식초를 맛보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러나 그날은 금요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지 않으려고—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빌라도에게 그들의 정강이를 쳐서 시체를 내려 달라고 청했다. 이에 군인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정강이를 찢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의 정강이도 찢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다랐을 때,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그분의 정강이를 찢지 않았으나, 군인 중 한 사람이 창으로 그분의 갈비뼈를 찢었더니,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 그는 자신이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이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다.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말하기를, ‘그들이 찢린 자를 바라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25-37
성금요일, 아침 예배 제9복음.

요한복음, 61B절

그 무렵,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인 마리아 클레오파,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자신이 사랑하시던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보라, 네 아들이라.”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 제자가 바로 이 일에 대해 증언하며 이를 기록하였으니,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임을 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나,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한다면, 내 생각에 온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9:25-27; 21:24-25
9월 26일과 5월 8일, 신학자 요한을 기리는 날, 성찬식에서.

요한 복음서, 62절

그 무렵, 아리마대 사람 요셉—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던 자—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하였다.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왔다. 니고데모도 왔는데, 그는 전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으로, 스미르나와 알로에로 만든 향료 약 100리터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보통 장사 지내는 관례대로 향료를 섞은 천으로 감쌌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안치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앞두고, 무덤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에 안치했다.

요한복음, 63절

그 무렵, 주간의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직 어두울 때 일찍 무덤에 와서 무덤의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셨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곧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 무덤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함께 달려갔으나,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는 몸을 굽혀 놓여 있는 수의만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뒤를 이어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수의만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다른 곳에 말려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무덤에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아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복음 20:1-10
제7주일 복음.

요한복음 64장

그 무렵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던 곳, 즉 머리 쪽과 발 쪽에 각각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그녀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 주님을 가져가 버렸는데,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녀는 그분이 정원사인 줄 알고 그분께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다면, 어디에 두셨는지 말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마리아야!” 그녀가 돌아서서 그분께 말하였다. “라부니!” –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내 아버지이자 너희 아버지이신 분께, 내 하나님이자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았으며 그분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요한복음 20:11-18
부활절 제8주일 복음.

요한 복음, 65A절

그 주간의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모여 있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

고는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숨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토마, 일명 쌍둥이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분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내 손을 그분의 갈비뼈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덟 날이 지난 후,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는 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라!” 그 후 토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20:19-31

제9주일 복음.

안티파스하 주일, 성찬식에서.

10월 6일, 사도 도마.

요한 복음서, 65B절

그 주간의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여 있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과 갈비뼈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숨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토마, 일명 쌍둥이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분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내 손을 그분의 갈비뼈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요한복음 20:19-25

부활절 주일, 저녁 기도 때.

요한복음, 65B절

그 주간의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모여 있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숨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요한복음 20:19-23
오순절 주일, 아침 예배.

요한복음, 66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제자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곧바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잡을 것이다.”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 그는 벌거벗은 상태였으므로 – 옷을 허리에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가왔는데, – 육지에서 약 200 팔꿈치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있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오니, 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큰 물고기 백 오십삼 마리로 가득 찬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는데, 그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점심을 먹으라.” 제자들 중 누구도 감히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묻지 못했는데, 이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주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요한복음 21:1-14
제10주일 복음.

요한복음, 67절

그 무렵,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요나의 아들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또 다른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요나의 아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라.” 세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요나의 아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에 슬퍼하며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으면 네 손을 내밀어 다른 이가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자기 뒤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는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 누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라고 말했던 바로 그 제자였다. 베드로는 그를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기를 원하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기를 원하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 이 제자가 바로 이 일에 대해 증언하며 이를 기록하였으니,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나, 그것을 모두 자세히 기록한다면, 내 생각에 온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14-25

제11주일 복음.

부활절 후 7일째 되는 토요일, 성찬예배에서.

신학자 요한과 다른 사도들을 위한 아침 기도.

1월 16일, 사도 베드로, 성찬식에서.

목차로.

복음서 봉독 순서

모든 주간

부활절 주간

성찬식: 요한복음 1장. **저녁 기도:** 요한복음 65B장.

월요일: 요한복음 2장.

화요일: 루카 복음서 113절.

수요일: 요한복음 4장.

목요일: 요한복음 8장.

금요일: 요한복음 7장, **성모 마리아:** 루카복음 54장.

토요일: 요한복음 11장.

부활절 후 2주, 도마 주일

아침 기도: 마태복음 116장. **성찬식:** 요한복음 65A장.

월요일: 요한복음 6장.

화요일: 요한복음 10장.

수요일: 요한복음 15장.

목요일: 요한복음 16장.

금요일: 요한복음 17장.

토요일: 요한 복음서 19장.

부활절 후 3주일, 향유를 바친 여인들

아침 예배: 마가복음 71장. **성찬식:** 마가복음 69B장.

월요일: 요한복음 13장.

화요일: 요한복음 20장.

수요일: 요한복음 21장.

목요일: 요한복음 22장.

금요일: 요한복음 23장.

토요일: 요한 복음서 52장.

부활절 후 4주일, 마비된 자에 대하여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112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14A절.

월요일: 요한 복음서 24장.

화요일: 요한 복음서 25장.

중간 주 수요일: 요한 복음서 26장.

목요일: 요한 복음서 29장.

금요일: 요한 복음서 30장.

토요일: 요한 복음서 31장.

부활절 후 5주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주일

아침 예배: 요한복음 63장. **성찬식:** 요한복음 12장.

월요일: 요한복음 32장.

화요일: 요한복음 33장.

수요일: 요한복음 18장.

목요일: 요한복음 35A장.

금요일: 요한 복음서 37A장.

토요일: 요한복음 38장.

부활절 후 6주일, 눈먼 자에 관하여

아침 예배: 요한복음 64장. **성찬식:** 요한복음 34장.

월요일: 요한복음 40장.

화요일: 요한복음 42A장.

수요일: 요한복음 43장.

목요일, 주님의 승천

아침 예배: 마가복음 71절. **성찬식:** 누가복음 114절.

금요일: 요한복음 47장.

토요일: 요한복음 48A장.

부활 후 7주일, 제1차 공의회 성부들

아침 예배: 요한복음 66절. **성찬례:** 요한복음 56절.

월요일: 요한 복음서 49장.

일 년 내내

화요일: 요한 복음서 53장.

수요일: 요한 복음서 54장.

목요일: 요한 복음서 55장.

금요일: 요한 복음서 57장.

토요일: 요한 복음서 67장, 그리고 고인 추모: 요한 복음서 16장.

오순절 주일

아침 예배: 요한 복음서 65B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27절.

성령강림 월요일: 마태복음 75절.

화요일: 마태복음 10B장.

수요일: 마태복음 12장.

목요일: 마태복음 13장.

금요일: 마태복음 14장.

토요일: 마태복음 15장.

오순절 후 제1주일, 모든 성인의 날 (8음조)

아침 기도: 마태복음 116장. 성찬식: 마태복음 38A장.

제2주

월요일: 마태복음 19장.

화요일: 마태복음 22장.

수요일: 마태복음 23장.

목요일: 마태복음 27장.

금요일: 마태복음 31절.

토요일: 마태복음 20A장.

오순절 후 제2주일, 러시아 땅에서 빛을 발한 모든 성인들의 날, 제1음조

아침 기도: 마가복음 70절부터. 성찬식: 마태복음 9절부터

그리고 성인들: 마태복음 10A절.

제3주

월요일: 마태복음 34A절.

화요일: 마태복음 35절.

일 년 내내

수요일: 마태복음 36장.

목요일: 마태복음 37장.

금요일: 마태복음 38B.

토요일: 마태복음 24장.

제3주, 제2음조

아침 예배: 마가복음 71절. 성찬예배: 마태복음 18절.

제4주

월요일: 마태복음 40장.

화요일: 마태복음 41절.

수요일: 마태복음 42절.

목요일: 마태복음 43장.

금요일: 마태복음 44장.

토요일: 마태복음 26장.

제4주, 제3음조

아침 예배: 누가복음 112절부터. 성찬 예배: 마태복음 25절부터.

제5주

월요일: 마태복음 45절.

화요일: 마태복음 46A절.

수요일: 마태복음 48절.

목요일: 마태복음 49장.

금요일: 마태복음 50장.

토요일: 마태복음 30장.

제5주, 제4음조

아침 예배: 누가복음 113절. 성찬 예배: 마태복음 28절.

제6주

월요일: 마태복음 51절부터.

화요일: 마태복음 52A절.

일 년 내내

수요일: 마태복음 53절.

목요일: 마태복음 54장.

금요일: 마태복음 55장.

토요일: 마태복음 32장.

제6주, 제5음조

아침 예배: 누가복음 114절. 성찬 예배: 마태복음 29절.

제7주

월요일: 마태복음 56절부터.

화요일: 마태복음 57절.

수요일: 마태복음 60절부터.

목요일: 마태복음 61장.

금요일: 마태복음 63장.

토요일: 마태복음 39장.

제7주, 제6음조

아침 예배: 요한복음 63절. 성찬식: 마태복음 33절.

8주

월요일: 마태복음 65절.

화요일: 마태복음 66절.

수요일: 마태복음 68절.

목요일: 마태복음 69절.

금요일: 마태복음 71장.

토요일: 마태복음 47장.

제8주, 제7음조

아침 예배: 요한복음 64절. 성찬식: 마태복음 58절.

제9주

월요일: 마태복음 74절부터.

화요일: 마태복음 76장 시작.

일 년 내내

수요일: 마태복음 80장.

목요일: 마태복음 81장.

금요일: 마태복음 83B절.

토요일: 마태복음 64장.

제9주, 제8음조

아침 기도: 요한복음 65A절. 성찬식: 마태복음 59절.

제10주

월요일: 마태복음 84A절.

화요일: 마태복음 85절.

수요일: 마태복음 86절.

목요일: 마태복음 88절.

금요일: 마태복음 91절.

토요일: 마태복음 73절.

제10주, 제1음조

아침 예배: 요한복음 66절. 성찬식: 마태복음 72절.

제11주

월요일: 마태복음 94절.

화요일: 마태복음 95절.

수요일: 마태복음 96절.

목요일: 마태복음 99절.

금요일: 마태복음 100장.

토요일: 마태복음 78장.

제11주, 제2음조

아침 예배: 요한복음 67절. 성찬식: 마태복음 77절.

제12주

월요일: 마가복음 2A절.

화요일: 마가복음 3장.

일 년 내내

수요일: 마가복음 4장.

목요일: 마가복음 5장.

금요일: 마가복음 9장.

토요일: 마태복음 82절.

제12주, 제3음조

아침 예배: 마태복음 116절. 성찬식: 마태복음 79절.

13주

월요일: 마가복음 11장.

화요일: 마가복음 12장.

수요일: 마가복음 13장.

목요일: 마르코 복음서 14장.

금요일: 마가복음 15장 시작.

토요일: 마태복음 90A장.

제13주, 제4음조

아침 예배: 마가복음 70절. 성찬식: 마태복음 87절.

14주

월요일: 마가복음 16장 시작 부분.

화요일: 마가복음 17장 시작.

수요일: 마가복음 18장.

목요일: 마가복음 19장.

금요일: 마가복음 20장 시작.

토요일: 마태복음 93장.

제14주, 제5음조

아침 예배: 마가복음 71절. 성찬 예배: 마태복음 89절.

15주

월요일: 마가복음 21장부터.

화요일: 마가복음 22절부터.

일 년 내내

수요일: 마가복음 23절.

목요일: 마가복음 25장.

금요일: 마가복음 26장.

토요일: 마태복음 97장.

제15주, 제6음조

아침 예배: 누가복음 112절부터. 성찬 예배: 마태복음 92절부터.

16주

월요일: 마가복음 27장부터.

화요일: 마가복음 28장 시작.

수요일: 마가복음 29장.

목요일: 마가복음 30장부터.

금요일: 마가복음 32장.

토요일: 마태복음 101장.

제16주, 제7음조

아침 예배: 누가복음 113절부터. 성찬 예배: 마태복음 105절부터.

17주

월요일: 마가복음 48절부터.

화요일: 마가복음 50절.

수요일: 마가복음 51절.

목요일: 마가복음 52장부터.

금요일: 마가복음 53장.

토요일: 마태복음 104장.

제17주, 제8음조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114절. 성찬 예배: 마태오 복음서 62절.

18주

월요일: 루카 복음서 10장.

화요일: 루카 복음서 11장.

일 년 내내

수요일: 루카 복음서 12장.

목요일: 루카 복음서 13장.

금요일: 누가복음 14장.

토요일: 루카 복음서 15장.

제18주, 제1음조

아침 기도: 요한복음 63장. 성찬식: 루카복음 17장.

19주

월요일: 누가복음 16장.

화요일: 루카 복음서 18장.

수요일: 누가복음 21장.

목요일: 루카 복음서 23절.

금요일: 누가복음 24장부터.

토요일: 루카 복음서 19장.

제19주, 제2음조

아침 기도: 요한복음 64절부터. 성찬식: 루카복음 26절부터.

20주

월요일: 누가복음 25장.

화요일: 루카 복음서 27장.

수요일: 누가복음 28장.

목요일: 루카 복음서 31절.

금요일: 루카 복음서 32장.

토요일: 루카 복음서 20장.

제20주, 제3음조

아침 기도: 요한복음 65A절. 성찬식: 누가복음 30절.

21주

월요일: 누가복음 33장부터.

화요일: 루카 복음서 34절.

일 년 내내

수요일: 누가복음 37절.

목요일: 루카 복음서 41절.

금요일: 누가복음 42장.

토요일: 루카 복음서 22장.

제21주, 제4음조

아침 기도: 요한복음 66절부터. 성찬식: 누가복음 35절부터.

22주

월요일: 누가복음 43절부터.

화요일: 루카 복음서 44절.

수요일: 루카 복음서 47장 시작.

목요일: 루카 복음서 48A장.

금요일: 누가복음 50A장.

토요일: 누가복음 29장.

제22주, 5음조

아침 기도: 요한복음 67절. 성찬식: 루카복음 83절.

23주

월요일: 누가복음 52절부터.

화요일: 루카 복음서 55절.

수요일: 누가복음 56절.

목요일: 루카 복음서 57절.

금요일: 누가복음 58장.

토요일: 루카 복음서 36장.

제23주, 6음조

아침 예배: 마태복음 116절부터. 성찬 예배: 누가복음 38절부터.

24주

월요일: 누가복음 59절부터.

화요일: 누가복음 60절부터.

일 년 내내

수요일: 누가복음 61절.

목요일: 루카 복음서 62절.

금요일: 누가복음 63장.

토요일: 루카 복음서 40장.

제24주, 제7음조

아침 예배: 마가복음 70장. 성찬식: 누가복음 39장.

25주

월요일: 누가복음 65절부터.

화요일: 루카 복음서 68절.

수요일: 누가복음 69절부터.

목요일: 루카 복음서 70장.

금요일: 루카 복음서 73장.

토요일: 루카 복음서 46장.

제25주, 8음조

아침 예배: 마가복음 71절부터. 성찬식: 누가복음 53절부터.

26주

월요일: 누가복음 75절부터.

화요일: 루카 복음서 77절부터.

수요일: 누가복음 78절.

목요일: 루카 복음서 80장.

금요일: 루카 복음서 82장.

토요일: 루카에서 시작 49.

제26주, 제1음조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112절. 성찬 예배: 루카 복음서 66절.

27주

월요일: 누가복음 86절.

화요일: 루카 복음서 87절.

일 년 내내

수요일: 루카 복음서 90절.

목요일: 루카 복음서 92절.

금요일: 누가복음 95장.

토요일: 루카 복음서 51B장.

제27주, 제2음조

아침 예배: 누가복음 113절. 성찬 예배: 누가복음 71절.

28주

월요일: 누가복음 97절부터.

화요일: 루카 복음서 98절.

수요일: 루카 복음서 99절.

목요일: 루카 복음서 100장.

금요일: 누가복음 101장.

토요일: 루카 복음서 67절.

제28주, 제3음조

아침 예배: 누가복음 114절. 성찬 예배: 누가복음 76절.

29주

월요일: 누가복음 102절부터.

화요일: 루카 복음서 106절.

수요일: 루카 복음서 104절.

목요일: 루카 복음서 107절.

금요일: 루카 복음서 108A장.

토요일: 루카 복음서 72절.

제29주, 4음조

아침 예배: 요한복음 63절. 성찬식: 루카복음 85절.

30주

월요일: 마가복음 33절부터.

화요일: 마가복음 34절부터.

일 년 내내

수요일: 마가복음 36절.

목요일: 마가복음 39장.

금요일: 마가복음 41장 시작.

토요일: 누가복음 74장.

제30주, 제5음조

아침 예배: 요한복음 64절부터. 성찬식: 누가복음 91절부터.

31주

월요일: 마가복음 42절부터.

화요일: 마르코 복음서 43장.

수요일: 마가복음 44장 시작.

목요일: 마가복음 45장 시작.

금요일: 마가복음 46장 시작.

토요일: 누가복음 81장 시작.

제31주, 6음조

아침 예배: 요한복음 65A절. 성찬식: 누가복음 93절.

32주

월요일: 마가복음 48절부터.

화요일: 마가복음 50절부터.

수요일: 마가복음 51절.

목요일: 마가복음 52절.

금요일: 마가복음 53장.

토요일: 누가복음 84장 시작.

제32주, 제7음조

아침 예배: 요한복음 66절부터. 성찬식: 누가복음 94절부터.

33주

월요일: 마가복음 54절부터.

화요일: 마가복음 55절부터.

일 년 내내

수요일: 마가복음 56절.

목요일: 마가복음 57장.

금요일: 마가복음 58장.

토요일: 누가복음 88장 시작.

제33주,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하여

아침 예배: 주일 복음. 성찬 예배: 누가복음 89절.

제34주

월요일: 마가복음 59절부터.

화요일: 마가복음 60장.

수요일: 마가복음 61절.

목요일: 마가복음 62절.

금요일: 마가복음 63장.

토요일: 누가복음 103장 시작.

제34주, 탕자에 관한 이야기

아침 예배: 주일 복음. 성찬 예배: 누가복음 79절.

35주

월요일: 마가복음 49절부터.

화요일: 마가복음 64절부터.

수요일: 마가복음 65절.

목요일: 마가복음 66절.

금요일: 마르코 복음서 68장.

고기 금식 토요일: 루카 복음서 105절부터, 고인 추모 기도: 요한 복음서 16절부터.

제35주, 고기 금식 주간

아침 예배: 주일 복음. 성찬식: 마태복음 106절.

유제품 금식 주간

월요일: 누가복음 96절.

화요일: 누가복음 109절.

일 년 내내

수요일: 성찬식이 없습니다.

목요일: 루카 복음서 110절.

금요일: 성찬식이 없습니다.

토요일(사순절 전 토요일): 마태복음 16장부터, **성인들**: 마태복음 43장부터.

사순절 주일

아침 예배: 주일 복음. **성찬식**: 마태복음 17장 .

목차로.

복음서 낭독 순서

대사순절

대순교 기간 첫 번째 토요일

성찬예배: 마가복음 10장 초반부, 성인 본문: 요한복음 52장 초반부.

대사순 제1주일

아침 기도: 주일 복음. 성찬식: 요한복음 5장. 기도 찬송: 마태복음 75장.

대금식 제2주 토요일

성찬례에서: 마가복음 6장, 고인 기도를 위해: 요한복음 16장.

대사순절 2주일

아침 기도: 주일 복음. 성찬식: 마가복음 7장, 성인 기념: 요한복음 36장.

사순절 3주 토요일

성찬례: 마가복음 8장, 고인 기도를 위한 본문: 요한복음 16장.

사순절 제3주일

아침 기도: 주일 복음. 성찬식: 마가복음 37절.

사순절 제4 토요일

성찬례: 마가복음 31절, 고인 기도를 위한 본문: 요한복음 16절.

사순절 제4주일

아침 기도: 주일 복음. 성찬식: 마가복음 40장, 성인 기념: 마태복음 10A장.

사순절 5주 토요일

성찬례: 마가복음 35절부터, 성모님께: 누가복음 54절부터.

사순절 5주

아침 기도: 주일 복음. 성찬식: 마가복음 47장 초반, 성녀: 누가복음 33장 초반.

사순절

사순절 6주 토요일, 나사로 주일

성찬식: 요한복음 39절.

바아이 주일

아침 예배: 마태복음 83A절. 성찬식: 요한복음 41A절.

대순교 월요일

아침 기도: 마태복음 84B절. 성찬식: 마태복음 98절.

성대한 화요일

아침 예배: 마태복음 90B절. 성찬식: 마태복음 102절.

성수요일

아침 예배: 요한복음 41B절. 성찬식: 마태복음 108절.

성 목요일

아침 예배: 누가복음 108B절.

성찬식: 마태복음 107절.

발 씻음 예식: 요한복음 44절.

발 씻음 예식 후: 요한복음 45절.

12편의 성스러운 수난 복음서

주 하느님이시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1. 요한복음 46절.
2. 요한 복음서 58장.
3. 마태복음 109장.
4. 요한 복음서 59A.
5. 마태복음 111장.
6. 마가복음 서두 67A.
7. 마태복음 113장.
8. 누가복음 서두 111.
9. 요한복음 서두 61A.
10. 마가복음 서두 69A.

사순절

11. 요한복음 62장.

12. 마태복음 서두 114.

성금요일

제1시: 마태복음 110A.

제3시: 마가복음 67B.

제6시: 루가의 서 111절.

제9시: 요한복음 59B절부터.

저녁 기도: 마태복음 110B절부터.

성 토요일

아침 기도 중 찬송 후: 마태복음 114절부터.

성찬식에서: 마태복음 115절.

목차로.

부활절 아침 복음

1. 마태복음 116절.
2. 마가복음 70절.
3. 마가복음 71장.
4. 누가복음 112장.
5. 누가복음 113장.
6. 누가복음 서두 114.
7. 요한복음 63장.
8. 요한복음 64장.
9. 요한복음 65A.
10. 요한복음 66장.
11. 요한복음 서론 67 .

목차로.

이동하지 않는 축일 복음 및

9월

1. 성 시메온 기둥수행자와 새로운 교회 연도

새해 전례에서: 루카 복음서 13장.

그리고 성자 시메온 기둥수행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3절부터.

4. 벨고로드 주교 성 요아사프

아침 기도 및 성찬식: 요한 복음서 36절.

5. 성자 예언자 사가랴와 의로운 엘리사벳

성찬례에서: 마태복음 96절.

6. 콜로사(호나)에서 대천사 미카엘이 행하신 기적 기념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1A절.

7. 순교자 소존트

성찬례에서: 요한복음 52절.

8.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여주인이시며 성모 마리아 이자 영원히 동정녀이신 마리아의 탄생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절.

9. 거룩하고 의로운 성 요아킴과 성 안나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36절.

11. 아폰의 성 실루안

아침 기도: 마태복음 43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24장.

12. 성모 마리아의 탄생 축일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장 서두.

십자가 높이심 전 토요일

성찬례: 마태복음 39장.

십자가 높이심 전 주일

성찬례: 요한복음 9장.

13.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성전 재건

성찬례: 마태복음 67B절.

14. 주님의 거룩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승천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42B절.

성찬례에서: 요한 복음서 60절.

십자가 높이심 후 토요일

성찬례: 요한복음 30절.

십자가 높이심 후 주일

성찬례: 마가복음 37절.

16. 모든 찬미를 받는 대순교녀 유프미아

성찬식: 루카 복음서 33장.

20. 대순교자 에우스타피오스 플라키데스

성찬례: 루카 복음서 106절.

21. 십자가 승천 축일.
성 디미트리, 로스토프 대주교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에서: 요한 복음서 36절.

23. 성 요한 세례자 탄생

성찬례: 루카 복음서 2장.

25. 라도네즈의 성 세르기우스 대성인의 선종

아침 기도: 마태복음 43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24장.

26.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 신학자 요한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67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61B절.

28. 성 하리톤 고백자

아침 기도: 마태복음 10A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24장.

30. 성 미카엘,**키예프 및 전 러시아의 초대 대주교이자 기적행자**

성찬례: 요한복음 36절.

10월**1.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보호 축일. 사도 아나니아**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절.

그리고 사도: 누가복음 51A절.

3. 성 순교자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타

성찬례에서: 마태복음 55절.

5. 모스크바의 성 베드로, 알렉시오, 이오니아, 필리포스, 에르모겐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6절.

성찬례에서: 마태복음 11장.

6. 성 사도 토마스

아침 예배: 요한 복음서 67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65A절.

9. 성 야고보 알페오 사도

아침 예배: 요한 복음서 67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51A절.

10. 율틴의 성 암브로시오

아침 기도: 마태복음 43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24장.

11. 일곱 집사 중 한 분인 사도 필립보

성찬례: 루카 복음서 50B절.

10월 11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제7차 세계 공의회 기념일**

성찬례: 요한복음 56절.

13. 이베르의 성모 마리아 성화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절.

16. 순교자 롱기노 백부장

성찬례: 마태복음 113절.

18.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 루카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67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1A절.

22. 카잔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성화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절.

23. 주님의 형제인 성 야고보 사도

성찬례: 마태복음 56절.

24. ‘모든 슬픔에 빠진 이들의 기쁨’ 성모 성화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절.

**26. 성 대순교자 디미트리오스
및 74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74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발생한**

아침 기도: 마태복음 36장.

성찬례에서: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성인: 요한복음 52절.

28. 성 디미트리오스, 로스토프 대주교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 요한복음 36절.

29. 로스토프의 아브라아미아 성자, 대수도원장

성찬례: 마태복음 43장.

11월

1. 베스레브렌니코프와 아시아의 기적행자 코스마와 다미안

성찬례: 마태복음 34B절.

5. 성 이오나, 노브고로드 대주교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6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36절.

6. 후틴의 성 바르라암, 노브고로드의 기적행자

성찬례: 루카 복음서 24장.

8. 대천사 미카엘과 모든 천상의 무형 세력들의 대축일

아침 예배: 마태복음 52B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1A절.

13. 성 요한 황금입자

아침 예배: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36절.

14. 성 필립보 사도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67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5장.

15. 성 파이시우스 벨리치코프스키

아침 기도: 마태복음 43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24장.

16.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 마태오

아침 기도: 요한복음 67절.

성찬례: 마태복음 30절.

19. 성 필라레트, 모스크바 및 콜로멘스크 대주교

아침 예배: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 마태복음 11장.

21.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성전 입성

아침 기도: 누가복음 4장.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절.

22. 사도 필리몬과 아르키포

성찬례: 루카 복음서 50A절.

23. 성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공의 선종

아침 기도 및 성찬식: 마태복음 43절.

24. 대순교녀 예카테리나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106절.

25. 성모 마리아의 성전 입성 축일.

성클레멘트 로마 교황
및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베드로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절.

그리고 순교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7. 노브고로드에서 일어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기적.
페르시아의 대순교자 야고보**

아침 기도: 누가복음 4장.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절.

그리고 대순교자에게: 요한복음 50절.

30. 성 안드레아 첫 부름받은 사도

아침 기도: 마태복음 9장.

성찬례: 요한복음 4장.

12월

3. 사바 스토로제프스키, 즈베니고로드스키 성자

성찬례: 마태복음 10A절.

4. 성녀 대순교자 바르바라

아침 기도: 마태복음 104절.

성찬례에서: 마가복음 21장.

5. 성 사바 성화자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24절.

성찬례: 마태복음 43절.

6. 성 니콜라스, 리키아의 미르 대주교, 기적행자

아침 예배: 요한복음 36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24절.

9. 의로운 안나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를 잉태하신 날

성찬례: 루카 복음서 36절.

10. 순교자 미나, 에르모겐, 에우그라프

성찬례: 루카 복음서 106절.

12. 트리미폰트 주교 성 스피리돈

성찬례 중: 루카 복음서 24절.

13. 성 순교자 에우스트라티오스, 아우크센티오스, 에우게니오스, 마르다리오스, 오레스토스

아침 기도: 마태복음 36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106절.

17. 예언자 다니엘과 세 소년: 아나니아, 아사리아, 미사엘

성찬식에서: 루카 복음서 62절.

성 조상들의 주간

성찬례: 루카 복음서 76절.

그리스도 탄생 전 토요일

성찬례: 루카 복음서 72절.

그리스도 탄생 전 주간 – 성부들

성찬례: 마태복음 1장.

20. 의인 크론슈타트의 요한**및 성신 운반자 성 이그나티우스 순교자**

의인에게: 마태복음 11장.

성순교자: 마가복음 41절.

21. 모스크바의 성자 대주교 페트르의 선종

아침 기도: 요한복음 35B절.

성찬례에서: 누가복음 24장.

22. 위대한 순교자 아나스타시아, 우조 해방자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33장 서두.

24. 주님 탄생 전야

제1시: 마태복음 2장.

제3시: 루카 복음서 5장.

6시: 마태복음 3장.

9시: 마태복음 4장.

성찬례 때: 루카 복음서 5장 시작 부분.

(토요일 또는 일요일: 마태복음 53장).

25. 그리스도의 탄생

아침 예배: 마태복음 2장.

성찬례에서: 마태복음 3장.

26.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찬례: 마태복음 4장.

그리스도 탄생 후 토요일

성찬례: 마태복음 46B.

그리스도 탄생 후 첫 주일

성찬례: 마태복음 4장.

27. 성 스테파노 사도, 첫 순교자이자 대집사

성찬식: 마태복음 87절.

28. 니코미디아의 20,000명 순교자들

성찬식: 루카 복음서 51B절.

29. 헤로데에 의해 학살당한 성유아들

성찬식에서: 마태복음 4장.

31. 주님 탄생 대축일 종료

성찬식: 일반 복음.

1월

1. 주님의 할례. 성 바실리오 대주교

아침 기도: 요한복음 36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6절.

그리고 성인: 루카 복음서 24절.

주현절 전 토요일

성찬례: 마태복음 5장.

주현절 전 주일

성찬례: 마가복음 1장.

2. 성 세라핌 사로프스키의 대축일

아침 기도: 마태복음 43절.

성찬례: 누가복음 24장.

4. 칠십 사도 성인들의 대축일

성찬례에서: 누가복음 50A절.

5. 주현절 전야

제1시: 마태복음 5장.

제3시: 마가복음 1장.

6시: 마가복음 2A절.

9시: 마태복음 서두 6.

전야 미사(토요일 또는 일요일 저녁 기도)에서: 루카 복음서 9장.

성수 축성식: 마가복음 2B장.

6. 주현절

아침 기도: 마가복음 2B장.

성찬식에서: 마태복음 6장 초반부.

성수 축성식: 마가복음 2B.

7. 세례자 요한 대축일

성찬식: 요한 복음서 3장.

주현절 후 토요일

성찬식: 마태복음 7장.

주현절 후 첫 주일

성찬례: 마태복음 8장.

9. 성 필립, 모스크바 대주교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24장.

성찬례: 요한복음 36장.

10. 비센스키의 은둔자 성 테오판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36절.

같은 날

성 그레고리우스, 니스 주교

성찬례: 마태복음 34B.

11. 성 테오도시오, 수도원 원장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24장.

성찬례에서: 마태복음 43절.

14. 주현절 후 첫 주일. 사도들과 동등한 니나, 조지아의 전도자

아침 기도: 마태복음 34B절.

성찬례: 마태복음 104절.

16. 사도 베드로의 사슬에 대한 경배

성찬식: 요한복음 67절.

17. 성 안토니우스 대성인의 축일

아침 예배: 마태복음 43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24장.

20. 성 유피미오스 대성인

아침 기도: 마태복음 43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24장.

1월 23일과 31일 사이의 주일.

러시아의 신순교자 및 고백자들

성찬례: 루카 복음서 105-106절.

24. 성녀 크세니아(상트페테르부르크)

아침 예배: 마태복음 43장.

성찬예식: 루카 복음서 54절.

25. 성 그레고리우스 신학자

아침 기도: 요한복음 35B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36절.

27. 성 요한 황금입의 유해 이송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36절.

30. 성 바실리오 대성인, 성 그레고리오 신학자, 성 요한 황금입의 대성인 대축일

바실리오스 대성인,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요한 황금입자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6절.

성찬례: 마태복음 11장.

2월

2. 주님의 성전 입성

아침 기도: 누가복음 8장.

성찬예배: 누가복음 7장.

3. 의인 시메온(주님을 맞이한 자)과 예언자 안나

성찬례: 루카 복음서 8B절.

5. 체르니히우 대주교 성 테오도시오

아침 기도: 요한복음 36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24장.

8. 대순교자 테오도르 스트라틸라토스

성찬례: 마태복음 36절.

9. 주님의 성전 봉헌 축일 종료

성찬례: 일반 복음.

12. 이베르의 성모 성화.**모스크바의 기적행자 성 알렉시오**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4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절.

성인을 위한: 루카 복음서 24절.

17. 대순교자 테오도르 티론

성찬례: 요한복음 52절.

24. 세례자 요한 성인의 머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견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31절.

성찬례에서: 마태복음 40장.

3월**9. 세바스티아의 40위 순교자들**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106절.

성찬례: 마태복음 80장.

25.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 루카 복음서 3A절.

4월

23. 승리의 성 대순교자 게오르기오스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63절.

성찬례: 요한복음 52장.

25.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 마르코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50A절.

성찬례: 마르코 복음서 23장.

27. 사도이자 성순교자 시메온,
예루살렘 주교이자 육신으로 주님의 친족

성찬례: 마태복음 56절.

30. 성 야고보 제베데오 사도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67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17절.

5월

1. 예언자 예레미야

성찬례: 루카 복음서 14장.

2. 성스러운 공작 보리스와 글레브의 유해 이장일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106절.

성찬례에서: 요한 복음서 52절.

3. 페체르스크의 성 테오도시오의 선종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24절.

성찬례: 마태복음 43절.

7. 351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하늘에 나타난 날을 기념함

성찬례: 요한 복음서 60절.

8.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인 신학자 요한

아침 예배: 요한 복음서 67절.

성찬례에서: 요한 복음서 61B절.

9. 성자이자 기적행자 니콜라오의 유해 이송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24장.

10. 성 사도 시몬 질로트

아침 기도: 요한복음 67절.

성찬례: 마태복음 56절.

11. 동등한 사도 키릴로스와 메포디우스, 슬라브인의 스승들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6절.

성찬례: 마태복음 11장.

12. 성순교자 에르모겐, 모스크바 총대주교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36절.

15. 우글리치 공작 디미트리 왕세자

아침 기도: 누가복음 106절.

성찬례에서: 요한 복음서 52절.

19. 경건한 대공 디미트리 돈스키

아침 기도: 마태복음 43절.

성찬례: 누가복음 24장.

20. 모스크바의 기적행자 성 알렉시우스의 유해 발견

아침 예배: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24장.

21. 사도들과 동등한 성 콘스탄티노스와 헬레나 왕

아침 기도: 요한복음 36절.

성찬례: 요한복음 35B절.

같은 날,

블라디미르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성화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장.

23. 성 레온티오, 로스토프 주교

성찬례: 마태복음 11장.

25. 세레자 요한의 머리 제3회 발견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31절.

성찬례에서: 마태복음 40장.

27. 의인 요한(러시아인), 신앙고백자

아침 기도: 마태복음 43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64절.

6월

8. 대순교자 테오도르 스트라틸라토스

성찬례: 마태복음 36절.

9. 성 키릴로,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성찬식에서: 마태복음 11장.

같은 날,

벨로예제르스크의 수도원장 성 키릴로

성찬식: 루카 복음서 24장.

10. 성 요한, 톨볼스크 대주교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에서: 요한 복음서 36절.

11. 사도 바르톨로메오와 바르나바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67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51A절.

14.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

성찬례: 루카 복음서 14장.

15. 성 이오나, 모스크바 대주교

아침 예배: 요한복음 35B절.

성찬례에서: 요한 복음서 36절.

**18. 보골류브의 성모 마리아 성화
및 순교자 레온티오**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4장 서두.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장.

순교자: 요한 복음서 52장.

19. 주님의 형제인 성 사도 유다

아침 기도: 요한복음 67절.

성찬례: 요한복음 48B절.

**같은 날,
모스크바 및 전 루시의 총대주교 성 요브**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 요한 복음서 36장.

23. 블라디미르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성화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절.

24. 세례자 요한의 탄생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3B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1절.

**25. 무릎 꿇은 공작 페트르와 공작부인 페브로니아,
무릎의 기적행자**

성찬례: 마태복음 10장.

26. 티흐빈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성화 현현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절.

28. “세 손을 가진 성모”라 불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성화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절.

같은 날,

성 세르기우스와 게르만, 발라암의 기적행자

아침 기도: 마태복음 43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24장.

29.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아침 기도: 요한복음 67절.

성찬례: 마태복음 67A절.

30. 열두 사도 대축일

성찬례: 마가복음 12장.

7월

**1. 로마에서 순교한 무보수 의사이자 기적 행자 코스마와 다미안,
로마에서 순교하신**

성찬례: 마태복음 34B절.

2. 블라헤르나에 성모 마리아의 성의 안치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절.

3. 모스크바 대주교 성 필립의 유해 이송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35B절.

성찬례에서: 요한 복음서 36장.

4. 성스러운 왕족 순교자들:

니콜라이 2세 황제, 알렉산드라 황후,
왕세자 알렉세이, 대공녀 올가, 타티아나, 마리아, 아나스타시아,
불경한 권력자들에 의해 살해된 이들.

아침 기도: 마태복음 36장.

성찬례에서: 요한 복음서 52절.

같은 날,

성 안드레이 루블레프, 성화가의 축일.

아침 예배: 마태복음 43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24장.

5. 아폰의 성 아파나시우스. 라도네즈의 성 세르기우스의 유해 발견

아침 기도: 마태복음 43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24절.

8. 카잔의 성모 성화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절.

성 대순교자 프로코피오스

성찬례: 마태복음 39장.

10. 우리 주 하느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 안치

아침 예배: 마태복음 112절.

성찬례: 마가복음 67A절.

11. 모든 찬미를 받으시는 대순교녀 유프미아

성찬례: 루카 복음서 33절.

12. “세 손을 가진 성모”라 불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성화

아침 예배: 누가복음 4장.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절.

13. 대천사 가브리엘 대축일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1절.

15. 사도들과 동등한 위대한 공작 블라디미르 성인

아침 기도: 요한복음 36절.

성찬례에서: 요한복음 35B절.

7월 16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

여섯 차례의 세계 공의회 성부들의 기념일

성찬례: 요한 복음서 56장.

19. 성 세라핌 사로프의 유해 발견 기념일

아침 기도: 마태복음 43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24장.

20. 성 예언자 엘리야

아침 기도 및 성찬식: 누가복음 14장.

22. 사도와 동등한 마리아 막달레나

성찬례: 루카 복음서 34절.

23. 포차예프 성모 성화

아침 기도 때: 루카 복음서 4장.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장 서두.

24. 성 순교자 보리스와 글레브 공작

아침 기도: 루카 복음서 106절.

성찬례에서: 요한복음 52절.

25. 의로운 안나의 수면

성찬식: 루카 복음서 36절.

27. 대순교자이자 치유자 판텔레이몬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106절.

성찬례에서: 요한복음 52절.

28. 스몰렌스크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성화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4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절.

30. 순교자 요한 전사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51절.

성찬례: 마태복음 69절.

8월

1. 생명의 십자가의 기원(봉헌)

생명을 주는 주님의 십자가.

일곱 순교자 마카베오 형제들,

그들의 어머니 솔로모니아와 스승 엘레아자르

성찬례에서: 요한 복음서 60장.

그리고 성인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38B절.

성수 축성식: 요한 복음서 14B절.

2. 첫 순교자 스테파노의 유해 이장

성찬례에서: 마태복음 87절부터.

6. 주님의 변모

아침 기도 때: 누가복음 45절.

성찬례에서: 마태복음 70절.

7. 성 미트로판, 보로네즈 주교

아침 예배: 요한복음 35B절.

성찬례: 요한복음 36절.

9. 성 사도 마태오

아침 기도: 요한 복음서 67절.

성찬례: 루카 복음서 40절.

**13. 주님의 변모 축일.
성 티혼, 보로네즈 주교**

아침 예배: 요한복음 36절.

성찬례: 일반 복음서 및 마태복음 11장.

15.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수면

아침 기도: 누가복음 4장.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절.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상 이송

아침 기도 및 성찬식: 루카 복음서 48B절.

23.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승천 축일 종료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절.

24. 모스크바 대주교 성 베드로의 유해 이송

전례 중: 요한 복음서 36장.

25. 사도 바르톨로메오의 유해 이장. 사도 티토

성찬례: 마태복음 11장.

26. 블라디미르 성모 성화상 봉헌일

아침 기도: 누가복음 4장.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절.

29. 세례자 요한 성인의 참수

아침 기도: 마태복음 57절.

성찬례: 마가복음 24절.

30. 성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공의 유해 이장일

아침 기도 및 성찬식: 마태복음 43절.

31.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허리띠 안치

성찬례: 루카 복음서 54절.

목차로.

성인들에게 공통되는 복음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를 위한 예배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4절.

성찬례에서: 루카 복음서 54절, 또는 요한 복음서 6절, 또는 요한 복음서 61B절.

무형의 천상 세력을 위한 예배

아침 예배: 마태복음 52B절. 성찬식: 루카복음 51A절.

선지자들을 위한 예배

마태복음 96절 또는 누가복음 62절.

사도들을 위한 예배

아침 예배: 요한복음 67절.

성찬식에서 한 사도에게: 마태복음 34B.

두 명 또는 여러 사도: 누가복음 50B장 또는 51A장.

성인들 예배

아침 예배: 요한복음 35B절.

성찬식에서 한 분 성인을 기릴 때: 요한복음 36절 또는 누가복음 24절.

두 분 또는 여러 성직자: 마태복음 11장.

성인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친 자들을 위한 예배

아침 예배: 마태복음 43절.

성찬식에서: 마태복음 10A절 또는 누가복음 24절.

순교자를 위한 예배

아침 예배: 루카 복음서 63장. 성찬 예배: 요한 복음서 52장.

순교자들을 위한 예배

아침 예배: 마태복음 36장부터. 성찬식: 루카복음 106장부터.

성인들을 위한 복음 낭독

성순교자 예배

누가복음 67장부터.

성사순교자들을 위한 예배

누가복음 24장, 52장 또는 77장.

성스러운 순교자들을 위한 예배

한 분의 존경받는 순교자: 마가복음 37장.

성스러운 순교자들에게: 마태복음 38B장 또는 누가복음 64장.

순교녀들을 위한 예배

마태복음 62절 또는 마가복음 21절부터 시작.

성녀들을 위한 예배

마태복음 104장, 또는 누가복음 33장, 또는 요한복음 28장.

고백자들의 예배

누가복음 64장.

무상 봉사자들의 예배

마태복음 34B.

영혼의 안식을 위한 예배

월요일: 요한복음 15장.

화요일: 요한복음 16장.

수요일: 요한 복음서 21장.

목요일: 요한복음 22장.

금요일: 요한 복음서 23장.

토요일: 요한 복음서 16장.

목차로.

다양한 경우에 대한 복음 및

1. 세례 성사를 집전할 때

마태복음 116장.

2. 혼인 성사를 거행할 때

요한복음 6장.

3. 병자 성사 집전 시

1. 누가복음 53장.
2. 누가복음 94장.
3. 마태복음 34B절.
4. 마태복음 26장.
5. 마태복음 104장.
6. 마태복음 62장.
7. 마태복음 30장.

4. 고해 성사를 집전할 때

마태복음 30장 또는 누가복음 78장.

5. 여성의 고해 시

요한 복음서 28장.

6. 수도사들의 수계식에 대하여

마태복음 39장.

7. 평신도 장례식

요한 복음서 16장.

8. 수도사 장례식

요한 복음서 16장.

9. 사제들의 장례식

1. 요한 복음서 16장.
2. 요한 복음서 15장.
3. 요한 복음서 21장.
4. 요한 복음서 22장.
5. 요한 복음서 23장.

10. 유아 장례식

요한 복음서 21장.

11. 소수성수식 때

요한 복음서 14B.

12. 성전 봉헌식

요한 복음서 37B 또는 마태 복음서 67B.

13. 도시 기공식

마태복음 서두 67B.

14. 정교회 신앙 내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예배

마태복음 20B.

15. 교회의 화해와 연합을 위한 예배

마가복음 51장.

16. 평화에 관한 예배

요한복음 48B.

17. 전쟁 중 승리를 위한 예배

마가복음 51장.

18. 적의 공격 시 예배

누가복음 70장.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복음 낭독

19. 사회적 재난 시 예배

마가복음 51장.

20. 전염병이 돌 때의 사역

누가복음 16장.

21. 지진 발생 시의 사역

마태복음 27장.

22. 화재가 났을 때의 예배

누가복음 69절.

23. 가뭄 중에 예배 중

마태복음 65절.

24. 장마철 예배 중

마태복음 20B.

25. 병든 자를 위한 예배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둘째: 마가복음 21장.

셋째: 요한복음 13장.

26. 병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위한 기도

마태복음 28장 또는 72장, 마가복음 19장 또는 40장, 또는 누가복음 46장.

27. 자선을 베푸는 자들을 위한 예배

마태복음 20B절.

28. 온갖 청원에 대하여

마태복음 20B, 또는 마가복음 51, 또는 누가복음 88.

목차로.